



카카오뱅크, 공모가 3만9000원 15



강영권 “쌍용차 인수하면 회생 자신” 27

코스피(22일) 3250.21 (+34.30) 코스닥 1050.25 (+8.22P)
환율(달러당 원화) 1149.90 (-4.1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397% (+0.014%P)

또 불거진 공무원-공무직 차별 논란 서울시 勞勞 ‘공정갈등’

‘행정포털 시스템’ 사용 놓고
공무직 “우리 업무에도 필요”
공무원 “중요정보 공유 안돼”

서울시 공무원과 공무직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무직이 최근 서울시 행정포털 사용 권한을 요구하면서 고질적 문제였던 ‘차별’·‘역차별’ 논쟁이 다시 표출됐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공무원과 공무직 간 ‘노노(勞勞) 갈등’이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문제’와 궤를 같이하는 만큼 파장을 주목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서울시 공무직 노동조합은 공무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행정포털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원 경조사와 공지사항, 공무직 관련 문서 열람 등을 하려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사과는 공무직 행정포털 권한 부여에 관한 내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공무직은 2012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처음 생겼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용역직 노동자들을 공무직으로 통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청소, 경비, 기계 정비, 도로 보수, 주차, 사무실 업무 보조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도 공무직 전환을 시행했다.

서울시 공무원과 공무직은 2019년 이미 한 차례 크게 충돌한 바 있다.

박 전 시장을 필두로 서울시의회가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자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은 ‘공무직 특혜 조례를 폐지하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거리로 나왔다. 당시 서공노는 명예퇴직 수당 지급, 근무성적평가

결과로 성과급 지급과 같은 내용이 ‘특혜’라고 주장했다. 결국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공무직은 같은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래로 여기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후 잠잠했던 공무원과 공무직 갈등은 최근 행정포털 사용 권한을 두고 재점화했다. 공무원들은 그간 ‘역차별’을 겪은 사례를 꺼내들며 ‘민간인’ 신분인 공무직에게 행정포털 사용 권한을 쥐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유사 경력 인정이 공무원에 비해 폭넓게 인정되는 것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근무 지원 배제 등 공무직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공무원 A 씨는 “공무직이 행정포털 사용 근거로 제시하는 기능은 전체에서 1%도 되지 않는다”며 “공무직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데다 공무원이 아닌데 왜 권한을 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인 신분인 그들에게 서울시 주요 사업과 정보가 있는 행정포털을 공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라리 공무직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따로 구축하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 성격을 띠는 청원경찰의 경우 호봉 기준에 ‘인우증명서’(특정 사실에 대해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 증명하는 문서)가 인정되는 등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공무원 B 씨는 “유사 경력 호봉 인정 운영기준에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기재돼 있는데, 공무직은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청원경찰 C 씨는 “인우증명서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낸 뒤 추가로 제출한 것”이라면서 “인우증명서만으로는 경력 인정이 불가하고 유사 경력 역시 경찰청 경비업체 등록 여부를 따져서 인정해 준다”며 오히려 반박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섭씨 38도, 쪽방촌의 ‘힘겨운 여름나기’

절기상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인 22일 전국 곳곳에서 낮 최고기온이 37도를 넘어서는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으며 한낮에는 고양 37.9도, 서울 36.4도, 광주 35.8도까지 오르는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곳곳에 정전이 발생했고, 온열 환자와 가축 폐사도 잇따랐다. 서울 중구 남대문 쪽방촌의 한 입주주민이 밥상도 없이 바닥에 그릇을 놓고 식사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홍남기 “탄소중립 사업재편 기업 적극 지원”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13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구조개편도 사업재편·전환에 포함하고 사업구조개편 기업의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에도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적용 유예 등 공정거래법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재편기업 대상 1000억 원 규모 유동화회사보증(P-CBO) 지원, 연

공정거래법 규제 특례 부여
최대 7년 법인세 과세 이연
5000억 규모 금융지원 신설
‘위기지역’ 세금면 혜택 연장

구개발(R&D) 지원 확대와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투자액에 활용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 납부)을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5000억 원 규모의 사업구조개편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조성한다. 500억 원 규모의 사업재편펀드, 버팀목 펀드 주목적투자 대상에 사업구조개편 기업 포함, 사업구조개편 지원 전용 펀드 조성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재직자 역량강화·직무전환 지원을 위해 향후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석탄화력발전·내연자동차 산업 종사자 대상 사업구조대응 특화훈련을 2025년까지 10

만 명 규모로 신설·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 훈련을 개편해 디지털기초 원격 훈련의 지원비율을 50%→90%로, 대상을 27만6000명에서 2025년까지 연간 100만 명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으로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35개소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사업구조개편과 노동전환을 통합 관리·지원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

홍 부총리는 핵심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3대 국가전략 기술 분야로 해 세부 핵심기술을 총 65개 선정하고 2023년까지 2조 원+α 설비투자자금 집중 지원,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중 상반기 조기 완판된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1000억 원 추가 조성 출시하기로 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피치의 경고, 韓잠재성장률 2.5%→2.3%

국가신용등급은 ‘AA-’ 유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내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가 국가채무 부담을 가중하는 등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관련기사 6면

2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피치는 내년 잠재성장률 전망을 기존 2.5%에서 2.3%로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장기 성장 압박에 직면해 있다”며 “부정적인 인구 통계의 영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 증가도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어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 운용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위험의 향후 전개는 재정지출에 따른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제고 효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피치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2021년 7월 기준

신용등급	국가명
AAA	스위스, 독일,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AA+	캐나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AA	프랑스(-), 뉴질랜드(+), 등
AA-	한국, 영국, 홍콩, 대만 등
A+	중국, 이스라엘 등
A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A-	스페인, 칠레 등

※(+)는 ‘긍정’ 전망, (-) ‘부정’ 전망, 나머지는 ‘안정적’
※출처: 기획재정부

피치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4.5%로 예상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 가속화와 2차 추가경정예산 등에 힘입어 소비 회복이 하반기에도 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2차 추경 재원을 추가 세수로 충당하고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을 하지 않으며 국채를 일부 상환함에 따라 재정 전망은 애초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정대환 기자 vishalist@

수도권 ‘4단계 연장’ 가닥... 비수도권 ‘일괄 3단계’ 검토

민주노동원주집회 강행 ‘축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함께 비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검토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6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2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4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이 1533명, 해외유입은 309명이다. 수도권의 확산세는 일시적인 소강을 보이고 있으나, 경남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확진자 증가가 계속되고 있

다. 해외유입에는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례(270명)가 반영됐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늦어도 25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중대본은 비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비수도권 전역에 일괄 3단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비수도권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주는 방안이 무게가 쏠린다. 이미 강릉시(4단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동)의 23일 강원도 원주 집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취소를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노동은 방역 수칙을 고려해 100인 이하 집회를 8곳에서 분산 개최하겠다고 강행의 의지를 밝혔다. 원주시는 23일 0시부터 8월 1일 자정까지 모든 집회에 대해 4단계 기준인 1인 시위만 허용하고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코로나 작사·反日 작곡 ‘올림픽 마케팅 실종사건’

도쿄올림픽 오늘 개막

산업계의 도쿄 올림픽 마케팅 열기가 예년만 못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거리 응원이 어렵고, 저녁 시간대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 모임이 제한되면서 흥행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욕일기 응원 논란, 문재인 대통령 방일 무산 등으로 분위기가 얼얼해져 열기가 달아오르지 못하고 있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기업들은 통상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 맞춰 각종 마케팅 행사를 진행해왔지만 이번 도쿄 올림픽에는 특수가 실종됐다.

◇집콕·홈중 마케팅으로 선회= 유통가에서는 올림픽 개최 하루를 앞둔 이날까지 적극적인 프로모션이 눈에 띄지 않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예년에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몇 주 전부터 마케팅에 나서지만, 이번에는 올림픽이 일본에서 열리는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칫 역풍이 불까 봐 분위기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호텔업계는 2002년 한일월드컵 때부터

팬데믹 발 올림픽 흥행 기대 ‘폭’ 욕일기 논란 등 부정적 여론 확산

유통업계, 집콕 응원 틈새공략 전자업계, 수혜 없어 홍보 부담

응원과 숙박·식음료 연계 묶음 상품을 출시해왔지만, 이번 대회에는 각종 이벤트가 사라졌다. 주요 스포츠 행사 때마다 특수를 누린 치킨업계도 잠잠하다.

주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열릴 때마다 맥주는 편의점 업계의 단골 이벤트 상품이다. 하지만 올해는 자체 홈페이지에만 행사를 전달하는 데 그친다. GS25는 올림픽 축구 본선이 진행되는 22일과 25일, 28일 수입 맥주와 수제 맥주 4캔에 1만 원 행사와 8캔 구매시 신용카드 캐시백 이벤트를 열고, ‘쏟아살치킨’을 반값에 판다. 세븐일레븐은 축구 경기가 열리는 날 치킨을 50% 할인한다.

그나마 집콕 응원 마케팅만 간간히 보인다. 이마트는 집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홈관



22일 일본 도쿄의 후지 인터내셔널 스피드웨이 가 텅 빈 가운데, 단 한 명의 관객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앉아 있다. 이 경기장에서는 도쿄올림픽 사이클 경기가 열린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중’을 위해 22일부터 28일까지 수입맥주, 즉석조리식품 등을 할인 판매한다. 홈플러스도 28일까지 전국 매장 홈플러스 온라인에서 ‘승리 기원’ 할인전을 통해 소고기와 과일 등 먹거리와 야식 메뉴, 와인 등을 싸게 판다. 롯데홈쇼핑은 내달 8일까지 국가 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파이팅 코리아 쇼퍼대전을 진행해 방송 중 응원 영상과 쇼호스트 멘트를 통해 올림픽에 대한 관

상급 선수 10여 명으로 구성된 ‘팀 갤럭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한 명인 김연경 배구 국가대표 선수는 20일 출국길에서 아직 출시되지 않은 ‘갤럭시 워치4’를 착용하고 등장했다. 삼성전자는 일본 이동통신사 NTT도코모와 협업해 만든 ‘갤럭시 S21 올림픽 에디션’ 1만7000여 대를 올림픽과 패럴림픽 선수 전원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의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적극적인 홍보에 부담을 느껴 비대면 홍보 및 일부 제품 노출 등 소극적 마케팅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

LG전자도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OLED TV의 수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엔 특수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다만 출시 전 제품인 ‘전자식 마스크 2세대’를 태국 국가대표를 통해 홍보하는 등 틈새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대표적인 라이벌 기업인 토요타(Toyota)의 안방인 만큼 올림픽 마케팅이 사실상 전무하다. 남주현 기자 joo@ 송영록 기자 syr@ 김혜지 기자 heyji@

日 확진자 폭증에 커지는 ‘올림픽 회의론’

도쿄도 하루 평균 감염자 55%↑ 아베·후원사 줄줄이 불참 선언 선수촌 확진 발 대유행 우려도

여느 때보다 많은 논란과 우려를 불렀던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23일 개막한다. 온갖 우려곡절 끝에 개최가 성사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 내 코로나19 폭증세를 막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개막식을 치르게 된다. 대회 개최 도시인 도쿄도를 비롯한 주요 수도권 지역에 현재

긴급사태가 적용된 상태지만 좀처럼 확산세가 잡히질 않고 있다. 21일에도 일본 전역에서는 오후 6시 30분까지 5000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다. 도쿄도에서는 1800명이 넘는 신규 감염자가 나오면서 6개월여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도쿄도의 일주일 평균 일일 감염자 수는 1277.6명으로, 전주 대비 55.2% 폭증했다.

개막식도 기대했던 만큼의 흥행에 미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된다. 올림픽 유치의 주역이었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비롯해 도요타, 파나소닉 등 올림픽 후원사들이 줄줄이 개막식 불참을 선언했다. 아베 전 총리는 도쿄도 내 긴급사태 발령, 대부분의 경기가 무관중으로 개최되는 점 등을 감안

해 참석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관계자에게 전했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도쿄 올림픽 개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자 슬며시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들도 대부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개막식 참석 인원은 당초 예상했던 1만 명보다 훨씬 적은 950여 명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올림픽 참가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상당하다. 일본 방문 전후 일련의 검사를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선수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선수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변효선 기자 hsbun@

기후재앙 부추기는 ‘음식 쓰레기’

세계 年25억톤 배출... 미·유럽 車온실가스 비중의 2배

전 세계에서 매년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음식 쓰레기가 기후재앙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세계자연기금(WWF)과 영국 식료품체인 테스코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매년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음식 쓰레기가 25억 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1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측정한 양의 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수확 단계에서 버려지는 식량만 12억 톤에 달했다. 소매업체와 소비자가 배출하는 음식 쓰레기가 9억

3100만 톤이며 나머지는 운송, 저장, 제조, 공정 과정에서 발생했다. 분석 결과 전 세계에서 생산된 식량 가운데 40%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음식물 쓰레기 자체도 문제지만, 여기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게 더 치명적이다. 보고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음식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라고 분석했다. 유럽과 미국에서 자동차가 뿜어내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두 배에 해당한다. 김서영 기자 0jung2@

THE HYUNDAI SEOUL

SOUND OF THE FUTURE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혁신적인 리테일 플랫폼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더현대닷컴 | 현대홈쇼핑 | 현대Hmall | 현대백화점멤버십 | 한성 | 더한성닷컴 | H패션몰 | 현대리버트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현대어린이책이술관

더현대 서울



“특하면 민원, 권리만 주장” vs “태생 다르다며 차별”

공무원-공무직 갈등

서울시 공무원과 공무직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2019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이후 공무원 사이에서는 공무직을 향해 “받는 혜택에 비해 권리만 주장한다”는 불만소리가 터져 나온다. 반면 공무직은 “가족이라면서 선을 긋는다”며 차별에 대한 설움을 표출하고 있다. 일부 공무직은 공무원에 양심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2119명이다. 2017년 1562명이었던 공무직 직원은 2018년 1590명, 2019년 1979명, 2020년 2071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청원경찰(올해 기준 506명)과 서울대공원 등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 있는 직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났다.

◇“공무직, 처우 개선에도 일 제대로 안해” =서울시 공무원 사회에선 공무직이 고용 안정은 물론 각종 처우가 개선됐지만 일은 이전만큼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공무직 직군이 있는데도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직 무용론'도 나온다.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에 따

“공무직 생긴 후에도 기간제 채용 업무 효율 낮는데 조직만 커져”

“행정 포털 사용 권한 없어 불편 가족이라며 아쉬울 땐 선 그어”

르면 공무직은 △우선 채용 규정 △연가 △퇴직금 △시간외 수당 △퇴직 휴가 등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공무원은 우선 채용 규정이라고 할 만한 게 없지만, 공무직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자의 피부양가족'이 있을 때 그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서울시 공무원 A 씨는 “공무직은 시간외 수당 1일 제한도 없고 단가도 더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시간외수당이 약 8400~1만4000원 선이라 종일 일해도 금액이 많지 않다”면서 “공무직은 호봉이 높으면 1시간에 3만5000원 정도 되고 제한도 없어 많은 임금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은 공무직 관리 담당이 소위 '기피 업무'라고 입을 모은다. 갈등이 생기면 기관장이나 상급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직원을 단체협약상 명칭인 '시설 청소원’

서울시 공무직과 공무원 복지 비교

	공무직	공무원
우선채용 규정	-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자의 피부양가족의 요구가 있을 때 그 피부양가족을 우선채용	- 우선채용규정 無
연가일수	- 2년차까지 합계 15일 - 3년차부터 2년에 1일 가산 - 최대 25일	- 2년차까지 합계 9일 - 3년차부터 12일 - 최대 21일
퇴직금	- 평균임금 × 근속년수 - 5년이상 근속시 50%가산 - 순직시 20%가산(산재법상 유족급여도 수령)	- 퇴직수당: 20년 이상 근속시 기준소득월액의 39% - 순직시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지급
시간외 수당	- 월 통상임금의 150% - 1일 제한 없음 - 단가: 호봉별 차이(1만4033~3만5868원)	- 기준봉급액×55%×1/209×150% - 1일 4시간 제한 - 단가: 급수별 차이(9급 8357~5급 1만3368원)

※ 출처: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이 아닌 '청소원'으로 표기했다가 '미화원'으로 적으라며 호통을 들은 공무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생기면 상급자에게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담당 공무원을 무시하는 일도 왕왕 생긴다"며 "공무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때도 많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채용 경로 다르다고 차별”=공무직도 불만이 많다. 일선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겪는 설움도 과거에 비해 작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노노(勞勞) 갈등'의 방아쇠가 된 행정포털 사용 권한이 비근한 사례다.

연재현 민주노동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선전국장은 “우리한테 가족이라고 하지만 아쉬울 때 선을 그어 버린다”고 토로했다. 엄 국장은 “행정포털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처리가 훨씬 편해

지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면서 “각종 업무 편의를 위해서 행정포털 사용 권한이 필요하며 공공기관 중에 이용을 허가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무직은 공무원들이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시험을 보고 합격했다는 이유로 '태생이 다르다'는 인식을 버리지 않는다면 갈등 해소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직 B 씨는 “예전에는 공무원이 ‘밥줄’을 쥐고 있으니 뭐든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주어진 업무만 하려고 하다 보니 불만을 품는 공무원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소에서는 공무원과 사이가 안 좋으면 필요한 추가 업무에도 시간외 수당을 인정해 주지 않기도 한다”며 공무원의 갑질이 여전히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몇 가지 내용에서 공무직이 공무원보다 처우가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며 “싸우고 싶은 사람은 없다. 우리도 존중받고 싶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갈등 막으려면

“공무직 공개채용하고 업무 명확히 해야”

공무직, 임단협 통한 임금 결정 체계 바꾸고 소통창구 마련해야

'노노(勞勞) 갈등'에도 서울시 공무원과 공무직 양측 모두 '공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새로운 제도로 공무원이 겪는 역차별을 해소하고, 두 직군의 형평성을 맞추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 협상 체계 개편과 함께 공무직도 공개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임금과 수당, 복지 등에 대한 역차별을 호소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공무직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로 매년 임단협을 통해 임금 인상을 결정한다.

신용수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임단협을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임단협은 민간 기업에서 수익을 내고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세금을 가지고 임금을 받는데 어떻게 임단협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신 위원장은 공무직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으로 남겨 두기보다 정부가 나서 공무원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편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공무직을 공개채용으로 전환해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안도 내놓았다.

그는 “공무원은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하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민간인인 공무직은 그렇지 않다”면서 “저변에 깔린 갈등 요소가 많은데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봉합하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직 내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취지는 좋았지만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분은 물론 임금, 공무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무직 노동자 대표자들이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 주장하는 역차별 등을 사전에 합의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갈등에 대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원우석 민주노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공무직지부장은 “공무직 공개 채용”을 갈등 해결의 첫 단추로 꼽았다. 현재 공무직은 서울시나 사업소에서 필요에 따라 채용 절차를 밟는다. 이를 공무원 시험처럼 만들어야 채용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선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 지부장은 “공무원과 공무직은 하는 일이 다르다”며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개채용으로 전환한다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서서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그는 “우리가 일을 뺀 것으로 인식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알력 다툼이 있고, 공무직 담당 업무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양측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원 지부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공무원과 공무직이 워크숍 등으로 만나 서로 고충을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며 “오 시장이 여러 방안을 생각해 보고 갈등을 잘 증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
클린 모빌리티
미래기업 리포트

세계 곳곳의 길 위에서 현대모비스의 기술은 성장한다

국내 주행시험장에서뿐만이 아닙니다
현대모비스의 모빌리티 기술은
한국, 미국, 스웨덴, 러시아, 중국의 길 위에서도 테스트 중이죠
나라마다 다른 기후, 노면, 교통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서 자율주행 기술에 정교함을 더해갑니다

모빌리티 세계를 넓히다 현대모비스



스웨덴의
속도를 달리는 기술



러시아를 달리는
로보택시



한국 주행시험장



전 세계를 달리는
자율주행 테스트카



미국



중국



정부, 내연車 산업 등 10만명 재취업 교육 나선다

정부가 22일 저탄소·디지털경제로의 산업구조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처방전을 내놓았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디지털전환·탄소중립에 맞춰 기업의 사업 재편·전환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포괄하는 내년도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으로 30조 원 이상을 편성한다.

직무전환 훈련 기업에 임금·교육비 제공

중소·소상공인 디지털 적응 훈련

정부는 앞으로 산업구조가 저탄소·디지털경제로 전환돼 고탄소·노동집약 산업의 정체와 일자리 감소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분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 판단이다.

실제 자동차 산업의 경우 수소·전기차 신차 판매 비중이 2020년 2.9%에서 2030년 33.3%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종사자의 고용유지 약화 및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

석탄화력발전 분야는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지될 예정이다. 철강·시멘트·정유 등도 아직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탄소저감을 위한 구조전환과 노동전환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 전망된다.

정부는 해당 산업의 신산업으로의 사업 재편·전환을 위해 연구개발(R&D)·자금 융자 지원, 규제완화, 사업재편 전용펀드(500억 원) 신설 등을 추진한다.

특히 내연자동차·석탄화력발전 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산업(미래차·신재생에너지) 분야 직무전환 훈련을 도입한

다. 2025년까지 10만 명의 재직자가 직무전환훈련을 받게 된다. 기업에는 재직자 훈련기간 중 인건비(최저임금×150%+주휴수당), 훈련비 등을 제공한다. 불가피한 인력 구조조정 발생 시 전직훈련 및 채용보조를 통해 신속한 재취업·창업을 유도한다. 해당 산업이 포진해 있는 지역의 미래차 등 대체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한다.

제조업 저숙련 직종, 도소매(유통업), 숙박·음식, 금융 등 오프라인·대면서비스업도 디지털경제 전환에 따라 위기에 직면해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위기 대응 해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 자금, 교육, 정보와 함께 IT 툴(Tool)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스마트화 지원 사업자 선정 시 고용유지·창출 기업을 우대하고 고용지원금 연계도 강화한다. 해당 업종 종사자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적응 훈련 프로그램도 확대·강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년 수익률 51%

“향후 1~2년간 매력적 투자처” 장기 정책으로 관제 한계 깨야

출시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민간 뉴딜펀드가 증시 활황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인덱스(지수)와 정책효과 간 ‘미스매치’의 한계점은 여전히 미국의 ‘FANG’(페이스북·아마존·넷플릭스·구글)과 같이 주요 혁신기술과 산업을 리드하는 장기 투자상품 트렌드로 자리 잡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변화 대응 및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을 제안한 바 있다.

◇뉴딜펀드 상품별 수익률 온도차 = 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 원 이상 펀드 중 수익률 집계 가능한 15개 국내 뉴딜펀드에 최근 1년 사이 1조8118억 원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도 885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 수익률

도 양호하다. 최근 1년 사이 뉴딜펀드 수익률은 51.28%를 기록했고, 연초 이후 수익률은 13.91%로 나타났다.

상품별 온도차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미래에셋TIGERKRX인터넷2차전자K-뉴딜의 올해 수익률은 25.15%로 뉴딜펀드 상품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미래에셋TIGERKRX바이오K-뉴딜은 이 기간-18.12%로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뉴딜펀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으로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출시된 정책펀드다. 이 펀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입하면서 많은 국민이 투자한 상품 중 하나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과거 출시된 펀드들의 성과와 정책모멘텀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향후 1~2년간은 매력적인 투자일 수 있다”면서 “핵심산업으로 이뤄진 지수 구성을 고려하면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민간의 지속적 참여가 관건 = 뉴딜펀드의 미래를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전 정부는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키워

드를 제시하고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2012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관련 사업 등에 투자하는 녹색성장펀드를 만들었지만 상품 수익률은 좋지 않다. 녹색성장펀드 94개 상품의 6개월 평균 수익률은 1.74%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진 통일펀드(8개)의 6개월 평균 수익률은 -2.39%다. 국내 운용사의 한 펀드매니저는 “앞선 정부들의 관계펀드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친 점은 결국 민간의 참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다시 생각해 보면 뉴딜펀드에 민간의 지속적 참여가 이뤄진다면 앞서의 사례와는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 담당자는 “한국판 뉴딜정책이 코로나 위기의 극복책으로 나온 만큼 지금도 끝나지 않은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선제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한국판 뉴딜정책 2.0을 지탱하는 3가지 정책 축, 디지털뉴딜·그린뉴딜·휴먼뉴딜이 효과를 보려면 2025년 이후의 장기 정책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조성진 기자 csjin2002@

내년 한국판 뉴딜 예산 30조 이상 책정

뉴딜펀드 1000억 추가 조성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 수립 이후 달라진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의 3축 구조 아래 총 220조 원 규모의 한층 업그레이드된 뉴딜 2.0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뉴딜 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재정지원 △제도개선 △민간참여 등 3대 핵심과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022년 예산안 편성 시 뉴딜 주요 사업을 적극 심의해 뉴딜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기존 계획(23조2000억 원) 대비

크게 증액된 3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뉴딜 2.0에 맞춰 확대된 입법과제도 연내 입법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정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중 상반기 조기 완판된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1000억 원 추가 조성 출시해 국민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위기 극복, 경기회복 뒷받침 그리고 미래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향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을 국정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2조 설비투자

65개 핵심기술 선정해 지원

정부는 이날 저탄소·디지털경제 산업구조 전환 대응과 더불어 우리 경제를 이끌 미래 성장동력 지원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앞서 2022년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확대는 물론 R&D 및 시설투자상 세제지원을 별도 트랙으로 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R&D 비용을 최대 50%까지 공제해준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가 적용된다. 시설투자 때는 대기업 10%, 중견기업 12%, 중소기업 20% 등으로 세액을 공제해준다. 이익원 기재부 1차관은 “기업들이 세제지원 대상 기술이 무엇인지 예측 가능성을 갖고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선정(안)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혜숙(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12일 대전시 유성구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해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에서 65개 핵심기술을 선정해 이들 기술에 대해 2023년까지 2조 원 이상의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이 될 65개 핵심기술은 내주 발표하는 세부개정안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17만개 기업·9만명 참여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뉴딜 1년 성과 정부 민간혁신 촉진 입법 추진 5G·메타버스·클라우드 육성

작년 7월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 이후 10.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디지털 뉴딜이 다양한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17만여 개 기업이 참여해 데이터 시장이 성장하고 9만여 인력 참여로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고용위기 완화를 도왔다. 또 220만여 명의 국민이 다양한 디지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49조 원을 투자하는 디지털 뉴딜 2.0을 통해 메타버스,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초연결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성과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와 향후 추진될 디지털 뉴

딜 2.0의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넘어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범부처 차원의 국가 혁신 프로젝트다.

지난 1년간 정부는 데이터 댐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의 혁신을 촉진했다.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할 34개 정책방안을 발표하는 등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또 ‘국가지식정보법(디지털집현전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디지털 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미래입법 과제를 완료했다.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73건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디지털 전문계약제도를 도입해 11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계약도 체결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49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디지털 뉴딜 2.0을 통해 그간의 성

과를 국토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미래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데이터 댐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민간 활용을 촉진하며 5G 특화망 구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주파수 공급 등을 연내 추진한다. 정밀의료 SW의 사회 확산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올해 중 ‘(가칭)정밀의료 SW 선도계획’을 마련한다. 또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도 구체화해 추진한다. 이 밖에 하반기 중 디지털 트윈 활용기반 구축과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포함한 전략을 발표한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원천기술, 6G 이동통신 등 향후 디지털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기술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조남호 기자 spdran@

집값·주가 급등에 작년 가구당 순자산 11% 늘었다

한은·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

집값·주가 폭등에 지난해 가구당 순자산이 전년보다 1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22일 발표한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에서 지난해 말 국민순자산이 1경7722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93조9000억 원(6.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9.2배 수준이다. 비금융자산이 1경7215조2000억 원으로 1186조3000억 원(7.4%) 늘었으나, 순금융자산은 507조1000억 원으로 92조4000억 원(15.4%) 감소했다.

가구당 순자산은 5억1220만 원으로 전년(4억6297만 원)보다 4923만 원(10.6%)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사업·근로소득과 소비지출이 쪼그라들었지만, 자산·신용 여력이 있는 가구들은 저금리를 등에 업은 투자 광풍에 유례 없는 호황을 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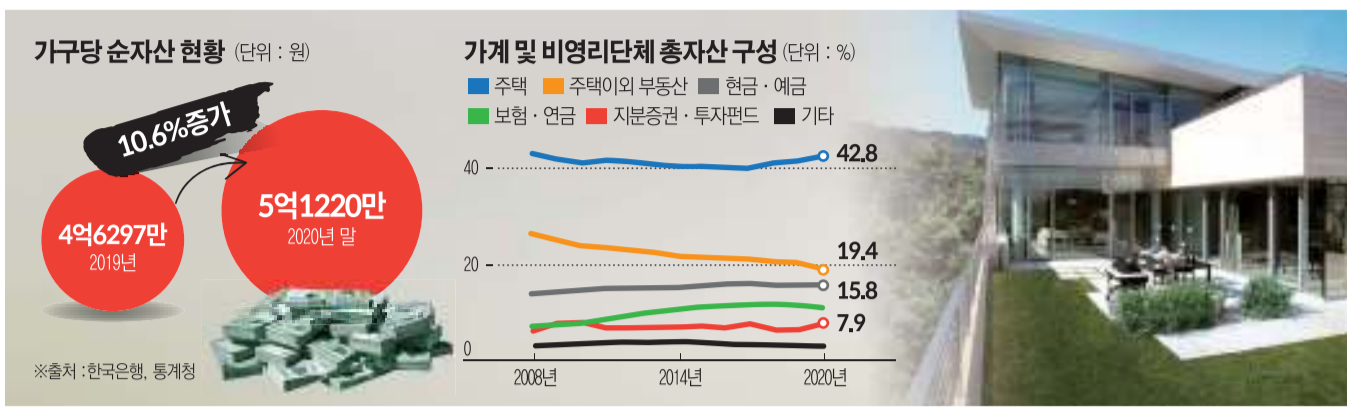
① 집·땅값 급등에 건설·토지자산 증가

총 국민순자산은 6.6% 늘어 집 4.9%·토지자산 17.3% ↑
가계 등 금융순자산 382조 쯤
가구 순자산 5억, 주택이 43%

지난해 국민순자산 변동의 주된 요인은 집값·주가 상승이다.

비금융자산 중 생산자산에선 건설자산이, 비생산자산에선 토지자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건설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용건물은 전년보다 4.9% 증가했다. 토지자산은 주거용건물부속토지(17.3%)가 급증하며 GDP 대비 배율이 5.0배까지 치솟았다. 주거용건물부속토지는 전체 토지자산의 40.4%를 차지한다. 토지자산의 GDP 대비 배율은 2017년 4.2배에서 2018년 4.3배, 2019년 4.6배, 지난해 5.0배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집값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명목보유 순의 변동은 국민순자산 증가율을 82.3% 포인트(P) 견인했다. 비금융자산 순취득



(19.5%P), 금융자산 순취득(7.7%P)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큰 기여도이다. 비금융자산 증가분의 61.3%는 가계·비영리단체에 귀속됐다. 전체 비금융자산과 토지자산에서 가계·비영리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6.1%(7938조 원), 60.0%(5810조 8000억 원)이다.

주가 급등도 가계·비영리단체의 금융순자산 증가로 이어졌다. 금융순자산은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값이다. 비금융법인에선 주가 상승으로 자본금(금융부채)이 늘어 금융순자산이 '마이너스(-564조 5000억 원)'를 기록했지만, 가계·비영리

단체에선 금융순자산이 382조6000억 원 늘었다. 금융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이보다 큰 폭으로 지분증권·투자펀드, 예금자산 등이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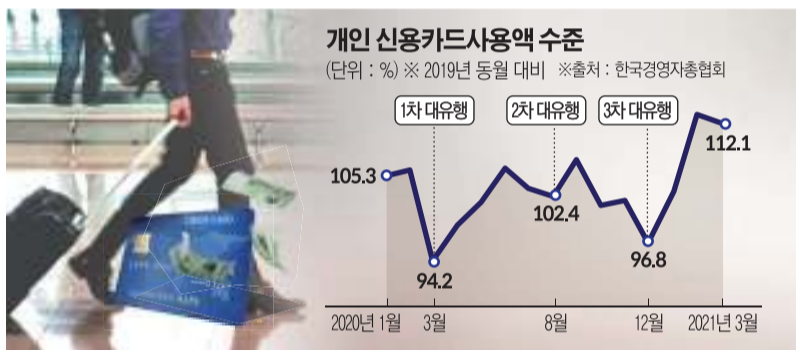
② 가구당 순자산 프랑스·일본과 비슷

가구당 순자산은 5억1220만 원으로 집계됐다. 시장환율 기준으로는 43만4000달러, 2019년 기준 프랑스(46만8000달러), 일본(47만6000달러)과 유사한 수준이다.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으로는 59만4000달러로 2019년 기준 프랑스(57만2000달러), 일본(50만 달러)보다 높고, 캐나다(60만6000달러)보다 다소

낮았다. 가계·비영리단체 총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42.8%)은 압도적이다. 이어 주택 외 부동산, 현금·예금, 지분증권·투자펀드 순이다. 지분증권·투자펀드는 2019년 총자산 대비 비중이 6.4%였지만, 1년 새 7.9%로 1.5%P 확대됐다.

단, 국민대차대조표상 가구당 순자산은 실제 가구당 순자산과 차이가 있다. 가계 순자산이 아닌 가계와 비영리법인 순자산 합산값을 가구 수로 나눈 값이기 때문이다. 이 지표에선 가계 부문의 순자산을 따로 추계하지 않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여행·교통 카드사용액 '반토막' 소비 급감에 고용도 '동반감소'

전자상거래 사용액 크게 늘어
대면서비스 업종 지원책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행, 교육, 숙박·음식 품목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용액이 급감하면서 이들 업종의 고용도 동반 감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2일 발표한 '개인 신용카드 데이터로 분석한 품목별 소비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지난해 연간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550조 원)은 2019년(539조 원) 대비 102.1% 수준으로 유사했으나, 올해 3월(49조 9000억 원)에는 2019년 3월(44조 5000억 원) 대비 112.1% 수준까지 상승했다.

다만, 올해 3월 실제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코로나19가 없었을 경우(과거의 추세대로 신용카드사용액이 늘어난 경우)를 가정한 기대신용카드사용액(52조3000억 원)에 비해선 95.3%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비품목별 증감 격차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와 자동차 품목의 지난해 카드사용액은 2019년 대비 각각 124.5%, 121.0% 수준으로 오히려 크게 증가했고, 올해 3월에도 2019년 3월 대비 각각 148.3%, 120.6% 수준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여행, 교육, 숙박음식 품목

의 지난해 카드사용액은 2019년 대비 47.8~85.4% 수준으로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여행·교통이 47.8%, 교육이 83.2%에 머물렀다.

올해 3월에도 2019년 3월 대비 52.5~88.1% 수준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행·교통이 52.5%, 숙박·음식이 84.5%에 그쳤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용카드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그리고 예술·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에서는 고용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12월 이후에는 소비가 다시 증가하면서 해당 업종의 고용도 일부 회복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2021년 개인 신용카드 전체사용액은 2019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하겠지만, 일부 업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특히 품목별 소비증감의 격차가 과거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비·산업구조의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 총소비가 회복되더라도 대면서비스업 관련 소비와 고용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온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며 "소비 회복이 경기 활성화,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어려운 업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오로나민 C DRINK

다섯가지 비타민과 아미노산 탄산으로
순식간에 생기 충전

비타민 C 220mg
용성 비타민P
비타민 B2
비타민 B3
비타민 B6

부드럽고 달콤한 치약산 사탕 맛
레몬 11개분(300g 기준) 비타민 C
비타민 B2, B6
아미노산 함유
인공색소, 보존료 무첨가
비타민 보호 감색병

생기발랄 탄산드링크!
오로나민 C DRINK

빠른 고령화·국가채무 증가가 한국 경제에 부담

피치, 한국 잠재성장을 하향·신용등급 'AA-' 유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내년 잠재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위험 때문이다.

피치는 22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성장 압박을 우려하며 우리나라의 내년 잠재성장률 전망을 기존 2.5%에서 2.3%로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해 3년 연속으로 0명대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빠른 고령화로 인한 고령층 부양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22.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5배 높아져 전 세계 201개국 중 1위를 기록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듯 2067년엔 고령층 부담 '세계 1위' 흉남기, 피치에 "선제적 총량관리" 하계 된다.

하게 된다.

피치는 재정 전망에 대해선 애초보다 다소 개선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전망을 기존 47.8%에서 47.1%로 0.6%P 하향 조정했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 운용상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피치는 6일 진행한 우리 정부와의 연례 협의에서 중기적 재정준칙 달성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짚었다. 현재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60% 이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 중이다. 흉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피치에 "2025년 준칙 준수를 담보하

기 위해 사전에 선제적 총량 관리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시 약 2조 원 규모의 국가채무를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국제 상환 예산을 삭감하고 재원으로 돌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제상환예산이 삭감된다면 앞으로의 재정건전성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재부는 우려한다.

정부는 국제상환예산이 포함된 기존의 추경안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흉 부총리는 15일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30조 원의 초과세수에 세계잉여금 1조 7000억 원까지 합한 금액 중 2조 원 정도를 국제 상환에 쓰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최소한한 반영한 것"이라며 "이 정도는 반영돼야 국민 설득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해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피치는 "최근 한국은행이 통화긴축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올해 1차례, 내년 2차례 25bp(1bp=0.01%p)씩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세종=정대현 기자 vishalist@

수도권 → 전국 '코로나 확산' 조짐

수도권 확진 '체자릿수'로 소폭 감소 백신 예방접종 속도 더딘 것도 부담 국방부 감사 착수... '면피용' 비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불안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1800명을 넘어서며 일일 최대치를 경신했으나, 여기에는 청해부대 집단 감염(270명)이 포함됐다. 국내발생 중 수도권만 보면, 전날 1075명에서 987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다만 확산세가 진정됐다고 보긴 어렵다. 이날 낮12시 기준 13개 경로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확인됐고, 비수도권은 경남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확진자 감소도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확진자 감소 징후가 명확히 관찰되지 않았고, 비수도권 확진자 유입을 통해 새 경로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남아 있다. 변수는 방역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내느냐이다.

예방접종 속도가 계획보다 더딘 점도 부담이다. 22일 0시 기준 예방접종 인원은 1차 접종자가 13만9214명, 접종 완료자는

2만3593명 늘었다. 인구대비 접종률(1차 이상)은 32.3%로 전날보다 0.3%포인트(P) 올랐다. 그나마 수험생(고교 3학년 생) 등에 대한 접종은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까지 접종 대상 63만1000여 명 중 51.8%에 해당하는 32만7000여 명이 접종을 마쳤다.

국방부는 초유의 방역 실패로 기록된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날부터 조사본부 감사관 등 10명을 투입해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과 대응의 적절성을 규명할 방침이다.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본부, 국군 의무사령부, 국방부 관련 부서 등이 감사 대상이다.

감사에선 보급품 접수 과정에서 합정을 무단 이탈한 장병이 있었는지, 유증상자가 2일 처음 발생했는데 왜 10일이 돼서야 합참에 보고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또 장병들에 대한 백신 미접종, 출항 후 5개월간 백신 접종계획 미수립, 주변국 미협조 등에 대해서도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사를 놓고 일각에선 '면피용'이란 비판도 나온다. 감사의 주체가 국방부이고, 외부기관이나 감염병 전문가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폭염, 폭우, 한파, 먼지 아이들에게 기후변화는 고통입니다

기후변화대응이 힘든 에너지빈곤가정 127만가구



22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달걀을 고르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잠잠해지면서 계란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시장에서 팔리는 계란 제품의 절반 가까이는 가격 오름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꺾이지 않는 '금달걀' 언제까지

AI 살처분·소비증가 여파 '고공행진' 대규모 수입 불구 국산 선호도 영향

달걀 가격이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대규모 수입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살처분 후유증과 소비 증가 여파로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식품유통)에 따르면 특란 30개의 소매가격은 7416원을 기록했다. 달걀 30개 가격은 AI 발생 이후인 올해 2월부터 7000원 중반에 머물고 있다. 특란 30개 기준 평년 가격은 5250원, 지난해 7월 가격은 5163원 수준이다.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AI에 따른 산란계의 살처분이다. 통계청의 '2021년 2분기 가축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2분기 국내 산란계는 6587만1000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05만 마리

(12.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I 이후 산란계 입식도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3개월 미만 산란계는 지난해 6월 1111만2000마리보다 204만 마리 줄어든 907만1000마리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식이 줄어들고 집밥을 많이 먹으면서 수요가 증가한 것도 달걀 공급 부족을 더욱 심화시켰다. 정부가 신선란과 달걀 가공품에 관세를 면제해 주고 2억 개가 넘는 달걀을 수입했지만 국내산 달걀 선호 현상 등으로 성과를 내지도 못했다.

다만 하반기 들어서는 산란계 마릿수가 늘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관측본부가 내놓은 '산란계 관측' 자료에 따르면 9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7385만 마리 수준인 7351만 마리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기본소득’ 정면돌파 이재명 “임기내 전국민 年 100만원”

청년층 100만원 추가 年 200만원 경선연기에 이낙연 추격...전략 바뀔 興서도 “상황 모면 위해 국민현혹”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자신의 강점이자 약점인 대표공약 기본소득을 내세웠다. 여야에서 제기될 비판을 사전에 반박하며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월 50만 원 지급 최종목표를 잡고 2023년부터 25만 원씩 4회 연 100만 원 지급을 임기내에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만 19~29세 청년층의 경우 연 100만 원을 추가지급한다고도 밝혔다. 본격 도입의 경우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론화를 거친 후 탄소세와 토지보유세 등 목적세를 신설해 재원을 마련한 뒤 차차기 정부에서 시행하도록 한다는 향후 계획도 내놨다. 또 공론화를 통해 공약 철회 명분을 쌓는다는 지적에 대해 이 지사는 “전 국민 연 100만 원, 청년층의 경우 200만 원 지급 시행까지는 확실히 가능하고 보장한다”며 “취소하거나 바꾸기 위한 것 아니고 약속하면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고 단호한 입장을 냈다.

이처럼 장기까지 상세한 공약을 내놓은 건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기본소득 공약에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캠프는 애초 무난한 경선 승리를 전제로 본선을 대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ijak@

공약은 아껴 놓는다는 방침이었는데, 경선이 연기되고 이낙연 전 대표의 추적이 거세져 전략을 바꾼 것이다. 이재명 캠프의 한 의원은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많고, 경선 전에도 대략적인 기본소득 구상을 밝혀 왔던 만큼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의원도 “예비경선에서 기본소득이 후퇴했다는 공세가 많았기에 대응할 필요가 컸고 이 지사의 대표적인 핵심공약인 만큼 한 번 밝힐 필요가 있었다”며 “이 전 대표의 경우 신복지 등 공약의 구체성이나 화제성이 부족한 반면 기본소득은 많은 관심을 받기에 정책 경쟁력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제기될 예상 비판에 대해 사전에 반박해 대응하는 의미도 있다. 이 지사는 양극화 해소 역행, 기존복지 축소 우려, 실효성 의문 등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이 지사는 “가난한 사람 골라 지원하면 일을 안 해야 대상이 되니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낙인이 찍히는데 보면 지원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기존복지 축소 우려에 대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복지 지출을 따라가려면 160조~170조 원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 이 중 일부만 기본소득 재원을 쓰고 상당 부분은 기존 복지 확대에 쓸 것”이라고 일축했다. 실효성에 대해선 “첫해에 월 2만 원 정도라고 공격할 것 같은데 4인 가구 연 100만 원은 서민 입장에서 적은 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박용진 민주당 후보는 “(경기 남양주) 지금까지는 이 후보가 공약하겠다는 기본소득이 아닐 뿐 아니라, 장수명 주택은 아예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다른 말을 해서 국민을 현혹한다”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의 점진적 시행으로 선회했다”며 “하도 허점이 많으니까 거기서 발을 빼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민에게 돈을 똑같이 나눠드리는데 걸 성장의 해법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uknow@

이재명·이낙연 저격한 박용진

“청산해야 할 구태정치...이렇게 경선하려면 집에들 가시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사진) 후보가 22일 이재명·이낙연 후보를 겨냥해 “청산해야 할 구태정치 그 자체”라며 날을 세웠다.

박 후보는 전남도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론조사 지지율 수위를 다투는 두 후보를 모두 공격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네거티브에 앞장서는 두 후보로 경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정책 검증하지 않고 했는데 이런 일 격해 지는 걸 보면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지긋지긋 싫어하는 구태 정치가 이런 거 아니냐”며 “자기 얼굴에 침 뱉고 같이 마시는 우물에 독을 푸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런 구태 정치로 경선을 끌고 가실 요량이면 집에들 가시라 하고 싶다”며 “민주당 후보 자격도 없고 대한민국 아들 대통령 자격도 없다”고 강조했다.

‘뉴DJ(김대중)’ 노선을 통한 지방



발전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중도개혁 노선, 실사구시 정책, 국민 눈높이와 상식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격을 달리 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행복 국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2개의 서울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박 후보는 “좌에서든 우에서든 필요한 정책을 얼마든지 가져다 쓰고 열린 자세로 가는 것이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리더”라며 “민주당 경선에 난리가 날 수 있도록 젊은 정치인의 도전과 열정에 전남도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코로나 간호전사들, 공정한 처우 보장해야”

윤석열, 서울시간호사회와 간담회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간호사들을 만나 격려했다.

윤 전 총장은 22일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서울시간호사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본인과 가족의 방역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이상을 묵묵히 국민 생명 안전을 지켜내고 계신 의료인, 특히 간호사분들께 국민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감염 위험 속에서도 하루하루 헌신의 힘을 다하는 간호사분들을 뵈고 나니 정말 간호전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열악한 의료계 현실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그는 “우리나라 간호사 수가 OECD 가입국 대비 절반밖에 안 될 뿐 아니라 이직률도 높아 통상 근무연한이 7~8년으로 짧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사분들의 경우 전문직임에도 엄청난 과로, 짧은 재직기간 등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이들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을 통한 공정한 처우가 필요하며 장기근무 여건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이 22일 박인숙 서울시간호사회장으로부터 대한간호협회가 출간한 도서 '코로나 영웅 대한민국을 간호하다'를 선물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개선, 간호·간병 통합 시스템, 전문간호사 제도, 열악한 의료시스템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구에서 논란이 된 ‘민란’, ‘미친 소리’ 등 실언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은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 질서 있게 잘 해줬던 말이지 제가 민란 말 만들어냈거나 그런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판결과 관련해 이번 대선에도 여론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언급에 대해서 “여론조작은 다양한 방법으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文 만난 셔먼 “중국과 대북정책 심도있게 논의”

“한국은 진정한 美 ‘글로벌 파트너’ 북미대화 재개 노력해달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대북 대화 재개 등 한반도 주변 정세를 논의했다. 셔먼 부장관은 한국에 이어 중국을 찾을 예정이어서 북미 대화가 분개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일본에 이어 한국을 찾은 셔먼 부장관은 이날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을 예방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의 셔먼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셔먼 부장관은 국무부 요직을 두루 거치며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정통한 베테랑 외교관으로 알고 있다.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셔먼 부장관은 “한국에 오랜만에 오니 제2의 고향에 온 느낌”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본격적인 파트너이자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라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5월 정상회담 시 한미가 대화와 외교를 통해 양국의 공동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 공조해 나가기로 한 것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셔먼 부장관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셔먼 부장관은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조기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과 대북 정책 관련 긴밀히 조율된 노력을 함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셔먼 부장관은) 중국 방문 시 중국 측과도 대북 정책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셔먼 부장관이 25~26일 중국을 방문해 텐진에서 왕이 외교 당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 중국 관리들을 만난다고 밝혔다. 이는 애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이다.

정일환 기자 whan@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4주째 ‘헛바퀴’

파열음 커지자 이준석 “안철수와 만날 것”

安 “국힘이 더 적극 협상 임해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4주째 합당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리자 양당 대표가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합당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나겠다고 얘기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이 합당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과 합당 협상 난항을 묻는 말에 “진정성 있는 협상을 위해 안 대표와 제가 만나 큰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당을 향한 압박의 메시지도 건넸다. 그는 “저희는 아주 강력한 합당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야권 지지

자들이 기대하지 않는 협상 결렬이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저희는 협상 의지가 있다는 걸 저희를 지지하는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협상 과정에 있던 상호 간 요구 사항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최근 안 대표가 합당 협상이 지지부진한 원인을 국민의힘에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 의지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던데 상당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양당 간 서로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안 대표는 여전히 합당 협상 결렬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의견이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준상 기자 joooon@

비트코인 폭락 주범 머스크 '테슬라 결제 재개' 만지작

“채굴에 재생에너지 사용 늘어”
결제중단 두 달 만에 반복 시사
비트코인, 바로 3만 달러線 회복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한마디에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이 또 들쭉였다. 비트코인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다가 돌연 입장을 번복해 시장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머스크 CEO가 이번엔 테슬라 차량 구매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다시 허용할 방침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2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가상자산 컨퍼런스인 'B 워드' 행사에 참석해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 채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50% 이상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하고 싶었다"며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커지는 추세이며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다시 결제수단으로 승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결제 허용을 돌연 중단한 지 두 달 만에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그간 가상자산 시장은 머스크의 말이나 행동에 등락을 거듭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월 테슬라가 15억 달러어치(약 1조 7200억 원)를 매입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비트코인을 테슬라 차량 구매 결제 수단으로 허용한다고 밝혀 급등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인 도지코인 가격도 머스크가 '도지 파더(도지아빠)'를 자처하자 폭등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지난 5월 12일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비트코인의 테슬라 구매수단 중단을 발표한 것은 물론 미국 코미디쇼에 출연해서는 '도지코

인은 사기'라고 언급해 두 코인의 폭락세를 부추겼다.

특히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테슬라가 올해 1분기 2억7200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매각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5800만 명 팔로워를 거느린 머스크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차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과 의혹이 거세졌다.

이를 의식한 듯 머스크 CEO는 이날 행사에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며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면 나는 돈을 잃는다. 아마도 내가 가격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리지는 않는다"고 강변했다. 이어 "비싼 가격에 (비트코인을) 파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비트코인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머스크 외에도 대표적인 비트코인 옹호론자인 잭 도시 트위터 CEO와 국내에서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 CEO가 참석했다.

그의 발언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상승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은 장중 10% 넘게 올라 3만2000달러 선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이더리움도 12% 넘게 뛰었다. 도지코인 가격도 최근 24시간 동안 저점인 0.18달러에서 0.21달러까지 치솟았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중 930만 난징 전주인 코로나 검사 중국 장쑤성 난징시의 한 검사소에서 21일 주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 서 기다리고 있다. 난징시는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자 930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안한 코로나19 기원 2차 조사를 거부했다. 난징/AFP연합뉴스

美 어린이 환자 급증, 공화당마저 "백신 맞아라"

확진자 2주 새 2.7배 급증... 서구권, 델타 변이 확산에 다시 방역 고삐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에서 유전자 변형으로 감염력이 더 강해진 변이 바이러스 '델타'가 확산하면서, 정부와 보건 당국이 다시 급방역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 2주 새 신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2.7배 늘어났다.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54% 증가한 3만7055명으로 집계됐다. 2주 전의 평균 확진자 수는 1만3665명이었다.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이 아닌 어린이들까지 감염되고 있다. 미국소아과학회(AAP)는 8-15일 어린이 약 2만 355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달 말 대비 2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등 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당초 백신 접종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태도를 보였던 공화당조차도 태도를 180도 바꿔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 경험했던, 절대 원치 않는 가을의 상황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는 "명백히 나쁜 충고를 하는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는 무시하길 바란다"며 "백신 음모론"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도 다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분위기도 확산 중이다. 로스앤젤레스(LA)에서 매사추세츠주에 이르기까지 곳곳의 지방 관리들이 전국적인 '델타' 변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다시 한번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은 이날 CNBC 방송에 나와 마스크 착용을 독려했다. 유럽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문화 시설이나 음식점 이용 시 백신 접종

증명 등의 제시가 의무화됐다. 전날부터 50인 이상이 모이는 오락·문화시설, 8월부터 음식점과 비행기 등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여부나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는 '헬스패스(health pass)'를 제시해야 한다.

사실상 강제에 가까운 형태로 국민의 백신 접종을 촉진, 감염 확대를 막겠다는 목적이다. 헬스패스를 확인하지 않는 사업자나 격리 의무를 따르지 않는 감염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페인에서는 야간 외출 금지령이 떨어졌다.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주 바르셀로나는 백신 미접종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외출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지난달 말 방역 규제를 완화한 네덜란드도 감염 증가로 인해 나이트클럽 폐쇄를 비롯한 대책 마련에 재차 나섰다. 동유럽 국가들도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방역 조치 강화에 나서는 국가들이 더 늘 어날 전망이다. 변효선 기자 hsbun@

美·獨, 가스관 갈등 풀고 '러 견제' 맞손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할 경우 제재"로 합의

미국과 독일이 천연가스관 사업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했다. 그동안 미국은 가스관 사업을 진행하는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사업에 제동을 걸어 독일과 대립했지만, 이번 합의로 가스관 완공까지 추가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양겔라 메르켈(왼쪽) 독일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독 양국은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노르트스트림-2 사업 완공을 위해 협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764마일(약 1230km) 길이의 천연가스관 건설 작업으로, 사업비만 110억 달러(약 12조6500억 원)에 달한다. 지난달 기준 완공까지 62마일만 남은 상태다.

미국은 가스관 사업이 완공되면 유럽 에너지 부분의 러시아 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 줄곧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후 사업에 가담한 러시아 업체와 최고경영자(CEO)에 제재를 가하기도 했지만, 독일 정부가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미·러 정상회담을 앞둔 5월 미국 정부가 러시아 업체와 CEO에 부과했던 제재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이 사업을 둘러싼 갈등도 완화했고 이번 공동 성명을 통해 모든 문제는 일단락됐다.

미국과 독일은 사업 완공에 협력하는 대신 여러 조건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러시아가 향후 가스관을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무기화하거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면 국가 차원에서 조

처하기로 동의했다. 우크라이나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그린 펀드도 별도로 조성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한다면 러시아의 유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효과적인 조치를 독일에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주 워싱턴D.C.에서 양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발 빠르게 진행됐다. 미 의회는 여야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존 바라소 공화당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새로운 지정학적 무기를 줬다"고 비난했고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러시아가 가스관을 완공하도록 허용한 것은 정부의 실수"라고 지적했다.

미 외교위원회의 스티븐 세스타노비치 선임 연구원은 CNBC방송에 "가스관 사업이 진행될 몇 년 동안 에너지 시장이 바뀌었고 이제 러시아가 석유를 빌미로 유럽을 인질로 잡는 게 더 어려워졌다"며 "러시아가 이번 사업으로 힘을 크게 불리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대영 기자 kodae0@

동남아 공장 '코로나 섯다운' 글로벌 '반도체 대란' 부채질

동남아시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떠오르면서 현지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생산 공장이 물려있는 만큼 수급 대란이 악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지인 동남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에 걸렸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인프라와 저렴한 인건비로 반도체 생산기지로 부상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여파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 시설을 동남아로 옮기기도 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들 지역의 공장 폐쇄가 잇따르고 있다. 기폭이나 코로나발(發) 수요 급증으로 반도체 공급 불안이 가중된 상태에서 또 하나의 악재가 터진 셈이다. JP모건체이스의 아시아 기술·미디어·

통신 연구 공동 책임자인 고콜 하리하란은 "동남아는 스마트폰 및 기타 제품에 사용되는 캐패시터와 레지스터를 포함한 수동 소자(Passive Component)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동남아 국가에서 전 세계 수동소자의 15~20%가 생산된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연일 1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자 네 번째 봉쇄를 선언했다. 공장 가동도 중단됐다. 말레이시아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인 글로벌 반도체 공급업체만 50개에 달한다.

일본의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제조 업체인 타이오가 생산 차질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전자기업 카이메이도 산하 반도체 레지스터 제조업체의 7월 생산능력이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전 세계 전자제품 생산량도 감소할 전망이다. 동남아 국가들이 자동차, 스마트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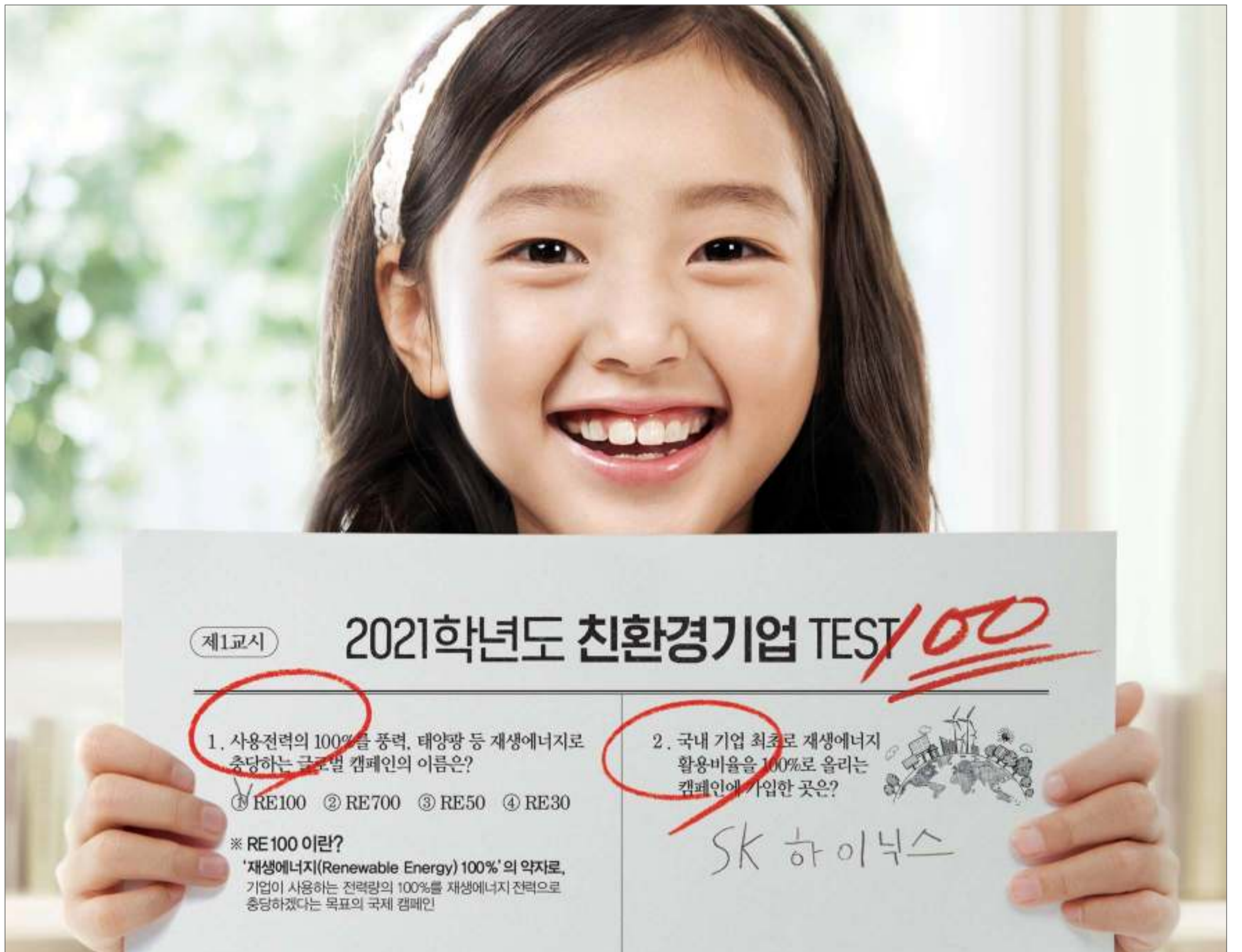


베트남 하노이 거리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산하다. 하노이/EPA연합뉴스

등 전자제품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8일 신규 확진자가 6000명을 넘어선 베트남은 호찌민에 위치한 국가전략산업 단지에 입주한 기업 공장을 봉쇄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곳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미국 인텔, 일본 니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 목적이지만 입주 기업들의 생산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동남아의 코로나 확산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 전망치를 13억4700만대로 하향 조정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RE100] 가입

지구에게 100점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SK하이닉스가 RE100에 참여합니다

사용전력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조달하는 친환경적인 노력으로

반도체 기술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고민을 아끼지 않는

ESG경영 실천 기업이 되겠습니다



We Do Technology
원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휴대폰 철수 LG, 시한부 'LG페이' 사용처 늘렸다

LG페이 서비스 약관에 '인터넷 결제' 추가
(제2조 용어의 정의)

수정 전 "LG페이"란 LG페이 카드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LG전자"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기기"용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수정 후(8월 16일 시행) "LG페이"란 LG페이 카드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LG전자"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기기"용 애플리케이션, **웹 브라우저를 통한 결제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용약관에 '웹 결제 서비스' 추가 서비스 종료 3년 앞두고 이례적 LG "기존 고객 편의성 확대 차원" 일각 "간편결제 플랫폼으로 진화"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는 LG전자가 간편결제 서비스 'LG페이'를 확대한다. LG페이는 3년 뒤 사업 종료 예정인 서비스이지만, 카드사에 서비스 확대를 요청하며 시한부 사업에 매우 이례적으로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LG전자는 기존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향후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어가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LG전자는 이달 초 하나카드, 롯데카드 등 LG페이 제휴 카드사에 웹 결제 방식으로 LG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LG페이 제휴 카드사들은 새롭게 추가된 결제 방식을 약관에 반영하며 다음 달부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예고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통상 약관 변경은 제조사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LG페이 카드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기존에는 모바일 기기용 애플리케이션(앱)에 한정됐으나, 웹 브라우저를 통한 방식까지 확대됐다. 쉽게 말해 그동안 스마트폰 앱 기반의 오프라인 결제와 앱을 통한 온라인 결제 방식을 제공하던 LG페이가 PC와 태블릿 사용자도 폭넓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결제 방식을 추가한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LG페이가 2024년 종료 예정인 서비스라는 것이다. LG전자는 지난 4월 오랫동안 적자를 면치 못하던 모바일(MC) 사업을 7월 31일 자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MC 사업부에서 담당하던 LG페이 역시 종료될 예정이며, 기존 사용자를 위해 최소 3년간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회사 측이 밝힌 바 있다.

종료가 예정된 서비스의 결제 기반을 확장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려는 LG전자의 고객 중심 경영으로 해석된다.

LG전자 관계자는 "사업 철수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 사후 관리 차원에서 LG페이 사용처를 넓힌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LG 스마트폰 고객들을 위한 A/S(애프터서비스) 등 고객 지원을 계속 이어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LG전자는 오는 31일 모바일 사업 공식 종료 이후에도 사후 지원 서비스를 최고기술책임자(CTO) 및 유관 조직으로 이관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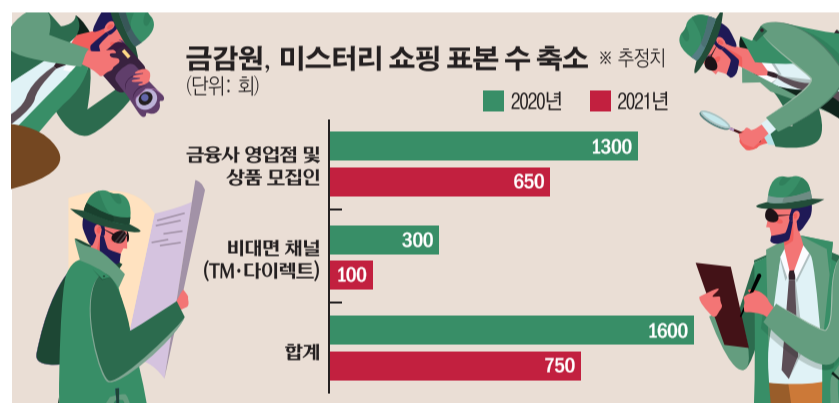
국내의 경우 휴대폰 A/S는 제품의 최종 제조일로부터 최소 4년 지원하며, LG 휴대폰 수리는 LG전자 서비스센터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는 프리미엄 모델은 3년, 일부 보급형 모델은 2년 지원된다.

일각에선 이번 LG페이의 결제 방식 확대를 LG전자의 간편결제 사업 유지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동안 단말기 업체로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와 같이 플랫폼사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송영록 기자 syr@

〈고객으로 가장해 판매 실태 점검〉

금감원 미스터리쇼핑 반토막... 소비자 보호 기조와 배치

표본수 작년 1600회→올해 750회... "예산 증액 요청" 코로나로 계획된 압행 점검 못해 2년 연속 예산 삭감



모든 업권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총괄하게 됐다. 올해는 금융상품분석국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로 영향도 있었지만, 지난해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만 보더라도 미스터리쇼핑의 중요도는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점검 수위를 높여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줄어든 건 소비자보호 기조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미스터리 쇼핑은 전문가 조사 요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상품을 구매하면서 투자자 보호 방안 준수, 적합성 보고서 제공, 유의 상품 권유 시 확인 의무 등의 항목을 평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금융상품 판매와 금융거래자 보호 관련 정책수립 및 영향평가, 금융사의 관련 법규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 금융거래자 보호 관련 쟁점 파악 등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 결과를 각 금융사에 통보하고 판매 관행 자체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한다. 미스터리 쇼핑 결과는 금감원의 검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해 금감원은 미흡한 점수를 받은 금융사를 부문검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소비자 경보 발령 및 현장검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지연 기자 sjy@

KB금융 상반기 2.5조 순익 지주 출범 후 '첫 중간배당'



KB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핵심이익의 성장에 힘입어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KB금융은 22일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 2조 4926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핵심이익이 견조하게 성장한 가운데, 인수 합병(M&A)을 통한 비유기적 성장으로 강화된 이익안정성과 지난해 2분기 추가 대손충당금 전입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0% 증가했다.

상반기 총영업이익은 7조 21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9% 늘어났다. 같은 기간 순이자이익은 5조 4011억 원으로 15.3% 증가했다. 은행의 견조한 여신성과 과 카드 등 비은행 계열사의 이자이익 기여가 확대된 영향이다. 상반기 그룹과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각각 1.82%, 1.56%를 기록했다.

2분기 기준 당기순이익은 1조 204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7% 늘어났다.

주요 계열사 실적은 KB국민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 42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했으며, KB증권의 당기순이익은 37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6억 원 증가하며 사상 최대 반기 실적을 시현했다. KB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은 1429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KB국민카드의 당기순이익은 2528억 원으로 54.3% 증가했다. 푸르덴셜생명의 당기순이익은 1924억 원을 기록했다.

한편, KB금융은 금융지주 출범 이후 첫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6월말을 기준으로 주당 750원의 중간배당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금융감독원의 올해 미스터리쇼핑 총 표본 수가 작년보다 반 토막 났다.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 계획했던 대면 채널 미스터리쇼핑을 다 채우지 못했고, 이로 인해 예산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커진 소비자 보호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미스터리쇼핑의 총 표본 수는 750회로 정해졌다. 검사 대상은 △전국의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영업점 약 650회 △비대면 채널(텔레마케팅채널, 다이렉트채널) 약 100회로 계획됐다.

이는 작년에 비해 크게 준 규모다. 지난해는 총 표본 수 추정치를 1600회로 계획했고, △전국의 은행·증권사 등 영업점 약 800회 △전국의 보험상품 모집인 등 약 500회 △비대면채널(텔레마케팅채널, 다이렉트채널) 약 300회로 잡았다. 지난해 대비 표본 수는 반 이상 줄어들었고, 전국의 보험상품 모집인은 아

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금감원이 미스터리쇼핑 규모를 줄인 건 예산도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코로나 여파로 대면 채널 점검을 계획대로 못했고, 계획만큼 예산을 쓰지 못하니 올해 예산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올해 예산심사 때도 코로나 여파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내년 예산은 증액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예산은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지난 2018년 금융위는 금감원 예산이 방만하다는 이유로 2년 연속 삭감한 바 있다. 금감원이 뼈다귀 예산을 측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이는 금감원의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미스터리쇼핑 역할을 확대했다. 그동안 미스터리쇼핑은 업권별 검사국이나 감독국이 조사를 맡았는데 지난해 소비자보호처의 금융상품판매감독국이 신설되면서

사업자 관련 코인 발행·거래 못해 9월말 '특금법' 시행전 정리해야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신고 절차를 완료한 뒤 '셀프상장'에 대한 점검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최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서면 답변자료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거래소 임직원, 특수관계인 간 거래 규모를 파악하고 있느냐'란 질의에 대해 "향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마무리되면 검사·감독 과정을 통해 법령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16일 거래소의 '셀프상장'을 막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해당 법은 거래소가 본인이나 상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은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그동안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코인을 통해 시세조작 등의 위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던 데 따른 것이다. 특금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사실상 무법지대에 놓인 가상자산 사업자는 향후 신고 절차를 완료한 뒤에는 이같은 위법행위

에 대한 점검도 법에 근거해 받게 된다. 신고 예정 중인 거래소라면 셀프상장된 코인 정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 예정일인 9월 24일까지 해당 시행령 개정안의 개정을 마치고 공포 날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특금법 시행 이후에 나타난 '셀프상장' 등의 행위에 대해선 신고 절차를 한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감독 및 점검을 받는다.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는 그 자체로 불법 거래소로 분류돼 FIU가 아니라 사법기관의 통제를 받게 된다.

다만 사전에 셀프상장을 통해 이익을 거둔 거래소에 대한 불법성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적 미비로 인해 현재 FIU 측이 거래소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시점에서 거래소가 셀프로 상장한 코인의 개수와 규모'를 묻는 윤 의원 질의에 대해 금융위는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및 이의 거래 규모 등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제 범위 안으로 품은 뒤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관리·감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FIU 관계자는 "향후 신고가 완료된 거래소에 대해 정보를 요청할 근거가 생기면 그때 수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소 '셀프상장' 고강도 점검

2분기 A+ 받은 현대차·기아, 하반기 '안개 주의보'

현대차, 분기 매출 첫 30兆 돌파
기아, 신차 효과 영업이익률 8.1%
양사 판매 증가세 업계 웃돌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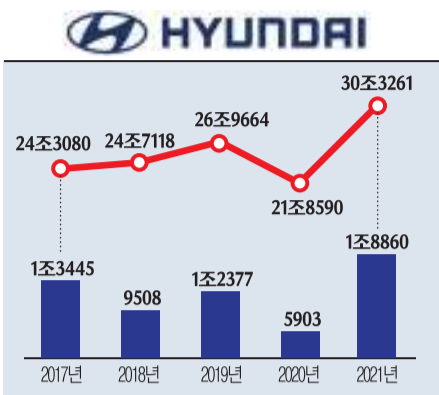
반도체 부족·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 우려 여전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2분기에 시장 예상대로 호실적을 기록했다.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40% 수준의 회복세를 보였지만 양사의 성장세는 45% 안팎에 달했다.

다만 하반기에도 지속할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 환율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변수로 남아있다.

22일 현대차는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을 열고 2분기 △매출 30조3261억 원 △영업이익 1조8860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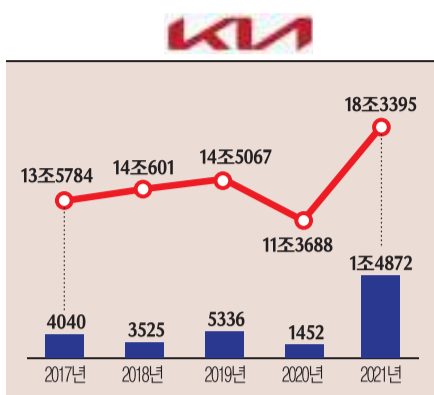
현대차·기아 2분기 실적 (단위: 억 원)



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38.7%, 영업이익은 219.5% 증가했다.

현대차의 분기 매출이 30조 원을 넘어선 것은 2010년 새로운 회계기준(IFRS)이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영업이익 역시 2014년 2분기(2조872억 원) 이후 7년 만의 최고치. 영업이익률도 6.2%에 달했다.

○ 매출 ■ 영업이익 ※ 출처: 각사



현대차 관계자는 "판매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저 효과와 판매 회복세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이 증가했다"라며 "영업이익은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와 비우호적인 환율 영향 속에서 판매 물량 증가와 수익성 중심의 판매로 회복세를 이어갔다"라고 밝혔다.

2분기 글로벌 차 판매는 2021만7000대로

작년 동기(1436만대) 대비 40.8% 증가했다. 현대차 판매(103만1349대) 증가세는 업계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은 46.5%에 달했다. 이날 기아 역시 2분기 깜짝 실적을 공개했다. 2분기 기아 판매는 75만4117대로 전년(51만6050대) 대비 46.1% 증가했다. 매출은 18조3395억 원(+61.3%), 영업이익이 1조4872억 원(+924.5%)을 기록했다.

기아 관계자는 "반도체 부족에 따른 일부 생산 차질, 비우호적인 환율 환경에 속에서 코로나19 영향 완화에 따른 세계 시장 수요 급증과 고수익 신차 판매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확대했다"라고 밝혔다.

국내 판매는 전년 대비 8.2% 감소한 14만8309대에 그쳤지만, 해외 판매가 71% 늘어 60만5808대에 달했다. 글로벌 전체 판매는 전년 대비 46.1% 증가한 75만4117대를 기록했다.

제품 다양화와 신차 효과 덕에 영업이익 상승효과를 얻었다. 2분기 영업이익률은

8.1%를 기록했다. 2011년 연간 영업이익률(8.2%) 이래 최고치다.

하지만 하반기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도체 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불안 △코로나19 재확산 등 대외적인 경영 여건 탓에 정상화에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두 회사의 공통된 분석이다.

기아는 올해 하반기 경영환경과 관련해 전년 코로나19 대응행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일부 시장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 및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도 "주요 국가의 경기 개선과 코로나19로 인한 기저 효과로 수요 회복은 지속하겠지만, 반도체 공급 정상화 지연과 원자재 가격 상승, 3분기 영업일수 감소에 따른 재고 부족 등의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낸드 키우는 SK하이닉스, 청주 M15 시설 투자 '착착'

신규부서 신설·장비 세트업 추진
싱가포르, 인텔 사업부 인수 승인

올해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힘쓰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청주 M15 시설 투자를 이어가며 낸드 점유율 확대에 주력한다. M15는 3D 낸드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SK하이닉스의 낸드 거점기지다.

22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SK하이닉스에서 최근 청주 M15 ph2(페이지2) 인프라 투자를 위한 신규 부서가 신설됐다. 2018년 10월 M15 준공 이후 약 3년 만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내년 말까지 ph2를 위한 설비 투자 및 장비 세트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통상 반도체 공장은 건물 완성 이후 잔여 공간에 대한 클린룸 공사, 장비 반입 시점을 유동적으로 정한다. 이 과정에서 보통 수년이 소요된다. 앞서 SK하이닉스 측은 M15에 순차적으로 20조 원가량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M15 준공 당시부터 예정된 시설과 장비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투자 시점이 당겨지거나 미뤄진 사실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M15는 낸드 주력 제품인 3차원(D) 제품을 중점적으로 생산한다. 준공 당시 72단 3D 낸드플래시를 시작으로, 96단, 128단을 거쳐 현재 업계 최고층인 176단 4D 낸드 제품의 본격적인 양산도 앞두고 있다.

업계에선 올해 내 SK하이닉스가 낸드 사업에서 3D 낸드 등 첨단제품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내다본다. 적층 단수가 높을수록 더 낮은 가격으로 고용량의 낸드를 생산해 원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 글로벌 낸드 업체들 사이에선 128단 이상 적층기술 경쟁이 뜨거운 상황이다.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도 9부 승인을 받았다. 전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가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메모리 사업 인수를 무조건 부로 승인하면서, 심사대상 8개 지역(미국·EU·한국·대만·브라질·영국·싱가포르·중국) 중 총 7곳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제 남은 곳은 중국 1곳뿐이다. 올해 1분기 기준 SK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은 12%대로 4위다. 1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인텔과 인수가 완료되면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시장 2위로 올라서게 된다.

노우리 기자 we1228@



뉴욕 중심에 '삼성 갤럭시 언팩' 광고

삼성전자가 다음 달 '삼성 갤럭시 언팩 2021(Samsung Galaxy Unpacked 2021: Get ready to unfold)'을 앞두고 전 세계 주요 랜드마크에서 옥외광고를 진행한다. 행사 공식 초대장을 발표한 21일부터 미국 뉴욕타임스 스퀘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서커스 등을 비롯한 랜드마크에서 언팩행사를 광고하는 삼성전자의 옥외 게시물이 공개됐다. "단지 '괜찮은 것'으로 충분할까? (Is 'good' 'good enough?')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번 광고는 초대장과 동일한 '당신의 세상을 펼칠 준비를 하라(Get ready to unfold)'라는 메시지를 연이어 보여준다. '삼성 갤럭시 언팩 2021'은 한국 시간으로 내달 11일 오후 11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SK이노 노사, 단협 3주 만에 합의

역대 최단기간 타결·투표율 최대

SK이노베이션 노사가 '2021년 단체협약'을 마무리했다.

22일 SK이노베이션은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본사와 울산사업장을 화상으로 연결, 올해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

올해 단체협상은 '역대 최단기간 타결'이라는 기록을 다시 썼다. 지난달 16일 울산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을 위한 노사 상견례 이후 약 3주 만에 잠정 합의안을 끌어냈다.

잠정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율과 찬성률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합원 투표율이 95.8%에 달했고, 잠정안에 대한 찬성률 역시 88.5%를 기록했다.

이밖에 사 측은 노조가 제시한 △휴가제 개선 △자녀 양육 및 학자금 지원 현실화 △생활 안정 지원 등에도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양측은 '공동 기획단'을 꾸려 근무형태 개선에 나선다. 현재 '4조 3교대' 근무 체제를 '4조 2교대'로 전환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를 위한 검토를 추진한다. 이다솜 수습기자 citizen@

현대중 노사, 조선 발전 선포

최근 2년 치 단체교섭을 타결한 현대중공업 노사가 새 출발을 다짐했다.

현대중공업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2일 울산 본사 본관에서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 선언' 선포식을 하고, 조선

산업 발전과 회사 재도약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선언했다. 이번 노사 선언은 장기간의 침체에 빠져있던 조선업이 최근 수출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모처럼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사가 갈등이 아닌 신뢰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주혜 기자 winjh@

포스코, 사상 첫 영업이익 2兆 철강 중심 하반기도 '청신호'

조선 등 전방사업 반등 영향
작년보다 1212% 증가 '최대'

포스코가 올해 2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했던 조선, 건설 등 전방사업이 반등한 데 따른 영향이다.

포스코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철강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등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키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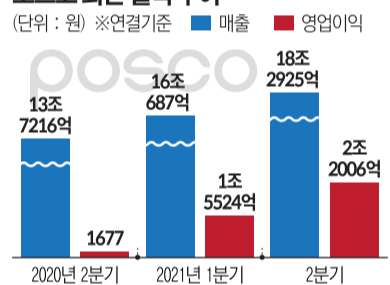
포스코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2조2006억 원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포스코가 기업설명회를 통해 분기 실적을 공개한 2006년 이래 분기 최대 실적이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1212% 증가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 오른 18조2925억 원을 기록했다.

별도기준으로는 매출 9조2800억 원, 영업이익 1조6100억 원을 달성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흑자로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매출은 58% 올랐다.

포스코 실적 호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약간 움츠러들면서 전방사업이 반등하자 철강 수요가 급증한 덕이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글로벌 조강(숯물) 생산량은 8억

〈분기 기준〉 포스코 최근 실적 추이 (단위: 억 원) ※연결기준



3750만 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5% 상승했다.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은 포스코 실적에 큰 타격을 미치지 않았다. 철광석 가격에 비해 제품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다.

비철강 사업도 포스코 실적에 이바지했다. 올해 2분기 포스코의 비철강 부문 영업이익은 약 5906억 원이다. 작년(2762억 원)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올랐다.

한편 포스코는 2030년까지 글로벌 조강 생산능력 6000만 톤 구축을 위해 107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컨퍼런스콜에서 "하반기 원료가격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철강 수요의 타이트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탄소중립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중산 계획이 없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북미에서의 전기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기아 'The 2022 셀토스' 출시

기아가 연식 변경 모델 'The 2022 셀토스'〈사진〉를 22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새로운 기아 엠블럼을 적용한 The 2022 셀토스는 1열 USB 단자를 기본화하고, 기존에는 상위 트림에서만 적용할 수 있던 고객 선호 사양을 하위 트림까지 확대 운영한 점이 특징이다. 기아는 기본 트림인 트랜디에서 LED 헤드램프·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루프랙 등으로 구성



된 '스타일' 패키지를 운영해 고객의 디자인 선택권을 확대했다.

판매가격은 1.6 가솔린 터보가 1944만~2543만 원, 1.6 디젤의 경우 2151만~2750만 원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

외연 확장·헬멧 특허, 규제 뚫고 달리는 PM업계

쌍쌍, 전기자전거 9월 론칭
스윙, 개인 키보드 직접 판매
하이킥, 헬멧 케이스 특허
업계 “기술로 모빌리티 혁신”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불법 주정차 견인으로 주춤했던 전동 키보드 등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PM) 업계가 새로운 생존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탄탄한 기술력을 기반 삼아 외연을 확장하며 서비스를 늘리는 한편, 규제를 돌파하는 기업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공유 PM 서비스 ‘쌍쌍’은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공유 전기자전거 서비스를 론칭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서비스되는 자전거는 총 200대로 9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서비스 지역은 차차 늘어날 전망이다.

쌍쌍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기자전거를 활용해 서비스에 나선다. 앞서 쌍쌍은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혁신동력프로젝트 사업’ 중 스마트 모빌리티 연구개발(R&D)에 참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쌍쌍의 전기자전거에는 자체 개발한 탈착 가능 배터리가 사용된다. 또한, 자전거 전반을 쌍쌍이 직접 설계하기도 했다.

쌍쌍 측은 전기자전거가 ‘중요한 이정표’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이 익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고객 연령대를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이동 거리 제약도



공유 키보드 업체 쌍쌍의 전기자전거(왼쪽)와 하이킥의 ‘스마트 헬멧 케이스’ 부착 예상 사진.

전동키보드 대비 적어 효율적이다.

김상훈 쌍쌍 대표는 “이제 막 다음 단계를 밟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쌍쌍은 1인 중·단거리 이동을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인 전동 키보드가 PM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양한 PM을 선보이며 생활 이동의 혁신을 보여줄 것”이란 포부도 밝혔다.

전동 키보드를 공유하는 대신 소유하는 방법을 일찌감치 모색한 기업도 있다. 전동 키보드 공유 서비스 기업 스윙은 지난 4월 개인 키보드 판매 서비스 ‘마이 스윙’을 출시했다. 공유 키보드 서비스를 운영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직접 판매에 나선 것이다.

스윙은 S9 스페셜 에디션을 먼저 판매했다. 스윙 이용권과 결합해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연동해 키보드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따라서 도난이나 분실을 방지할 수 있고, 구매자가 지정한 사람들에 키보드를 빌려줄 수도 있다. 소모품을 상시 교체 받을 수 있고 전문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받을 수 있는 ‘스윙 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달에는 어린이를 위한 ‘마이크로 키보드’ 상품을 출시하며 제품군을 정비했다. 어린이 전용 키보드를 통해 안전한 PM 문화를 홍보하는 것이 골자다. 스윙은



마이크로 키보드와 스윙 이용권을 결합하며 새로운 마케팅 방식도 취하고 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규제를 정면돌파한 기업도 있다. 공유 키보드 ‘하이킥’이다. 하이킥을 운영하는 오렌지랩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공유 키보드 스마트 헬멧 케이스’ 관련 특허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유 키보드에 부착한 헬멧 케이스를 바탕으로 헬멧을 관리할 수 있다. 비나 황사 등 외부 환경이 변해도 위생적인 헬멧을 제공할 수 있으며, UV 소독 기능도 탑재했다. 회사 측은 개인과 기업, 관공서 등에서 헬멧 케이스를 탑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조치에 하이킥은 지난달부터 서비스 중인 공유 전동 키보드에 앱으로 제어 가능한 스마트 헬멧을 부착한 상태다. 부착 직후 일주일 동안 분실·파손 건수는 0건이었던 반면, 하루 매출은 20%가량 늘었던 바 있다. 이다원 기자 leedw@

라이브커머스·박람회로
소상공인 매출 끌어올려
크리에이터 협업 “좋아요”

“주꾸미가 살아 통신통살합니다. 껏, 무쌈에 싸서 이렇게 드셔보세요. 밥 위에 얹어서 덮밥으로 먹어도 좋아요. 이 로제 닭갈비 국물에는 밥을 넣어 리조또로 먹어도 맛있겠네요. 소상공인분들, 모두 힘내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유명 크리에이터 입짧은햇님이 ‘대한민국 동행 세일’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며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어디까지 팔아봤니 시즌 3’로 진행된 라이브커머스에서는 꿈틀협동조합의 로제 닭갈비, 육두레협동조합의 한우불고기 등이 소개됐다. 약 1만4000명 시청, 주문량 2만3000건, 수익은 2억50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50% 상승, 주문 건수 92%, 시청자 수 22% 증가한 수치다.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로제 닭갈비를 샀다는 한 20대 여대생은 “평소 즐겨보던 크리에이터가 라이브방송을 한다기에 보게 되었는데,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에 바로 구매했다”고 말했다.

꿈틀협동조합한정우 이사장은 “준비한 모든 수량이 완판될 만큼 뜨거운 반응을 얻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꿈틀협동조합은 발달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치료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치료실을 운영하면서 발달 장애 아동들에게 영역별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꿈틀식품’이라는 사업 확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했다. 판로지원사업에 참여해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위메프 외에도 11번가, 티몬 등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육두레협동조합이재근 이사장도 “지난해 닭갈비와 떡갈비로 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하며 브랜드 홍보에 큰 도움이 됐는데, 이번에도 큰 성과를 얻어 감사한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협동조합 판로지원사업’을 통해 유통플랫폼, 박람회 등 온·오프라인으로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판로 개척을 돕고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메가쇼 1에서는 현장 매출이 전년 대비 34.8% 증가한 2억8800만 원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시국에도 긍정적인 매출 증가를 이뤄냈다.

악세사리 전문 ‘진핸드메이드’ 이사장은 “이번 박람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어 마치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네이버 2분기 실적 역대최대... 신사업 매출 비중 첫 50%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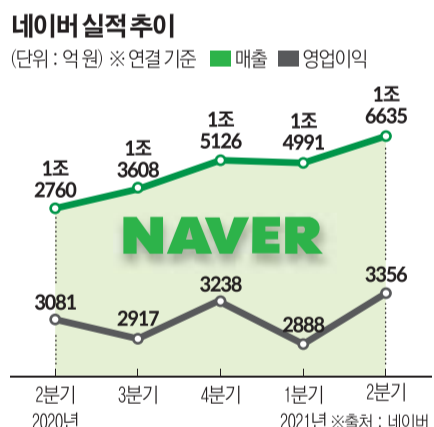
영업익 3356억 전년비 8.9% ↑
검색 매출 48% 쑥, 커머스 호조
“하반기 e커머스·조직문화 강화”

네이버가 2분기 주요 사업부문의 실적이 상승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커머스와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등 4개 신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의 50%를 넘어서며 사업 다각화에도 힘을 얻고 있다.

네이버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3356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6635억 원으로 30.4% 성장했다.

4개 신사업, 전체 매출 50% 차지 = 네이버의 매출을 주요 사업부문으로 살펴보면 서치플랫폼 8260억 원, 커머스 3653억 원, 핀테크 2326억 원, 콘텐츠 1448억 원, 클라우드 949억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서치플랫폼 부문은 성장형 광고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디스플레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



다. 커머스는 브랜드스토어 확대와 SME의 성장이 매출 증가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부문은 네이버페이 결제액이 9조 1000억 원을 기록하며 동반 성장했다. 콘텐츠 부문은 웹툰과 스노우가 성장하며 몸집을 불렸다. 2분기에 통합 출범한 왓패드·웹툰 스튜디오는 하반기 글로벌 IP 사업을 이끌 전망이다.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매출이 증가했다.

한성숙 대표는 이날 진행한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하반기에는 1000억 원 펀드 조성을 통해 왓패드 웹툰이 흥행

성을 검증한 IP의 영상화, 출판화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IP 사업의 수익성도 개선하며 네이버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분기에 새로 출시된 후불결제 서비스는 초기 베타 테스트에서 대상 구매자들로부터 양호한 결과를 확인했고, 하반기 베타 테스트 구매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네이버 파이낸셜의 신용평가모델을 정교화하고, 서비스를 안정화해 내년에는 더 많은 네이버페이 유저들이 편리함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본격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신사업·조직문화 개선 주력 = 네이버는 하반기에도 신사업 성장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CJ대한통운, 이마트와 손잡고 e커머스 시장 강화에 나섰다. 우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중심으로 운영해온 곤지암, 군포, 용인 풀필먼트 센터의 10배 수준인 20만 평 규모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익일배송 서비스를 내년부터는 46만 스마트스토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요구가 많은 신선식품 등의 당일 배송과 새벽 배

송도 검토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마트와는 지난 3월 지분 교환 후 첫 협업으로 ‘지역 명물 챌린지’ 프로젝트를 이번 달에 출시했다”며 “4분기에는 네이버 내 이마트 장보기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온·오프라인 커머스 시너지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얼룩진 조직문화 개선에도 나선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5월 본사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들에게는 확인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각 징계 결정을 내렸다. 최인혁 COO는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당 직무에서 사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새로운 조직 체계와 리더십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 대표는 “최근 건강함 조직문화 조성을 비롯해 미흡한 부분들이 지적된 데에 대해서는 하반기 최우선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1조 가치’ 유니콘기업 15개로... 직방·두나무·마켓컬리 추가

뉴욕증시 상장 쿠팡 제외

국내 유니콘 기업 수가 15개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유니콘 기업 수는 역대 최대인 15개사다. 이들은 국제 비교 시 주로 인용되는 ‘씨비인사이트(CB Insights)’ 등재 11개사와 중

기부가 투자업계와 국내외 언론 등을 통해 추가 파악한 4개사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작년 말 기준 13개 유니콘 기업 중 직방, 두나무, 마켓컬리 등 3개사가 신규 추가됐다. 각각 프로테크(Proptech),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 분야 등에서 빠르게 성장해 각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자리 잡은 기업들이다. 반면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주로 제외됐다. 유니콘 기업은 글로벌 기준으로 1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가 있는 비상장 기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수합병(M&A)이나 상장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번에 추가 파악된 유니콘 기업들을 포함하면 비상장 기업 가치 1조 원 돌파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총 23개사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패러다임이 벤처·스타트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술기반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스톡옵션 등 기존 벤처·스타트업 관련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당신의 **봄**

보

삼성화재 좋은보험사전

보험 (명) [보:힘]

아프면 찾는 것. 이제는
아프지 말라고 찾는 것

나“보험”으로
건강관리 하잖아~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애니핏

**삼성화재 애니핏으로
오늘부터 건강관리 시작하세요!**

걸음수만큼 포인트 적립, 적립한 포인트로 보험료 결제는 물론
병원 예약, 건강검진 예약, 질병 정보 검색과 마음챙김까지!

- * 이용 대상 : 삼성화재 건강보험 가입 피보험자(만 15세 이상, 본인명의 스마트폰 소지자)
- * 걷기 목표 달성시 매일 최대 100포인트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면세점 '코로나 돌파구' 해외서 찾는다

신라면세점, 중국 하이난 진출
하이요우면세점과 전략적 제휴

롯데, 日 간사이공항점 리뉴얼
시드니·다낭 시내점 오픈 계획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면세업계가 해외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업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지만, 사업 확대 배경에는 국내 면세 시장의 사업성 약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국내 면세업계는 유례 없는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22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내 면세점은 7조112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9조6995억 원)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6.7% 감소한 수치다.

코로나19 이후 끊어진 하늘길과 중국의 공세가 국내 면세업계에 타격이 되고 있

다. 우선 해외 여행이 힘들어지며 국내 면세점은 매출을 사실상 중국 보타리상(다이공)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매출 절벽에 직면한 면세업체가 영업점을 철수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코로나19 상황에 되려 기세를 올리고 있다. 중국은 하이난을 면세사업의 요충지로 낙점하고 지난해 7월부터 면세한도를 대폭 늘리는 등 규제개선에서 한국을 찾던 다이공의 발걸음을 돌렸다.

이로 인해 세계 면세업계 판도도 바뀌었다. 영국의 면세유통 전문사인 무디 데이빗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면세점 시장에서 중국국영면세품그룹(CDFG)이 스위스 듀프리그룹을 제치고 처음으로 매출 1위 자리를 꿰찼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면세시장이 부진한 와중에 CDFG는 지난해 2019년보다 8.1% 증가한 66억300만 유로(8조 9697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2019년 4위에서 1위로 뛰어올랐다. 한국의 롯데면세점은 매출 48억2000만 유로(6조 5476억 원)로

2019년과 같은 2위를 유지했다.

업계에선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어 어려운 사업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내보다는 해외 사업에 힘을 주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신라면세점은 위기 돌파를 위해 '중국 진출'을 택했다.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은 21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중국 하이난성 하이요우면세점과 양국 면세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국 하이난성 하이요우면세점(海南旅投免税品有限公司, HTDF)은 지난해 하이난관광투자발전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된 시내 면세점이다. 9만5000㎡ 규모 면세점에서 약 45개 카테고리, 500여 개 브랜드의 상품을 취급하며, 쇼핑은 물론 외식·엔터테인먼트 요소까지 아우르는 프리미엄 복합 쇼핑몰이다.

하이요우면세점은 산야평항국제공항으로부터 약 15km, 고속철도역에서 약 6km

떨어져 있다. 하이난 여행의 필수코스 손꼽히는 '천해각(天涯海角)'에 인접해 관광객 유입이 용이하다.

이번 MOU를 통해 신라면세점과 하이요우면세점은 추후 합작사 설립을 통해 상품 소싱, 시장 개발, 인적자원 교류, 상품 공동개발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 특히 하이난 진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해 면세점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은 일본으로 눈을 돌렸다. 롯데면세점은 이달 간사이공항점을 럭셔리 매장으로 탈바꿈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해외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롯데면세점 간사이공항점은 1월 '로에베' 매장을 론칭했다. 이어 지난달 5일 불

가리, 25일 보테가베네타, 30일 구찌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를 순차적으로 오픈하며 세단장을 마쳤다.

올 하반기엔 세계적인 주얼리 하우스인 티파니의 입점이 예정돼 있다. 롯데면세점은 총 6개 브랜드, 443㎡ (약 134평) 규모의 '프레스티지 부티크'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이후에 대비해 영업점 리뉴얼을 진행한 롯데면세점은 간사이국제공항 면세사업자 중 가장 많은 부티크 매장을 보유하고 됐다.

이외에 동남아시아와 호주 진출도 준비 중이다. 롯데면세점은 향후 호주 시드니 시내점, 베트남 다낭 시내점, 하노이 시내점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코로나 팬데믹 등 대외환경 변수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며 "사업 다각화와 체질개선 등을 위해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LG생활건강, 상반기 실적 사상 최고치

매출 4조581억 10.3% 늘어
中 럭셔리 화장품 성장 견인
2분기 '화장품 1조' 복귀도



'K뷰티 선두주자' LG생활건강이 코로나 확산세에도 올해 2분기와 상반기 기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뷰티, 생활용품, 음료 전 사업부문이 고르게 성장한 가운데 특히 중국 럭셔리 화장품 매출이 전체 성장세를 이끌었다.

LG생활건강은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조 214억원, 영업이익 3358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4%, 10.7% 증가했다고 22일 공시했다. 당기순이익은 2264억원으로 10.6% 성장했다. 매출은 2005년 3분기 이후 두 분기를 제외한 62분기 연속 성장 중이고, 영업이익은 2005년 1분기 이후 한 분기를 제외하고 65분기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화장품 사업 부문의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분기마다 1조 원 매출을 올렸던 LG생활건강의 화장품 사업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직격탄을 맞고 지난해 2분기 처음으로 1조대 벽이 깨졌다. 이후 올 1분기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4개 분기만에 처음으로 성장세로 돌아섰고, 올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21%,

23% 늘어난 각각 1조 1159억원, 2191억 원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어갔다.

이로써 LG생활건강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늘어난 4조 581억 원, 영업이익은 10.9% 증가한 7063억 원으로 집계되며 사상 최대 상반기 실적을 기록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백신 접종의 확대로 코로나19 해소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등으로 경영환경 개선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라면서 "럭셔리 브랜드와 중국 시장에서 선전이 성장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화장품 매출은 2조 9111억원, 영업이익은 573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9%, 17.4% 성장했다.

부문별로 보면 화장품 사업의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한 2조 2744억원, 영업이익은 18.4% 증가한 4733억 원을 달성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럭셔리 화장품과 중국 사업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했다. 특히 중국 럭셔리 화장품 시장의 경쟁 심화에도 '후', '오휘' 등 주요 럭셔리 브랜드들이 호실적을 거뒀다.

생활용품 사업의 경우 올 상반기 매출은 8% 증가한 1조 169억원, 영업이익은 2.7% 감소한 1250억 원을 달성했다. 주력 브랜드들의 차별화된 신제품 출시와 해외 사업 확장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을 이어갔다. 다만, 지난해 급증했던 위생용품 수요가 올해 상반기에는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했다.

음료 부문에서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7668억 원, 영업이익은 0.7% 감소한 1080억 원을 기록했다. '코카콜라', '파워에이드', '몬스터에너지' 등 주요 브랜드들이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최대 캔 생산업체에 발생한 화재로 장기간 생산이 중단되면서 캔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페트병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등 원부자재 가격 압박으로 음료사업의 수익성 개선은 어려웠다"라면서 "여름 성수기 시즌 준비를 위해 '몬스터에너지 망고로코', '조지아 크래프트 디카페인 오프라떼' 등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지 기자 heyji@



'현대식품관 투흥' 1주년 할인 행사

현대백화점은 식품 전문 온라인몰인 '현대식품관 투흥'의 론칭 1주년을 맞아 1년간 가장 인기있었던 100가지 상품을 모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65%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표 상품은 금돼지식당 '모듬 구이세트(6만5000원)', 도산공원 호추반 'NY양념 갈비 세트(4만5800원)' 등으로 현대식품관 투흥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구매 가능하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친환경 드라이브' 더 깨끗해지는 삼다수

플라스틱 사용 절반으로

'국민 생수'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50% 감소를 골자로 한 '그린 홀 프로세스' 경영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삼다수 용기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용을 50%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제주삼다수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생산 단계에서부터 공격적으로 탄소 저감화에 나선다.

올해는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에너지 진단을 시행해 절감 방안을 도출하고, 중장기적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 사업장 내 100% 재생에너지 전력 대체(RE100),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을 이뤄낼 계획이다.

공사는 기존에도 적극적으로 신재생 및 고효율 에너지를 도입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앞장서왔다. 2019년 제주개발공사 직간접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는 3만1600톤으로 2018년 대비 3.3%, 2017년보다는 9%나 줄어 들었다.

삼다수 포장용기 혁신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2ℓ와 500ml 제품의 경량화를 통해 플



라스틱 사용량을 1000톤 이상 줄였고, 지난달에는 라벨을 없앤 '제주삼다수 그린' 에디션을 선보였다. 연내 1억병 생산을 통해 64톤의 비닐 폐기물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생페트, 바이오페트를 사용한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폐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식품용으로 사용한 투명 페트병을 식품 용기로 만들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하는데 합의한 만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즉각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원순환 경제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제주의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다시 태어나기 위한 되돌림'에 참여해 제주도와 함께 도내 88개소의 재활용도움센터에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시설을 마련하고, 올해 1분기까지 185톤의 투명 페트병을 수거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매장에서 비대면 쇼핑" 롯데마트 '스마트결제'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바코드 스캔

롯데마트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비대면 쇼핑이 가능한 '스마트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롯데쇼핑은 롯데마트 강변점에서 '스마트결제' 서비스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결제'는 롯데마트 오프라인 전용 어플리케이션인 '롯데마트GO'를 활용, 고객이 직접 자신의 모바일로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하고 결제까지 진행하는 형태다. 코로나로 비대면 쇼핑에 대한 수요가 온라인쇼핑으로 이동한 점을 감

안, 오프라인 매장에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쇼핑 방법을 제안해 고객을 유입하겠다는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을 방문해 쇼핑하는 과정은 품비는 계산대 줄 서서 기다리기, 대면 문의 및 결제 등의 절차들이 있다. 이에 반해 '스마트결제'는 매장 내에서 '롯데마트GO' 앱의 '스마트결제' 서비스 실행, 구매할 상품 바코드 스캔, 모바일로 결제 후 전용 출구에서 결제완료 QR코드만 인식하고 퇴장하는 절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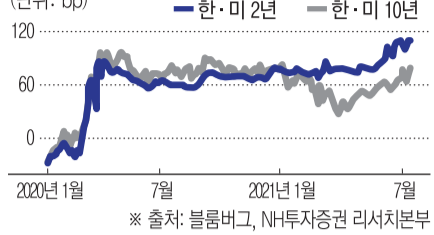
모바일과 장바구니만 사용해 쇼핑과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면을 최소화한 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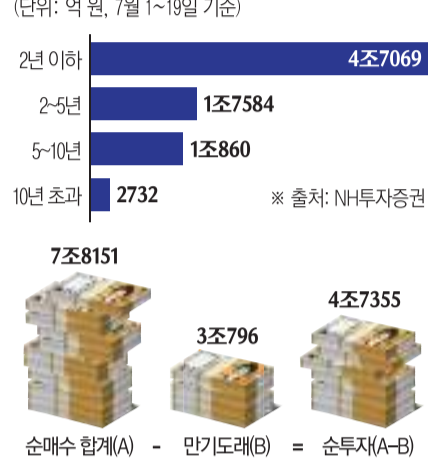
핑 방식이다. 다만, 주류와 부탄가스 등 일부 직원 확인이 필요한 상품의 경우 대면 응대가 필요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강변점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스마트결제' 서비스의 고객 반응을 살펴본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결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남주현 기자 jooh@

外人の '韓채권 사랑' 이달들어 7.8조 순매수

한국과 미국 채권의 기간별 금리 격차 (단위: bp)



7월 만기별 외국인 순매수 (단위: 억 원, 7월 1~19일 기준)



총 투자잔액 193兆... 높은 신용등급·고금리·안정성 매력 “시장 과열되면 8월 이후 ‘출구 전략 걸림돌’ 될 수도” 지적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액이 200조 원을 바라보고 있다. 7월에만 8조 원 가까이 사들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이 다른 신흥국에선 채권을 대거 팔아치우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경제전문가들은 외국인이 한국의 투자 가치를 높게 본다는 증거라고 반기면서도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갑자기 한국시장을 떠나버릴 수 있고 시장금리를 높이는 출구 전략을 추진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러워한다.

22일 투자은행(IB)업계와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채권 투자 잔액은 193조8427억 원으로 나타났다. 7월 들어서만 7조8151억 원을 순매수했다.

국내 채권의 매력은 신용등급이 높아 돈을 떼일 염려가 거의 없는 데도 선진국 채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한다는 데 있다.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평가 기준 AA로, 영국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과 같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 매수는 당분간 계속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 하면서 한국 채권만큼 안정적인 투자 대상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도 호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시작 시점은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가 회복되면 금리도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확산세만 잠잠해지면 연내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박민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6월 FOMC 이후 미국 장기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며 한·미 10년 금리 차가 확대되자 외국인들이 국고채 중장기물을 사들이고 있다”면서 “외국인의 원화채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인의 한국채권 폭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식을 판 외국인이 채권으로 갈아탔다는 증거가 없고 채권을 산 외국인이 장기 투자자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채권시장 한 관계자는 “외국인의 원화 채권 투자는 대부분 재정거래 성향의 단기물에 집중되고 있다”며 “외국인이 보유한 원화 채권 가운데 2년 이하 단기물이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환차익 등을 노린 단기 자금이 한국 채권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의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1일 기준 한국의 2년물 금리(수익률)는 1.257%로 미국의 2년물 0.20% 대비 100bp(1bp=0.01%)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일

본 등 주요국의 2년물 수익률 대비 78bp~109bp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이 최근 사들인 원화 채권의 만기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오래 한국시장에 머물 것인가를 가늠할 수는 있다. 만기가 비교적 짧은 1년 초과~2년 이하짜리 채권의 비중이 60%(7월 매수 기준, 4조7069억 원) 정도로 급증한 점을 보면 꼭 장기 투자자라고만 볼 수도 없다. 2~5년 1조7584억 원, 5~10년 1조860억 원, 10년 초과 2732억 원 등이었다.

일각에서는 채권시장이 과열되면 8월 이후 출구전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금리를 올려 시중 자금을 흡수하려 해도 외국인의 원화 채권 투자가 대규모로 이어지면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 물가가 오른다. 채권 시장 한 관계자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외국인의 채권 투자가 과한 상황에서 세계경제가 불안해지면 이들 자금이 한꺼번에 이탈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카뱅 공모가 '밴드 최상단' 3만9000원

수요예측에 SKIET 뛰어넘은 사상 최대 규모 2585조 몰려 공모 직후 시총 18.5조 예상

카카오뱅크 공모가가 3만9000원에 결정됐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20일과 21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공모가가 밴드(3만3000~3만9000원) 최상단인 3만9000원에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수요 예측에는 국내·외 기관 1667 개가 참여해 약 2585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4월 SK아이이테크놀로지(2417조 원)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국내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사상 최대 규모다.

공모 규모(최상단 시 2조5525억 원)를 기준으로 보면 IPO 역사상 3번째로 기록됐다. 이전까지 최고 기록은 2010년 삼성생명(4조8881억 원), 넷마블(2조6617억 원), 삼성바이오로직스(2조2496억 원)이었다.

공모 직후 시가총액은 18조5289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상장 후 시초가 형성(50~200%)에 따라 시총 은행보다 높은 몸값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시총 기준 금융주 1위 KB금융(21조 5388억 원)과 2위 신한금융(19조 8632억 원)에 이은 3위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지난 20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카카오뱅크는 은행에 머물지 않고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영역을 넓혀갈 것”이라며 “혁신적인 기술, 강력한 플랫폼의 힘, 카카오 생태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금융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향후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표는 이날 카카오뱅크가 은행업에 머물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은행 사업의 안정성과 플랫폼 사업의 성장성을 겸비한 상호 보완적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은행주가 아닌 금융 플랫폼으로 바뀔라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상장 후 필요한 기업 가치 산정에 비교 대상으로 국내 은행들 대신 해외 핀테크 기업을 선정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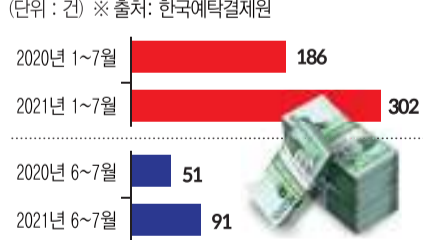
카카오뱅크는 상장 이후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그는 “좋은 기회가 온다면 아시아 등 해외에 진출할 것”이라며 “인수·합병(M&A) 외에 지분 투자나 다른 핀테크 기업과 조인트벤처 형식 등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기영 기자 pgy@

'리픽싱 규제 코앞' 전환사채 발행 급증

발행액 전년 대비 58.63% ↑ 최근 두 달간 건수 78% 급증

국내 상장사 전환사채 발행 규모 기간별 비교 (단위: 건) ※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전환사채(CB)로 자금 조달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이 불공정한 사채 투자를 막고, 기존 주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전환사채 제도를 정비하기로 하면서 발행길이 막힐 것을 염려한 탓이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상장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금액은 5조 249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조3089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가 발행된 것과 비교하면 58.63% 늘어난 수치다. 다만 해당 집계에는 실물로 발행되거나 만기가 도래한 전환사채는 제외됐다.

특히 최근 전환사채 발행 건수가 크게 늘었다. 올해 6월부터 이달 22일까지 총 91건, 1조7417억 원 가량의 전환사채가 발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건, 1조3217억 원의 전환사채가 발행된 것과 비교하면 발행 금액은 비슷하지만, 발행 건수가 78% 넘게 급증한 셈이다.

전환사채란 채권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의미한다. 이자율, 만기가 정해졌으며 리픽싱이 가능하다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장점으로 꼽혔다. 주가가 하락해도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낮추고 주식 수를 늘려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손실을 방어할 수 있어서다.

이 같은 장점이 개인투자자에게 투자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전환가액을 낮춘 다음, 주식 수를 늘려 지분을 늘리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기존주주에게 주식 가치 희석으로도 이어졌다.

전환사채 리픽싱 제도가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당국은 주가가 오를 때도 리픽싱이 가능하도록 전환사채 관련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관련 안전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 3자에게 콜 옵션을 부여한 전환사채에 대한 공시 강화 △콜옵션 부여 전환사채에서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 한도 제한 △전환가액 조정제도 개선 등을 주축으로 두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행 이전에 전환사채 발행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리픽싱 규제가 강화되면, 메자닌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파이프라인 미래가치를 기반으로 대규모 연구개발 자금이 필요한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메자닌 발행에 주력하고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최근에 좋은 조건의 메자닌이 계속 나와서 ‘골라먹기’하는 분위기다. 코스닥에선 법안 통과 이후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사채 발행에 서두르는 것 같다. 당장은 받고 있지만, 법안 통과 이후엔 확실히 시장이 위축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민아 기자 ljh@

하나금융투, 조직개편... 전문성·수익성 바탕 협업 강화

하나금융투자는 전문성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효율적 조직 운영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IB그룹은 흩어져 있던 각 부서 간의 기능을 통합하고 수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직을 재구성했다. 협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연금사업은 WM그룹 내 연금사업본부로 이동해 본진점 간 협업 확대를 시너지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기존 소비자 보호는 후속 조치에 치중됐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상품감리팀을 소비자리스크관리팀으로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상품의 제조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사회 산하에 소비자리스크관리 위원회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조직을 강화해 향후 하나금융그룹이 추진하는 소비자리스크관리 체제 구축에도 참여한다. 성과 중심, 효율성 등 조직 내 역동성을 높이고자 인사도 진행했다. 능력과 도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합리적 인사를 통해 임원·부사장을 발탁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으로 기존의 관행적인 틀을 과감히 탈피하고,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된 창의적이고 융합적 사고가 가능한 인재들을 발굴, 조직의 변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상반기 상장법인 56개사 M&A 완료 또는 진행 중

올해 상반기 중 상장법인 56개 사가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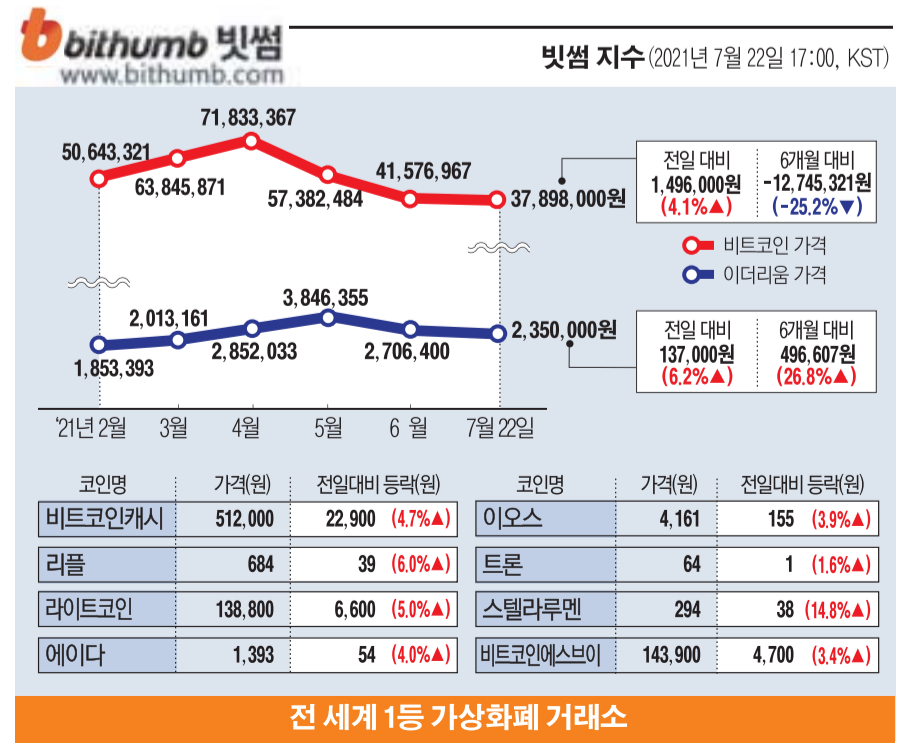
22일 한국결제예탁원에 따르면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56개 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7%(10개 사) 증가했다. 이들 기업 중 유가증권시장법인은 30%(17개 사), 코스닥시장법인은 70%

(39개 사)를 기록했다. 사유별로는 합병 사유가 51개로 전체 대비 91.07%를 차지했다.

상반기 상장법인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118억7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3803억1000만 원)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동성화학이 합병을 사유로 113억1700만 원의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으며 두산중공업은 1600만 원을 지급했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도심 고밀개발’ 지방으로 확대... 정부, 주민 사업 공모

서울 제외 수도권·광역시 개발 입지·사업성 등 평가 9월 말부터 후보지 발표

정부가 민간에서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공공 주도 개발사업 제안을 받겠다고 나섰다. 후보지를 제안하는 역할을 했던 지방자치 단체가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이 공공 주도 개발 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이 활기를 띌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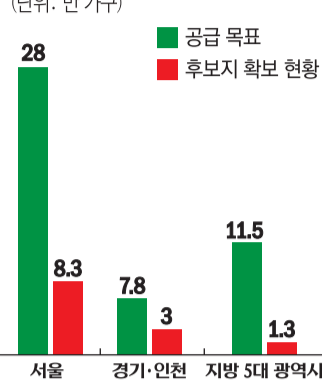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주거재생활성지구 사업,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민간(주민)으로부터 사업구역 제안을 받는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들 사업은 정부가 올 2월 2·4 대책에서 도입한 공공 주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 동의를 확보 현황

주민 동의율	개소	사업지
66.7% 이상	8곳	중산4, 수색14, 불광1 근린공원, 상문역 동측, (방학역, 상문역 서측, 상문1동 덕성여대, 연신내역)
50% 이상	5곳	창동674 인근, 불광329-32 인근, 녹번역, 신길2, 미아6
30% 이상	8곳	녹번동 근린공원, 신길15, 고은산 서측, 수유12, 송중동 주민센터, 삼양역 북측, 캠프조지인근(대구), 재물포역(인천)
10% 이상	9곳	창2동 주민센터, 새철역 동측, 영등포역, 신길4, 미아역 동측, 수유역 남측1, 수유역 남측2, 상봉터미널, 용마터널
10% 미만	22곳	-

※ 주민 동의율: 지구 지정 요건

도심 내 공공 주도 개발사업 공급 목표와 현황



도심 개발사업이다. 국토부는 그간 지자체에서 이들 사업을 추진할 후보군을 추천받아 최종 후보지를 낙점해왔다.

국토부가 민간에서도 사업구역을 제안 받기로 한 것은 후보지 발굴을 담당하는 지자체 태도가 소극적이라고 판단해서다. 지금까지 국토부가 지자체에서 제안받은

공공 주도 개발사업 구역은 428곳인데, 이중 317곳(74%)이 서울에 몰려 있다. 경기·인천지역과 비(非)수도권 광역시에서 제안한 사업구역은 각각 72곳(17%), 39곳(9%)에 그쳤다.

지자체가 사업 제안에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도 지지부

진했다. 8만3000가구 규모 공공 주도 개발 사업 후보지를 선정한 서울과 달리 경기·인천, 비수도권 광역시에서 발표된 공공 주도 개발사업 규모는 각각 3만 가구, 1만3000 가구에 그치고 있다. 지자체에선 민간 주도 개발을 원하는 주민 반발 등을 우려해 후보지 제안을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2·4 대책에서 공공 주도 개발사업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주택은 경기·인천에서 7만8000가구, 비수도권 광역시에서 11만4000가구다. 현재 확보한 후보지보다 각각 3배, 8배 이상 많다.

이번 공공 주도 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에서 받는다. 민간이 사업 구역을 자체 설정한 후 구역 내 토지주 10%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민간이 제안한 사업구역 가운데서 입지와 사업성, 개발 시급성 등을 평가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10%란 동의율 요건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공공 주도 개발사업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율 요건(토지주의 66.7% 이상)과 큰 차이가 있어서다. 후보지로 선정된다고 해도 실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율을 더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민 갈등 등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업 후보지 발굴부터 공공이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계 사업 현실성 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10% 동의율을 채운 곳 중에 66.7%에 이르는 곳이 얼마나 될지는 불투명하다. 후보지로 선정되어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지 발굴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동의율을 얻도록 해 후보지 선정 이후엔 주민 갈등 없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자식 명의로 집값 올려 수익 차이” 12건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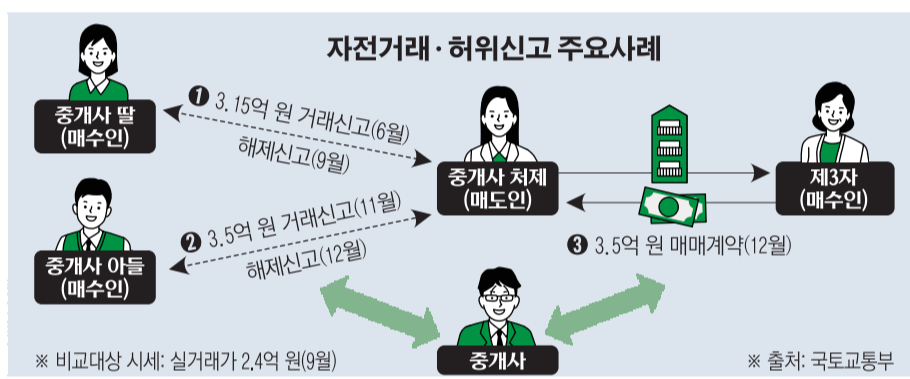
국토부 ‘실거래가 띄우기’ 실태조사 자전거래·허위신고 69건 의심사례 범죠키심 10건, 경찰에 수사 의뢰

#. 공인중개사 A 씨는 지난해 6월 시세 2억4000만 원이던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 명의로 3억1500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A 씨는 같은 해 9월 거래 취소 신고한 뒤 11월 다시 아들 명의로 3억5000만 원에 매수 신고하면서 시세를 끌어올렸다. A 씨는 12월 다시 해제 신고한 후 제3자에게 처제의 아파트를 3억5000만 원에 팔아 시세보다 1억10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 중개보조원 B 씨는 지난해 9월 시세 5000만 원짜리 C 씨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7950만 원에 샀다고 신고했다. 시세를 끌어올린 B 씨는 제3자에게 곧바로 7950만 원에 매매 중개했고, 본인의 종전 거래는 10월에 취소됐다고 신고했다. 순식간에 295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셈이다.

시세를 높일 목적으로 신고가를 허위 신고한 뒤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이뤄진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세 조종이 목적인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정부 조사를 통해 실제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국토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 2월 21일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특징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821건의 거래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이 중 자전거래 및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는 12건이었다.

자전거래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거래를 실제 있는 것처럼 꾸며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자전거래 시 주변 아파트 시세도 덩달아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 1건 만으로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자전거래는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신고는 적발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단은 이번 조사에서 자전거래나 허위신고 외에 소득세법 위반 의심사례도 적발했다. 매수인이 계약금 6500만 원을 지

급한 후 매도인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하며 받은 금액의 2배인 1억3000만 원을 반환했다.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통해 6500만 원의 이득을 봤지만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미납해 ‘소득세법 위반’이 의심됐다.

국토부는 법령 위반 의심사례 6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죠키심 10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소득세 미납 등 5건의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미납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 밖에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54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승현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은 “이번 조사는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를 최초로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직 조사에 한계가 있지만, 이번 발표를 계기로 허위신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이재영 기자 lijy0403@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83주 만에 최고

정부 집값 고점 경고 무색 0.19% ↑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뛰고 있다. 정부가 ‘집값 고점론’을 꺼내 들며 시장에 연일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도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을 중심으로 상승폭은 되레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1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올라 전주(0.24%) 대비 0.03%P(포인트)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32%→0.36%)과 서울(0.15%→0.19%), 지방(0.16%→0.19%) 등에서 일제히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2주간 각각 0.15%씩 올랐던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0.19%로 상승폭을 키웠다. 2019년 12월 셋째 주(16일 기준·0.20%) 이후 83주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그 사이 굵직한 부동산 대책들이 여러 차례 쏟아졌는데도 상승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동산원 측은 “집값 고평가 가능성과 코로나19 변이 확산 등으로 자산가치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데도 노도강 등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강남권 외곽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노도강 지역이 견인했다. 이번 주 노원구 아파트값은 0.35% 오르며 2018년 9월 둘째 주(0.5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노원구(0.35%)는 노후 단지가 많은 상계·

중계동, 도봉구(0.27%)는 재건축 등 개발 사업 기대감이 있는 창·도봉동 위주로 가격이 뛰었다. 강북구(0.18%)에서는 저평가 단지가 많은 우이·번동 일대 단지들이 강세를 보였다. 강남3구에선 강남구가 0.20% 올랐고, 송파구와 서초구도 각각 0.18% 상승했다. 영등포구(0.21%)는 공공재개발 호재를 안고 있는 신길동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경기도(0.44%)에선 안성(0.89%), 안양 동안구(0.87%), 수원 권선구(0.66%) 등이 가파르게 올랐다.

지방에선 제주(0.36%), 충북(0.29%), 대전(0.28%), 부산(0.25%), 전북(0.25%), 광주(0.22%), 강원(0.19%), 충남(0.18%) 등이 많이 올랐다. 지난주 0.12% 하락했던 세종시는 이번 주 0.05%로 상승 전환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성모병원 옆 주차장 부지〉

여의도 마지막 ‘노른자 땅’ 매각 50년간 묶인 용도규제 풀릴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빈 땅’이 새 주인을 맞았다. 여의도 개발 계획 수립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달 6일 3030억 원에 여의도동 61-1번지 토지를 매각했다. 교회는 복지, 선교 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달 토지 매각 입찰을 진행했다. 매입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개발업계에 선한 대형 자산 운용사를 지목한다.

8264㎡ 넓이인 이 땅은 라이프주택개발, 국민연금공단, 한 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거쳐 2012년 순복음교회 손에 들어간다. 당시 순복음교회는 캠코에 600억 원을 주고 지역특성에 맞는 용도변경 주장 땅을 샀다. 10년

역이어서 개발 사업성을 높이려면 용도지역 조정도 필요하다.

이 땅이 속한 여의도 금융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이르면 올해 말 초안이 나온다. 영등포구는 서울시 에 이 땅에 여의도 금융가에 걸맞은 금융지원시설이나 대규모 랜드마크를 짓자고 제안한 상태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완성되면 새 토주에게도 개발 방향을 건의 받을 계획이다. 여의도동에 선 거구를 둔 정재웅 서울시의원은 “금융 중심지에 맞는 개발 계획과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여 방안을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넓이	8264㎡
용도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소유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최근 제3자에게 매각
매각가	600억 원 → 3030억 원 (2012년) (2021년)
개발계획	학교용지 → 여의도 금융중심지구단위계획 수립 중

국토부, 옆토지는 공공주택 추진 “금융 랜드마크 개발로 공공 기여” 지역특성에 맞는 용도변경 주장

1번지보다도 61-2번지 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더 컸다. 넓이도 61-1번지와 같은 쌍둥이 땅인 61-2번지는 1984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 중이다. 역시 학교 용지로 묶여 수십 년간 개발이 제한됐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61-2번지에 약 300 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61-1번지와 달리 공공주택 부지로 지정되면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여의도 금융중심지구에서도 빠져 별도 개발 계획이 수립된다. 현재 토지주이자 사업 시행자인 LH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부, 영등포구와 협의 중이다.

여의도 일부 주민은 공공주택 건설에 반발하고 있다. ‘곰짜리 땅’에 공공주택이 들어서면 금융지구 조성에 부조화가 생긴다는 게 명분이다.

박종화 기자 pbell@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군인은 더 가볍게

나라사랑 LTE요금제
월 최저 24,200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FLEXLTE요금제
월 28,800원



태블릿과 데이터를 나눠쓰는
데이터 셰어링

통신비, 리브모바일로 세상 가벼워지다

리브모바일을 검색하세요 www.liivm.com



최대 24만원 더 가볍게! 갤럭시를 가져봐

기간: 2021.07.01(목) ~ 2021.09.30(목)

대상: Liiv M Shop이나 삼성 모바일스토어(KB국민은행 가산디지털종합금융센터 내) 갤럭시 폰 구매 후 이벤트 페이지에 주문번호 입력한 고객

혜택: 미션 혜택 최대 16만 포인트리와 유지 혜택 최대 8만 포인트리, 총 24만 포인트리 제공



이벤트 바로가기



*FLEX LTE 요금제 이벤트 월 기본료 28,800원은 이벤트 기간인 2021.7.1 ~ 7.31. 기간 중 개통한 고객 선착순 5,000명에게 개통월 포함 24개월간 제공됩니다.(이벤트 기간 종료 또는 선착순 마감 시, 월 기본료 39,800원, 월 최저 34,300원)
 *나라사랑 LTE요금제 월 최저 24,200원은 프로모션 기간인 2021.4.1 ~ 9.30. 기간 중 가입한 고객에게 제공되며, 나라사랑카드 발급대상자가 가입 가능한 나라사랑 LTE 요금제(일반)의 경우 1인 1회선만 개통가능하며 최장 36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프로모션 기간 종료 시 월 기본료 29,900원, 월 최저 27,700원)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페이지 또는 Liiv M 고객센터(1522-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1563호(2021.06.23), 광고물유효기간 2021.7.31.까지

대법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5년”

교보생명, 10년간 지급한 5600만 원 반환청구소송 일부 승소
“계약 무효” 판결 내렸지만 5년간 지급된 금액만 일부 반환 인정

계약자가 부정 취득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상사계약이 무효일 때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효는 민사 시효인 10년이 원칙이지만 보험금처럼 계약금 자체를 돌려받을 때는 5년의 상사 시효 적용이 맞다고 본 것이다.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2일 교보생명이 A 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05년 아들 B 씨를 피보험자로 상해·질병으로 입원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교보생명은 계약에 따라 A 씨 등에게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약 56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교보생명은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교보생명 측은 A 씨가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려는 목적으로 교보생명을 비롯해 다

른 보험사들과 비슷한 보험계약 9건을 체결하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이유로 보험금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보험계약 무효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민사시효(10년), 상사시효(5년), 보험시효(3년)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여금 등 민사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갖는다. 상거래 등에 따른 상사 채권의 시효는 5년이다.
보험계약이 무효일 때 계약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보험사 측은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인 만큼 상법이 아닌 민법상 일

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면서도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판단해 해당 기간에 지급된 보험금만 A 씨 등이 반환하도록 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 뒤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전합은 “보험계약과 같은 상사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해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이런 종류의 사안은 다수의 보험계약과 보험사가 관련되므로 법률관계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짚

었다.
그러면서 “상법 64조를 유추적용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보험계약이 무효일 때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할 때 보험사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만 장기간 10년의 민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합은 다른 사건에서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은 판결 효력이 관련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므로 ‘필수적 공동소송’ 소송인 만큼 참여자들 각각의 재판 결과가 모두 일치해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재확인 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얼음아, 더위를 쫓아다오” 절기상 가장 덥다는 ‘대서’인 22일 오후 서울 낙성대공원 임시선별검사소에 열기를 식히기 위한 대형얼음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檢 스폰서 문화’ 조직 진단 착수

비위 의혹·신고 사례 전반 조사... 결정 나온 사건도 재검토

법무부가 현직 검사의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의혹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검찰 스폰서 문화 조직 진단에 착수했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법무부 검찰관실은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과거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인 특수부를 중심으로 각종 비위 의혹을 감찰하는 내용의 조직 진단 계획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가짜 수산업자의 현직 검사로 비 의혹이 알려지자 “한 검사의 일탈인지, 아니면 특수부 검사들의 조직 문화의 일한 인지 모르겠지만 스폰서 문화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고 있다”며 대규모 진상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법무부 검찰관실에 가짜 수산업자 사건 진상 조사는 물론 조직 진단과 대

책 마련 방안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검찰관실은 박 장관의 지시로 조직 진단 방안과 대상을 고심한 끝에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타깃으로 정하고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다. 최근 제기된 비위 의혹과 외부기관에 접수된 신고 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관실은 이미 결정이 나온 비위 사건도 재검토한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제식 구 감싸기’ 결론이 내려진 정황 등을 파악한다는 취지다. 동시에 암행 감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직진단의 원인이 된 해당 검사에 대한 직접 조사는 수사 방해 우려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진행된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남부지검 이모 부장검

사(부부장검사로 강등)가 수산업자로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고급 시계와 자녀 학원비 등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다. 경찰은 이 검사를 입건해 강제 수사에 나서는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검사는 과거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김 씨를 소개받았다.
검찰관실의 이번 조직진단은 특수통 검사들에 더해 강력동 검사들에게까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라임 사태와 관련한 이른바 ‘서울중앙지검 립살롱 접대실’의 핵심 인물인 강력부 출신이기도 하다. 과거 박 장관은 “스폰서 문화를 들여다보면 중앙지검 건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감찰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라임자산 운용 로비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2019년 해외 도피를 앞두고 현직 검사들에게 립살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다. 김중용 기자 deep@

‘軍 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 유족 손배소 승소

국가 상대 배상청구는 기각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의 유족이 국가와 당시 선임병이던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가 유족에게 4억907만36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청구는 기각했다.
경기도 연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이 씨를 포함한 선임병들은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흘리게 하고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에서 주범인 이 씨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5~7년을 각각 확정 받았다.
당시 군 검찰은 당초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 이후 논란이 일자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로 인한 좌골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해 사건은 폐기는 비판이 나왔다.
손해배상 판결 선고 직후 윤 씨의 모친 안미자 씨는 취재진에게 국가배상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 씨는 “우리 아들이 허망하게 사라진 뒤 저희 가족은 군의 잘못된 조작과 은폐 수사로 인해 7년 넘게 싸우고 있다”며 “슬픔과 분노가 너무 커 삶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군사재판에서 은폐·축소하고 유족을 기만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군은 끝까지 고통을 유가족들에게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중용 기자 deep@

배달대행업체 택배기사 갑질피해 막는다

163개 업체 중 111곳 연내 표준계약서 채택

서울·경기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등 배달기사에게 불리한 규정이 다수 확인됐다. 점검을 받은 배달대행업체의 76%는 정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배달기사에 대한 갑질 피해 예방을 위한 공정한 계약서 도입을 유도하고자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163곳(배달기사 총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 업체가 사용하는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여러 배달대행업체 업무 수행 금지)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여러 문제사항이 확

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10월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표준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했다.
표준계약서에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배달료 미기재의 경우 가급적 기본배달료는 계약서 내에 명시하고, 배달업체의 특성을 고려해 상황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점검과정에서 163개 업체 중 111곳(68.1%)은 연내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고, 13곳(8.0%)은 기존에 사용하던 계약서 중 불공정한 조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17곳(10.4%)에 대해 향후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부당행위 신고 접수 시 보다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드루킹 공모’ 김경수 전 도지사 26일 수감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 경남 창원시 창원교도소에 수감된다.
창원지검은 22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26일 오후 1시 창원교도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날 창원지검은 대검찰청의 형 집행 지

휘 촉탁을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전 지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김 전 지사 측은 경남 도정의 안정을 위한 원활한 도정 인수인계의 필요성, 개인 신변 정리, 건강상 이유 등 복합적인 사유로 형 집행 연기를 요청했고, 창원지검이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김 전 지사는 검찰에 건강 상의 이

유를 들어 수감 연기를 서면으로 신청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형 집행 대상자는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등 사유로 최대 3일 출석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김 전 지사는 1심 선고 당시 법정 구속돼 77일간 수감된 기간을 제외한 1년9개월 가량의 형기를 채워야 한다.
한편 재수감을 앞둔 김 전 지사는 유죄 확정 이후 관사에 머무르다 전날 저녁 경남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수천 기자 int1000@



펜 끝에서 되살아난 민중의 삶

그렇게 역사의 퍼즐은 완성된다

소설 '자산어보'로 돌아온 밀리언셀러 역사소설가 오세영

늦깎이 소설가로 데뷔한 오세영(68) 작가는 첫 작품 '베니스의 개성상인'으로 단숨에 밀리언셀러 작가로 발돋움한다.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그의 섬세한 관찰력과 풍부한 상상력이 가미된 소설은 많은 이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최근 정약전의 삶을 다룬 소설 '자산어보'로 돌아왔다. 그가 매료된 정약전의 삶과 더불어 역사소설의 가치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그의 데뷔작 '베니스의 개성상인'은 한복 입은 남자의 사진이 모티프였고, '대왕의 보검'은 칼이 소설의 첫 단추였다. 그렇다면 '자산어보'는 어디서부터 출발한 얘기일까?

“유배지에서 자연과학 서적을 쓴 정약전의 삶이 흥미로웠어요. 악조건 속에서도 해양생물에 관한 서적을 집필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다양한 이론과 현장 실무를 다룬 실용서는 당시 학문적으로 신선한 시도였죠. 열린 사고를 통해 새로운 학문의 지평을 연 사람. 주자학에 발을 딛고 손으로 실학을 매만지는 학자. 그게 참 강렬했어요. 그를 보고 역사적 시간과 공간이란 씨줄과 날줄을 엮어서 만들어낸 것이 이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추리소설과 같이 사건이 전개된다. 해녀의 죽음, 재벌 행세를 했던 사상도고와 마을 사람들 간의 공방 등 다양한 사건이 추리소설처럼 긴박하게 흘러가고, 정약전은 마지막 순간에 신스틸러처럼 등장해 이를 모두 해결한다.

“모든 사건의 해결은 정약전이 도맡죠. 다만 사건의 중심은 민중이에요. 약전의 삶을 빌려왔지만, 중요한 건 그에게 어부로서 물고기 지식을 알려줬던 창대와 같은 민중이에요. 약전의 '자산어보'도 결국 민중의 삶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소설을 쓸 때 역사를 위인의 관점이 아니라 민중의 관점을 통해 새로운 각도로 접근하는 편이에요. 이를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서 추리소설처럼 썼어요. 역사란 도착지를 목표표 하지만 재미란 내비게이션을 소설 속에서 작동시키는 것이죠. 고증은 철저히 해야 하지만 재미를 놓칠 수는 없어요.”

도서관은 영감의 서랍

1993년 조금 늦은 나이에 소설가로 데뷔했는데, 이 데뷔의 출발점은 한 권의 책이었다.

“역사의 재미에 눈을 뜬 건 중학교 때 박종화의 '자고 가는 저 구름아'를 읽고 나서였어요. 학부도 역사를 전공했는데, 생각한 것과 달랐어요. 소설 속 역사는 살아있는 역사였지만, 제도권 교육에서 배우는 역사는 죽은 역사처럼 느껴졌어요. 이후

역사를 교과서 외우는 것처럼 틀에 박혀서 바라볼 필요 없이 새로운 각도로 시야 넓히는 것 그게 바로 역사소설가의 역할

위인 정약전의 삶 빌려왔지만 '자산어보' 사건 중심은 민중 민중의 관점으로 역사 재구성 다음 작품은 승려 묘청 이야기

직장생활을 10년 정도 했는데, 번아웃이 왔어요. 문득 저 책이 생각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그때의 전율과 감동이 제 맘 한구석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꺼진 삶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선택한 것이 역사소설이었어요.”

그렇다면 시간이 지난 지금, 첫 소설을 쓸 때와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처음 쓸 때는 서술에 집중했어요. 사실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생생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최대한 간결하게, 독자들이 잘 읽을 수 있게 글을 쓰려고 노력했어요. 짧은 설명은 괄호로 덧붙이고, 길면 주석을 달았어요. 군더더기를 최대한 덜어낸 거죠. 대신 본문은 장면이 그려지고 생생한 현장감을 줄 수 있게 묘사와 현재형 시제를 많이 쓰려고 노력했죠.”

역사소설은 사료를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방대한 자료를 읽고 분류하고 정리해야 한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료를 정리하면서 힘든 점도 있을 터.

“원하는 사료를 찾는 게 정말 쉽지 않



무명의 역사 복원

그가 영감의 서랍 속 사실을 토대로 만든 역사소설의 가치는 무엇인지 물었다.

“삶의 외연을 넓히는 지름길은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는 거예요. 배우 윤여정이 오스카상을 받듯이 우리나라 작가가 노벨상을 못 받으리라는 법도 없잖아요. 법대 나왔다고 무조건 변호사를 할 필요도 없어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교과서 외우듯이 틀에 박혀서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역사를 맘대로 바꿀 수는 없죠. 다만 새로운 각도를 통해 바라보면서 역사를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죠. 그게 역사소설의 역할이라고 봐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까요?”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더불어 역사소설에 관한 그만의 소신을 밝혔다.

“제가 하는 일은 무명의 역사를 복원하는 일이에요. 역사는 승자의 관점에서 기록되고 해석될 때가 많아요. 또한 위대한 리더나 위인은 소수일 뿐, 그 시대를 온몸으로 부딪히고 살아가는 건 민중들이에요. 그 시대를 치열하게 살다 간 무명의 역사를 조명하는 건 그 시대를 새롭게 보는 돋보기와 같아요. 앞으로 쓸 책도 그런 책이 될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름은 들어봤지만 잘 모르는 고려 시대 승려 '묘청'에 대한 얘기를 써보려고요.”

한 줌의 먼지처럼 사라져간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고 취합하는 일. 그것은 매우 고되지만 재밌는 일이었다. 그는 역사란 퍼즐의 이음새를 자신만의 결로 깎고 다듬어 모나지 않은 그림으로 완성할 때 보람을 느꼈다. 역사적 사실에 발을 디딘 채 무명의 역사를 복원하며 소설로서의 재미를 놓치지 않는 일. 독자들을 위해 더 좋은 소설을 쓰고자 노력하는 일. 아마도 그것은 새로운 학문적 성취에 힘쓰고 이를 통해 민중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애썼던 실학자 정약전의 정신과 비슷할지도 모른다. 역사의 퍼즐을 다듬는 실학자로서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며 마친다.

글/금민수 기자 minsugold@ 사진/오병돈 프리랜서 obdlife@gmail.com



여름 비수기는 옛말, 분양시장 4.7만 가구 쏟아진다

여름은 무더위 영향과 휴가철이 겹쳐 분양 비수기로 불린다. 하지만 올해 여름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에만 전국에서 총 4만7150가구가 분양된다. 이는 올해 상반기 공급량이 가장 많았던 3월(2만7936가구)보다 1만9241가구 더 많은 규모다.

이달 분양 물량이 급증한 이유는 상반기 분양을 준비했던 단지들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영향 등으로 일정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달에는 총 64개 단지에서 4만2140가구가 일반분양에 나선다. 올해 봄(3~5월) 평균 2만4659가구가 분양한 것과 비교하면 7월 공급량은 91% 더 많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일반분양 물량은 4857가구 더 공급될 전망이다.

청약시장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뜨거



경기 과천시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 건본주택을 찾은 청약 대기자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스

워지는 분위기다. 이전 최고 경쟁률을 넘어서는 곳이 적지 않아서다. 올해 상반기 서울지역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15.04대 1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는 183.24대 1이라는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33.32대 1)와 전북(33.75대 1), 충북(9.61대 1) 등도 기존 평균 경쟁률 기록을 갈아치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분양 물량이 많지 않아 체감 공급 효과는 크지 않았지만 하반기에는 수도권 내 5만 가구 이상이 분양될 예정이어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4043가구 대단지 생활편의시설 풍부

삼성물산 부산 '래미안 포레스티지'

부산 전통 주거지인 동래구 온천동에 4043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삼성물산은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 재개발 단지인 '래미안 포레스티지'를 올해 하반기 분양할 예정이다.

래미안 포레스티지(FORESTIGE)는 숲을 나타내는 Forest와 위신과 명망을 의미하는 Prestige의 합성어로 금정산의 자연환경에 상징성을 갖춘 대규모 단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36개 동, 전용면적 39~147㎡, 총 404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조합원과 임대 물량을 제외한 233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일반분양 물량 기준 △49㎡ 212가구 △59㎡A 267가구 △59㎡B 74가구 △72㎡A 158가구 △72㎡B 80가구 △84㎡A 668가구 △84㎡B 606가구 △84㎡C 253가구 △97㎡ 8가구 △115㎡ 2가구 △132㎡ 3가구 등이다.

교통편으로는 부산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을 걸어



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을 관통하는 중앙대로와 우장춘로, 금강로, 식물원이 인접해 시내 이동이 편리하다. 교육 환경도 잘 갖춰졌다. 금정초·장전중·유락여중 등이 반경 1km 이내에 있다. 내성고·중앙여고·대명여고·사대부고 등의 명문 학군으로 통학도 가능하다.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부산 주요 상권인 온천장 상권과 부산대 앞 상권을 이용할 수 있다. 허심청·홈플러스·CGV 등도 가깝다. 롯데백화점·롯데시네마·NC백화점 등의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을 이용하기도 쉽다. 금정산·금강공원·금강식물원 등의 녹지시설과 인접해 있어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

1순위 절반 수도권 거주자 배정...101㎡ 추첨

DL이앤씨 강일 'e편한세상 어반브릿지'

DL이앤씨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아파트를 이달 분양한다.

고덕강일지구 10블록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6개 동에 총 593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면적별 구성은 전용면적 84㎡형 419가구와 전용면적 101㎡형 174가구 등이다.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1순위 청약 물량 중 50%는 해당지역(서울 2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되며 나머지 절반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전용면적 101㎡형 물량의 절반은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정한다.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고덕강일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 단지로 서울은 물론 수도권 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고덕강일지구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조성한 대규모 공공택지지구로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와 함께 '강남 4



구'로 분류되는 강동구에 있다. 지하철 5호선 강일역과 가깝고 9호선 개통도 예정되어 있어 편리한 교통 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인근에 강술초와 강명초, 강명중이 있다. 한영외고와 배재고 등 우수 학군도 조성돼 있다. 쾌적한 주거 환경도 갖췄다. 3월 개통된 서울 지하철 5호선 강일역을 통해 2호선·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상일 IC)와 중부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이 가까워 도로 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도 함께 강일동 광역환승센터 건설도 예정돼 있다.

14년 만에 구미서 공급, 비규제지역 관심 커

대우건설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대우건설은 경북 구미시 고아읍 일대에 짓는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아파트를 이달 분양한다.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4층 9개 동 총 819가구(전용 84·98㎡)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84㎡ 727가구, 98㎡ 92가구로 이뤄진다.

대구·경북권역을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구권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2023년 개통 예정) 경부선 구미역과 경부고속도로 구미IC, 북구미IC(2021년 10월 개통 예정) 등을 이용해 인접한 대구와 부산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약 24만㎡)는 2795명(약 1075가구)의 인구 수용이 계획돼 있다. 인도전 생태하천이 중심부에 흐르고, 들성공원, 문성지 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 단지 앞 문장로를 통해 병원과 은행, 관공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들성로를 이용하면 문성1~3지구 및 도량지구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수영장과 어린이놀 등의 시설을 갖춘 고아읍 생활체육센터 이용도 가능하다. 체육센터는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구미에서 2007년 이후 14년만에 공급하는 단지”라며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분양권 전매도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본주택은 구미시 광평동 일대에 마련된다.

주민 입주 마무리...배후단지 등 개발 호재

부영주택 부산신항 사랑으로 부영5·6단지

부영주택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부산신항 사랑으로 부영 5·6단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이달 분양한다.

부영주택이 이번에 분양하는 상가 점포는 모두 9개다. 단층인 5단지 상가엔 4개 점포, 2층 높이인 6단지 상가엔 5개 점포(1층 3개·2층 2개)가 입점한다.

상가가 있는 부산신항 사랑으로 부영 5·6단지는 총 841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5단지엔 302가구, 6단지엔 53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두 아파트 모두 이미 입주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만큼 안정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 용원동 일대에선 부산신항 사랑으로 부영 5·6단지 외에도 6500가구에 이르는 아파트촌이 형성될 예정이다.

단지 주변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부영주택 관계자



는 “용원동 일대는 944만㎡에 준하는 신항 배후단지가 조성되고 신항 서측 부지 개발을 통해 향후 글로벌 물류 기업 유치 등 물류 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으로 미래 가치가 충분하다”며 “이울러 단지 내 상가로 안정적인 수익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항남로를 거쳐 용원동과 이어지는 부산 가덕도에선 김제국제공항을 대신할 신공항 건설 사업도 추진 중이다.

상가 입찰 관련 상담은 용원동에 있는 부산신항 사랑으로 부영 전본주택에서 할 수 있다.

단지 앞 수인분당선 승의역, 직주근접 우수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승의역

현대건설은 인천 미추홀구 승의동 일원에 들어서는 복합단지 '힐스테이트 승의역'을 8월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승의역은 지하 4층-지상 최고 47층짜리 아파트 748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264실 등 총 101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264실(전용면적 39~59㎡)로 이뤄졌다. 단지 내 스트리트 상업시설인 '힐스 에비뉴 스퀘어몰'은 지상 1~2층, 100실이 들어선다.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59㎡형은 투룸, 3베이 구조로 설계돼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GX룸 등 주민운동시설과 생활지원시설이 갖춰진다.

단지 내 상업시설 힐스 에비뉴 스퀘어몰은 대로변 스트리트 상가로 조성된다. 단지 인근에 수인선 바람길 숲과 승의역의 시작점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교통도 편리하다. 단지 바로 앞에 수인분당선 승의역이 있다. 수인분당선은 서울지하철 1·2·3·4·5·7·8·9호선, 인천지하철 1호선, 신분당선, 경강선 등 수도



권에서 운행 중인 대부분 지하철 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덕분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반경 1km 내에 홈플러스 인천송의점, 이마트 동인천점, 인하대 병원 등 대형마트와 의료시설이 있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과 인천시립도원실내체육관도 가까워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신광초, 광성중·고교도 인근에 있어 교육 환경도 좋다.

직주근접 입지도 갖췄다. 단지 인근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 한진중공업, 인천기계산업단지 등이 있어 출·퇴근하기 편리하다.

인천 미추홀구 인종로 일대에서 힐스테이트 승의역 아파트 분양 홍보관이 운영 중이다.

84㎡ 초과 타입 1200가구, 전국 청약 가능

GS건설 세종자이 더 시티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태영건설·한신공영)이 세종시 6-3 생활권 L1블록에 들어서는 '세종자이 더 시티' 아파트를 이달 분양한다.

세종자이 더 시티는 지하 2층-지상 25층, 24개동, 전용면적 84~154㎡, 총 135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조성된다. 특히 전용 84㎡ 초과 타입이 1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89% 이상이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세종시는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해 주목받고 있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폐지 이후 첫 분양 단지로 일반공급 분양 물량만 1100가구에 달해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공급 물량 중 당해 지역에 50%가 배정되고, 나머지 절반은 기타 지역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이달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은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8월 4일이다. 정당계약은 8월 16~22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세종자이 더 시티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한다. 단지 인근에 간선급행버스(BRT) 해밀리 정류장



이 있어 외곽순환도로인 세종로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가로지르는 한누리대로를 이용하기 쉽다.

교육 환경도 좋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들어설 예정이며, 중·고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인근에는 인문·과학·예술 분야를 통합한 캠퍼스형 고등학교도 들어설 예정이다.

세종필드 GC(골프클럽), 오가냥뜰 근린공원, 기쁨뜰 근린공원 등도 단지 가까이에 있다.

세종자이 더 시티의 견본주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 운영된다. 입주는 2024년 7월 예정이다.

한강·고덕산 조망권, 서울 첫 '이케이' 입점

현대산업개발 고덕아이파크 디어반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강 일지구 내 고덕비즈벨리에 판매·업무시설이 결합된 '고덕아이파크 디어반'을 조성한다.

고덕아이파크 디어반은 연면적 30만1092㎡ 규모로, 판매시설과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업무시설은 총 598실(전용면적 37~158㎡) 규모로 지어진다.

서울 동부권의 중심인 고덕비즈벨리에 조성되는 고덕아이파크 디어반은 한강과 고덕산 조망이 가능하다. 주변에는 고덕수변생태공원과 고덕산, 고덕비즈벨리 내 근린공원(예정)이 자리하고 있다.

교통 여건도 좋다. 강일IC와 올림픽대로를 통해 강남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사업지인 고덕아이파크 디어반 옆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2022년 개통 예정)와 강동IC(예정), 고덕대교(예정)가 완공을 앞두고 있다. 강동구 고덕동 일대와 남양주시를 잇는 지하철 9호선 연장선 샴터공원역(예정)도 들어설 예정이다.



고덕아이파크 디어반은 쇼핑과 비즈니스,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신개념 복합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도록 도심 속 공원을 지향하면서 상업·업무·문화를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시설을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 최초로 가구 전문 브랜드 '이케이'가 고덕아이파크 디어반 내에 입점을 확정해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또 이마트와 멀티플렉스 영화관, 키즈집, 전자제품샵, 리빙 인테리매장 등 쇼핑문화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현장 홍보관은 서울 강동구 브이센터 전시장(고덕동 402-6)에서 운영 중이다.

광역교통망 강점, 대형병원·쇼핑시설 인접

한화건설 한화 포레나 천안 신부

한화건설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일대에 들어서는 '한화 포레나 천안 신부' 아파트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포레나 천안 신부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602가구(전용면적 76~159㎡)로 조성된다. 타입별로 △76㎡ 123가구 △84㎡A 195가구 △84㎡B 27가구 △104㎡ 98가구 △113㎡A 128가구 △113㎡B 28가구 △159㎡A 2가구 △159㎡B 1가구로 구성된다.

경부고속도로 천안IC, 1번국도, 천안대로 등을 통해 천안 및 수도권, 광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천안 종합고속버스터미널과 천안터미널이 인접하고, 수도권 전철 1호선 두정역을 이용할 수 있다. 천안-당진 고속도로(예정)와 천안-평택 고속도로(예정)도 개통할 예정이다.

인근에 자립형 사립고인 북일고가 있고, 북일여고와 천안신부초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단국대·호서대·백석대 등 대학교도 가깝다.

포레나 천안 신부는 두정동 및 신부동의 편의시설




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생활권에 들어선다. 반경 3km 이내에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 쇼핑시설과 단국대병원 등이 있다. 메가박스와 CGV 영화관 등도 가깝다.

단지 옆에 어린이공원(예정)이 조성되고, 인근 도솔광장에는 야외공연장·인공암벽장·반려견 놀이터 등이 갖춰져 있다.

청약은 8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해당지역, 4일 기타지역 1순위, 5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는 11일 발표한다. 정당계약 기간은 23~27일까지다. 입주는 2023년 12월 예정이다.

우리 딸을 토닥여줄 엄마의 그림 편지


『너 이 그림 본 적 있니?』



엄마의 따뜻한 편지를 받고 싶은 딸들에게
누군가의 딸이었던 엄마들에게
모두가 한 편의 작품 같은 우리들에게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던가. 이 세상을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지혜를 그림 속 이야기를 통해 배운다. 이 책을 읽으며 이 세상의 많은 '느루'들이 엄마의 따뜻하고 현실적인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 김영훈(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너 이 그림 본 적 있니? | 안노라 지음 | 18,000원 | 320쪽

도서출판 해토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7길 84 영화빌딩 전화 02-325-5676 팩스 02-333-5980 전국 모든 서점에서 구매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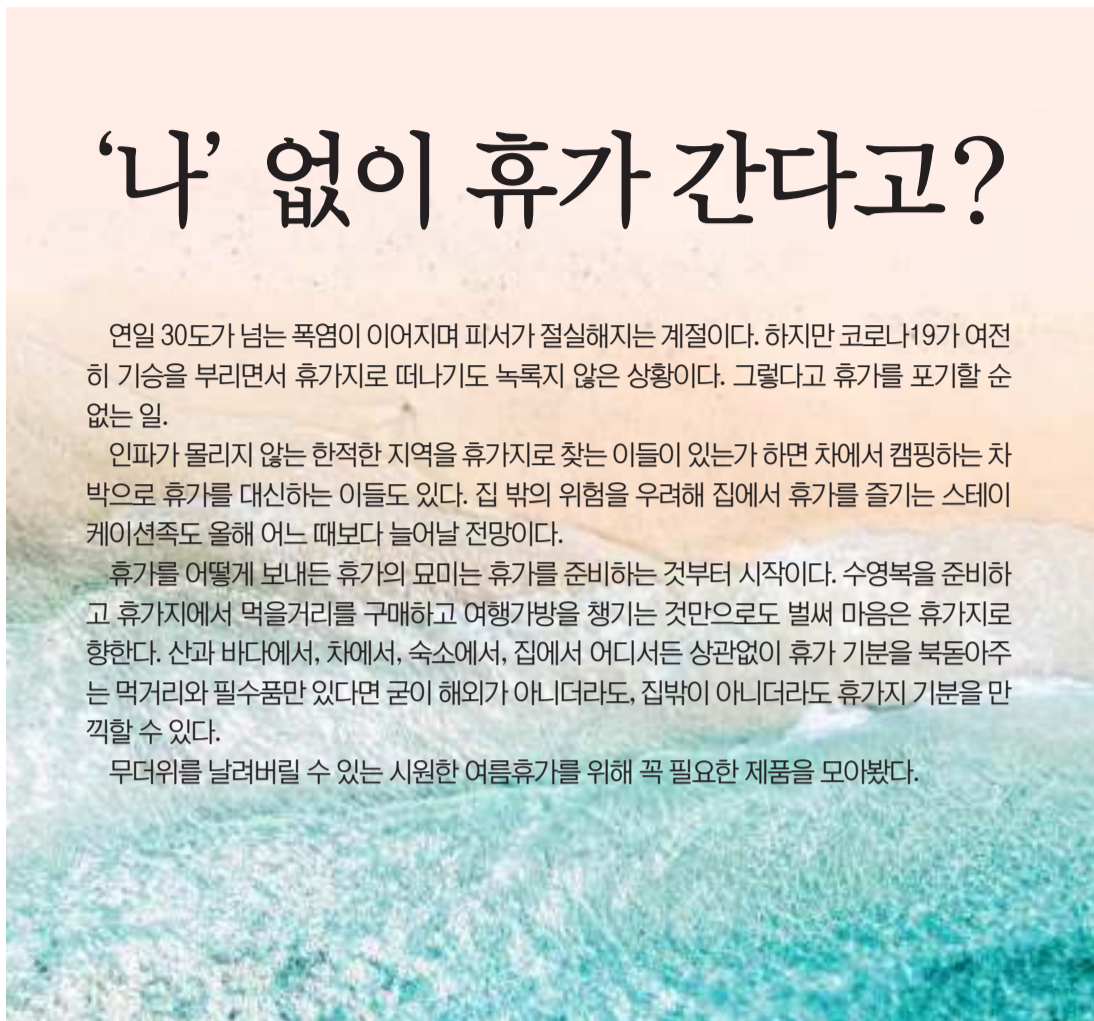
‘나’ 없이 휴가 간다고?

연일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며 피서가 절실해지는 계절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휴가지로 떠나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휴가를 포기할 순 없는 일.

인파가 몰리지 않는 한적한 지역을 휴가지로 찾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차에서 캠핑하는 차박으로 휴가를 대신하는 이들도 있다. 집 밖의 위험을 우려해 집에서 휴가를 즐기는 스테이케이션족도 올해 어느 때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휴가를 어떻게 보내든 휴가의 요미는 휴가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수영복을 준비하고 휴가지에서 먹을거리를 구매하고 여행가방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벌써 마음은 휴가지로 향한다. 산과 바다에서, 차에서, 숙소에서, 집에서 어디서든 상관없이 휴가 기분을 북돋아주는 먹거리와 필수품만 있다면 굳이 해외가 아니더라도, 집밖이 아니더라도 휴가지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시원한 여름휴가를 위해 꼭 필요한 제품을 모아봤다.



간편식 방송 늘리고 집콕 요리 특별 편성

롯데홈쇼핑 || HMR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집밥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정 간편식(HMR)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빠르게 변화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식품 전문 프로그램을 신규 론칭하고, 가정간편식 판매를 확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집밥의 여왕’으로 불리는 방송인 김나운이 진행하는 ‘김나운의 요리조리’는 고품질의 가정간편식 등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이는 롯데홈쇼핑 대표 식품 프로그램이다. 2019년 첫 선을 보인 이후 김나운이 상품 기획부터 재료 선정까지 직접 참여한 총 30여 종의 간편식을 주로 소개하며, 현재까지 주문수량 90만 세트, 주문금액 520억 원 이상을 달성했다.

‘김나운의 요리조리’는 론칭 2주년을 맞아 7월 한 달 동안 역대 인기 상품을 집중 편성하고, 경품 및 적립금 제공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14일 손질문어와 돈까스, 갈비탕 등 인기 가정간편식을 판매한 결과 60분 동안 주문수량 4500세트에 26억원의 주문금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3월에는 유명 레스토랑의 인기 메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테이스티:맛(Tasty:맛)’을 선보였다. 최현석과 여경래, 미카엘 등 셰프들과 협업해 그들이 직접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인기 메뉴를 소개한다. 론칭 이후 4개월동안 7만 세트 이상 판매, 주문금액만 42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

유행주 롯데홈쇼핑 상품본부장은 “코로나19로 집콕족이 늘면서 가정간편식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급증함에 따라 유명 셰프 협업 등 고품질의 가정간편식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형식의 식품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객 니즈를 충족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1가지 아이스 디저트로 홈카페 즐겨

SPC삼립 || 카페스노우

SPC삼립의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 ‘카페스노우’가 여름을 맞아 아이스 디저트 11종을 새롭게 내놨다.

아이스 디저트 신제품은 베이커리 전문점이나 카페에서 즐길 수 있는 디저트를 슈퍼나마트에서 구매해 집에서 맛볼 수 있는 홈카페 콘셉트로, 온 가족이 함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SPC삼립은 프랑스 유명 삽화 작가 ‘마리 아세나(Marie Assenat)’와 협업을 통해 감각적인 일러스트 패키지를 입힌 ‘진한 초코부스케익(홀케익)’, ‘스노우플레인(플레인, 초코, 딸기)’, ‘조각케익(뉴욕치즈, 스위트고구마, 초코타미슈)’ 등을 선보였다.

210도 고온에서 구워 윗면은 스모키하게 그을리고 속은 촉촉한 크림치즈를 느낄 수 있는 ‘바스크 치즈 케익’과 부드럽고 폭신한 카스텔라 빵 속에 달콤한 생크림을 넣은 ‘생크림 카스텔라’도 판매한다. 미국 치즈 브랜드 ‘크래프트’ 크림치즈를 사용해 진한 크림치즈 풍미가 일품인 ‘크래프트 크림치즈 슈’와 ‘크래프트 크림치즈 케익’까지 다양한 맛과 형태를 선보



인다. 카페스노우 아이스 디저트는 전국 이마트, 김스클럽, 슈퍼마켓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SPC삼립 마케팅 관계자는 “최근 홈카페 디저트에 대한 고객 니즈가 커지고 SNS 인증샷 붐이 확산됨에 따라 홈디저트 콘셉트를 반영한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라며 “올 여름 시즌을 겨냥해 차별화된 아이스 디저트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카페스노우’는 베이커리와 카페에서만 즐길 수 있던 프리미엄 디저트를 가까운 편의점, 할인마트에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디저트 브랜드로 현재 50여종의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컵밥에 파채양념... 캠핑 상차림 간편하게

오뚜기 || 가정간편식·소스

오뚜기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족을 공략하기 위한 가정간편식(HMR) 및 간편소스를 준비했다.

오뚜기는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물요리를 간단히 조리만으로 완성할 수 있는 ‘지역식 탕·국·찌개’ HMR 제품을 선보여 이목을 끌었다. ‘의정부식 부대찌개’, ‘부산식 돼지국밥 김탕’ 등 총 11종으로 구성된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상온에서 보관과 휴대가 용이한 제품이다.

아침 식사 대응으로 인기가 높은 ‘컵밥’도 캠핑족들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오뚜기는 현재 덮밥류, 비빔밥류, 전골밥류, 찌개밥, 국밥 등 총 26종의 제품 라인업을 갖췄다. ‘오뚜기 컵밥’은 매뉴얼 고유의 맛을 강화하고, 큼직한 건더기를 듬뿍 넣었다.

최근에는 컵밥에 들어가는 밥의 양이 적어 아쉽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업계 최초로 컵밥 전 제품의 밥 양을 20% 늘렸으며, 내용물이 손에 묻지 않도록 기존 제품보다 길어진 ‘슬라이드 스푼’을 동봉해 취식 편의성을 높였다.

캠핑의 백미인 바비큐에 곁들이기 좋은 이색 소스



류도 각광받고 있다. 오뚜기의 ‘삼겹살 제주식 멜짬소스’, ‘삼겹살 양파절임 소스’ 등 고기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제품을 출시해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바로 무쳐먹는 파채양념’은 소용량 파우치 형태로 출시돼 캠핑 등 야외 활동 시 휴대하기 편리하다.

오뚜기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독립된 공간에서 캠핑을 즐기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라며 “늘어나는 캠핑 수요에 맞춰 맛과 편의성을 겸비한 제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가지 색깔 마시멜로가 먹는 재미 더해

동서식품 || 오레오 오즈

동서식품은 시리얼 브랜드 ‘포스트(Post)’의 대표 제품인 ‘오레오 오즈’를 선보였다.

오레오 오즈는 오레오 쿠키와 비슷한 맛의 오즈링과 부드러운 마시멜로의 조화가 돋보이는 시리얼이다. 오즈링의 바삭한 식감과 폭신한 마시멜로의 맛있는 조합은 소비자들에게 ‘먹는 경험’을 넘어 ‘먹는 재미’를 선사한다.

동서식품은 오레오 오즈의 인기에 힘입어 ‘포스트 오즈’ 시리얼 시리즈로 △오레오 오즈 오색멜로 △오레오 오즈 레드 △오레오 하니 오즈 등 다양한 제품을 함께 선보이고 있다. 이달 출시한 ‘오레오 오즈 오색멜로’는 달콤하고 바삭한 초코맛 시리얼 ‘오즈링’에 5가지 색의 마시멜로를 더했다.

‘오레오 오즈 레드’는 상큼한 딸기의 풍미를 더한 새로운 유형의 시리얼이다. 딸기 과즙이 들어있는 레드 슈가비츠가 콕콕 박혀있는 달콤한 초코 쿠키 오즈링에 바삭한 식감의 딸기향 캔디 타입 마시멜로가 함께 담겨있어 상큼한 맛과 향은 물론 재미있는 식감과

보는 즐거움까지 선사한다.

‘하니오즈’는 오곡과 풍부한 식이섬유, 아카시아 벌꿀이 조화를 이뤄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은 시리얼이다. 치커리에서 추출한 식이섬유와 63가지의 품질검사를 거친 동서벌꿀이 함유되어 있어 더욱 달콤하게 즐길 수 있다.

동서식품 김인성 마케팅 매니저는 “오레오 오즈는 달콤한 오즈링과 부드러운 마시멜로의 풍미가 어우러져 어린이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시리얼”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맛과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시리얼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개 라벨도 없었다 ‘환경 살리는 생수’

롯데칠성음료 || 아이시스 8.0

롯데칠성음료의 ‘아이시스 8.0’이 국내 생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아이시스8.0은 제품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pH 8.0의 약알칼리성 천연 광천수다. 알칼리성 미네랄도 균형감 있게 잡혀있어 목 넘김도 부드럽다.

특히 롯데칠성음료는 아이시스8.0의 브랜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다양한 제품군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1월 국내 생수 브랜드 최초로 페트병 몸체에 라벨을 없앤 ‘아이시스 8.0 ECO’ 1.5 l 제품을 선보인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500ml, 2 l 제품을 추가로 출시해 국내 무라벨 생수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올해 2월에는 묽음 포장용으로 생산되는 아이시스 ECO(1.5 l, 2 l 총 2종)의 페트병 마개에 부착된 라벨을 없앴다. 수원지, 무기물 함량 등이 표기된 무라벨생수 마개의 라벨은 기존에도 소비자가 제품 음용 시 자연스럽게 제거돼 분리배출이 쉬웠지만 이마저도 없애 비닐 폐기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롯데칠성음료는 묽음 포장재 디자인도 새단장하고 브랜드 차별화에 나섰다. 소비자가 무라벨생수임에도 아이시스 브랜드를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상징색인 분홍색 및 파란색을 주 컬러로 활용하고 로고도 크게 노출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지난해 1월에 선보인 아이시스8.0 ECO를 비롯해 친환경을 위한 다양한 포장재 개선 활동에 앞장서며 친환경 생수 브랜드로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독자 배양기술로 장내 생존율 높인 유산균

hy || 아쿠르트 라이트

여름철에는 장건강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hy의 국내 최초 발효유 '아쿠르트 라이트(이하 아쿠르트)'는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여름철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

아쿠르트 라이트가 프로바이오틱스 인증을 받으면서 hy가 보유한 액상형 프로바이오틱스는 기존 3종에서 4종으로 늘어났다. 인증 제품에는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함께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을 표시할 수 있다.

1971년 8월 선보인 아쿠르트는 올해로 출시 50주년 맞는다. 현재까지 누계 판매량은 500억개에 이른다. 국민 1인당 1000병 가까이 마신 셈이다. 국내 단일 브랜드 음료 중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기도 하다.

이 제품에는 특히 프로바이오틱스 2종(△HY2782 △HY7712)이 함유돼 있다. HY2782는 hy만의 독자적 장기배양기술을 적용해 장내 생존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김일근 hy 유제품 CM팀장은 "아쿠르트는 이번 식약처 인증을 통해 단순히 건강음료나 식후 디저트가 아닌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로 인정 받았다"며



"프로바이오틱스는 무엇보다 매일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들이 아쿠르트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hy는 2021년 2월 △아쿠르트 프리미엄 라이트 △거꾸로 먹는 아쿠르트 △멀티비타프로바이오틱스 등 액상 프로바이오틱스 3종에 대한 식약처 인증을 완료했다.

자체 판매량 데이터 분석 결과 올해 액상 3종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22.8% 증가했다. 기능성 문구와 건기식 마크 표기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인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잘게 쪼개 단백질, 중·노년 소화·흡수 도움

매일유업 || 셀렉스 코어프로틴 프로

매일유업은 해외 시장에서 근육 건강이 고령화 사회 핵심 이슈로 대두되는 점을 파악하고 선도적으로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2014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평창군 보건의로 원과 함께 '평창 코호트연구'를 진행했고, 이를 기반으로 2018년 근감소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기능성 소재 개발 등을 연구하는 '매일스코페니아연구소'를 설립했다.

2021년 현재 누적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한 메가브랜드 '셀렉스'는 이렇게 탄생했다.

매일유업은 50여 년간 축적해온 영양식 설계 노하우와 근육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더해 국내 단백질 성인영양식 시장을 개척했다.

매일유업의 연구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중·노년층이 단백질을 단순히 섭취하지만 해서는 필요량만큼 흡수하지 못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위산과 펩신 분비에 있었다. 대한노인학회에서는 매일 몸무게 1kg당 1.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위산과 펩신이 감소해 소화능력이 떨어지고 섭취한 단백질을 흡수하기 힘들어진다.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찾기 위해 매일유업은 아



기들의 소화를 돕기 위해 분유에 사용하던 '저분자 가수분해 단백질'에 주목했다. 이는 분자량이 큰 단백질을 분해해 작게 쪼개 단백질이다. 분자량이 작아 소화·흡수가 편한 만큼 노년층을 위한 최적의 원료로 평가된다.

4월 매일유업은 잘게 쪼개 소화가 편한 저분자 가수분해 단백질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셀렉스 코어프로틴 프로'를 선보였다. 셀렉스 코어프로틴 프로에 사용된 단백질 원료는 덴마크 1등 유제품업체 알라푸드(Arla Foods)에서 엄선한, 자연의 풀을 먹고 자란 소에서 얻은 저분자 가수분해 단백질이다.

한 번만 발라도 10시간 동안 자외선 차단 효과

애경산업 || 롱 프로텍션 에센스 선 팩트

애경산업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 'AGE 20's' (에이지투웨니스)는 무더운 여름철 자외선 차단은 물론 냉온풍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롱 프로텍션 에센스 선 팩트' (LONG PROTECTION ESSENCE SUN PACT)를 선보였다.

AGE 20's 롱 프로텍션 에센스 선 팩트는 한번만 발라도 10시간 동안 자외선 차단에 효과적인 선 팩트다.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냉온풍으로부터 피부 보호에 도움을 줘 열풍 케어에 효과적인 것이 특징이

다. 실제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1회 사용으로도 자외선 10시간 차단 및 냉온풍에 의한 피부 자극 예방 효과를 입증 받았다.

AGE 20's 롱 프로텍션 에센스 선 팩트는 에센스 커버 팩트의 핵심 기술인 '에센스 포켓 기술'을 적용한 '아쿠아 시카에센스'를 60% 함유해 자극받은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준다. 또한 애경산업의 독자 특허 성분인 'AK세라마이드'를 처방해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

AGE 20's 롱 프로텍션 에센스 선 팩트의 라페 무늬는 피지 흡착 파우더를 함유해 산뜻한 피부를 유지해주는 '화이트라페'와 울긋불긋한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커버해주는 '민트라페'를 적용

해 자연스러운 톤업 효과는 물론 화사한 피부 표현을 도와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AGE 20's 롱 프로텍션 에센스 선 팩트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SPF50+ /PA++++)에 효과가 있는 3중 기능성 화장품으로 백탁현상이 적은 유기자차와 피부 자극이 적은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의 장점을 담은 혼합자차 제품이다.

특히 피부에 걱정되는 10가지 성분을 함유하지 않았으며 민감성피부자극시험을 완료 받아 민감한 피부도 사용 가능하다.

AGE 20's 롱 프로텍션 에센스 선 팩트는 올리브영, AK뷰티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흡수·지속력 개선 '각화형 무좀'에 탁월

동아제약 || 터비뉴겔

여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무좀'이다. 극심한 가려움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여름철 무좀 환자들 늘고 있다.

무좀은 백선이라는 곰팡이균의 한 종류로 발생하는 피부질환으로 손, 발, 손발톱, 얼굴, 머리 등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여름에는 특히 발이 취약 지대다.

곰팡이는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는데 발가락 사이는 비좁고 습한 데다 여름에는 땀도 쉽게 난다. 또 통풍이 잘 안되는 답답한 신발까지 더해지면 무좀이 쉽게 생길 수 있다. 특히 더운 여름에는 슬리퍼나 샌들 등 간편한 신발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발을 노출할 일이 많아져 무좀 환자라면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좀 중에서 발 뒤꿈치에 하얀 각질이 일어나고 피부가 갈라지는 경우는 '각화형 무좀'이다. 가려움증 같은 자각증상이 없고 일반 각질과 유사해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각화형 무좀을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동아제약의 '터비뉴겔'은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시간형 무좀'이나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는 '수포형 무좀'에도 효능이 있지만 '각화형 무좀'에 특히 탁월하다.

터비뉴겔은 트랜스젤 테크(Trans-gel Tech)라는 신기술을 적용했다. 도포 시 필름막을 형성해 약물 흡수력과 지속력을 기존 자사 제품 대비 약 50배 개선했다. 발바닥 전체 각질이 두꺼워져 약물이 침투하기 어려운 각화형 무좀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보통 발바닥이나 발에 무좀약을 바르면 걸을 때마다 끈적거리는 등 불편함을 겪는다. 하지만 터비뉴겔은 겔 타입으로 겔 타입으로 흡수가 빨라 약 2-3분 내 건조돼 산뜻한 사용감을 선사한다.

고함량 메가비타민으로 여름철 피로 해소

한미약품 || 비엘비정

몸과 마음이 지치는 무더운 여름, 한미약품의 고함량 활성형 메가비타민 '비엘비정'이 주목받고 있다.

비엘비정은 육체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고함량 활성형 벤포티아민 110mg와 체내 에너지 합성에 도움을 주는 리보플라빈 100mg, 탄수화물 대사에 도움을 주는 피리독신염산염이 100mg가 함유됐다.

이 외에도 비타민C와 코엔자임Q10, 비타민D, 아연, 셀레늄 등 19종의 영양성분이 함유돼 불균형한 생활습관 속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균형 있는 영양 공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복용 편의성을 높여 하루 한 알로 육체피로와 체력 저하, 근육·관절·신경통 등을 관리할 수 있고, 만 8세 이상 연령층에서 모두 복용이 가능하다. 비엘비정은 '더 나은 비타민, 더 나은 하루(Better Life with Vitamin)'의 앞 글자를 따 지은 이름으로, 만성피로를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하루 한 알로 활기찬 하루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늘고 있다"라며 "비엘비정은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수 영양 성분을 하루 한 알로 균형있게 복용할 수 있는 현대인 맞춤 비타민"이라고 말했다.

이 제품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의약품 영업마케팅 전문회사 온라인팜을 통해 전국 약국에 유통된다.

신한 ESG 바로 쓰기 #3



꿈 있는
큰 회사에
 투자하는 게 금융이지

대한민국의 내일을
더 멀리까지 바라보고

꿈 있는 스타트업을
꿈 같은 유니콘으로 키워내기 위해

신한이 금융에 ESG를 더합니다.

**Hope Together.
Grow Together.**



신한금융그룹 ESG	친환경 금융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탄소제로사회 만들기	포용 금융 균형 있는 사회를 위한 금융 약자 지원
	혁신 금융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스타트업 지원	희망 금융 다름이 존중 받는 세상을 위한 사회 다양성 추구

“2030 마음 얻기 ‘깊은 이해’에서 시작해야”

‘만 30세’ 전용기 민주당 의원 ‘2030의 변심’ 진단

민주화 투쟁한 586, 시대교체 요구하는 ‘MZ’ 대변 못 해 그동안 청년 위한 정책 편 건 결국 민주당, 지지 돌아올 것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20·30세대 잡기에 혈안이다. 문재인 정부 주요 지지층이던 20·30세대가 4·7 재보궐 선거에서 돌아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30대를 당 대표로 선출하며 지지층으로 안착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방안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만 30세 국회의원 전용기 의원은 대선에서 민주당이 20·30세대의 마음을 되찾을 거라고 자신했다.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실용주의’에 그들이 호응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지사는 그간 실용적인 정책, 특히 적극 행정을 잘 활용해왔다”며 계급 불법영업장 정리와 신진지를 상대로 한 코로나19 단속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 같은 실용적인 면이 20·30세대에 와닿을 것이다. 그들이 기본 좋게 받아들일 정책은 정의가 아닌 것에 강력히 철위를 가하고 바로잡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강원랜드 부정채용자 전원을 해고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던 게 한 예”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아편에서 제기하는 여성가족

부·통일부 폐지는 혐오 정치의 온상이다. 잠깐 관심은 끌어도 장기적 지지를 얻을 수는 없다”며 “아편 대선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은 공약이던 최저임금 인상에 강하게 지지 운동을 펼쳐 앞뒤가 다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우리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서 보여준 모습을 생각하면 공정을 말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 20·30세대가 지지할 만한 후보는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에 관해선 “이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반복되는 걸 보면 합리적 보수로 갈 수 있었는데 기득권에 짓밟혔다고 본다”며 “능력주의 주장도 출발선이 다르다. 사회적 문제의식에 말 못 해왔던 집단이기주의를 끄집어낸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20·30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한 과제로 ‘깊은 이해’를 꼽았다. 그는 “586세대는 20·30세대일 때는 독재를 용인하던 시대에 민주화 투쟁을 했고, 현 MZ세대는 민주화가 된 상황에서 시대교체를 요구한다. 586세대는 MZ세대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자식을 가르치듯 20·30세대에게 접근하는 순간 이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미래를 버리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030세대가 결국은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이란 기자 photoeran@”

꼴이 된다. 청년세대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예로는 “예전에는 육아를 부모에게 맡기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돈 없어서 아이를 못 키우는 세상을 안 만들어야지, 부모가 되려는 세대의 노력에만 내맡겨선 안 된다”며 “안보관도 바로잡아야 한다. 천안함 피격에 대해 좌초설을 이야기하며 재조사 요구하는 건 군대를 다녀온 20·30세대 입장에서 좋게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20·30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건 민주당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실제로 청년을 위한 지원을 해온 건 문재인 정부다. 장병 월급 인상과 처우 개선을 했고, 고교 무상교육 등 포용정책을 많이 폈다”며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이 집권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실업 문제에 대해 중동으로 가라고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젊은이들을 독일에 보냈던 그 향수에 젖어 청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미룰 수 있고 잘못은 비판해야겠지만 5년, 10년 뒤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당이 어디인지 잘 판단해 민주당을 지지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도전 영업점 변화·혁신에 앞장서야”

윤종원 기업은행장 전략회의

윤종원(사진) 기업은행장이 “디지털 전환, ESG경영 등 IBK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도전에 직면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영업점장이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 줄 것”이라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국 영업점장 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주요 전략방향과 우수성과 사례를 공유했다고 22일 밝혔다.

윤 행장은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으로 △디지털전환 가속화와 혁신금융 성과 창출 △ESG 경쟁력 확보와 윤리경영 실천 △위기극복을 위한 여신지원 및 건전성 관리 △바른경영 실천 등을 제시했다.

윤 행장은 “출시를 앞둔 ‘금융주치의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진단과 처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에 맞춰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도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SG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업현장에서 ESG 활동을 실천하고 윤리경영을 준수해 ‘금융사고·부패 제로(Zero)’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경영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여신지원과 금리인상 등에 취약한 기업군에 대한 ‘신용위험 특별점검’ 등 선제적인 관리도 당부했다.

바른경영 실천과 관련해서는 성과와 실력에 기반한 인사를 체계화하는 ‘인사스코어링 시스템’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른 내점고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실시 중인 ‘신(新)영업점 탐제’를 지점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내가 살아왔던 모든 생애가 바로 임종계가 아닌가”

월주 스님 열반...조계종 총무원장 세 차례 맡으며 불교 대사회운동 헌신

“오직 내가 살아왔던 모든 생애가 바로 임종계(臨終偈)가 아닌가.”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月珠·사진) 스님이 22일 열반했다. 법랍 68년, 세수 87세.

월주스님은 오전 9시 45분께 자신이 조실(祖室, 사찰 최고 어른)로 있는 전북 김제의 금산사에서 입적했다. 고인은 올해 폐렴 등으로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오전 금산사에서 숨을 거뒀다.

스님은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하늘과 땅이 본래 크게 비어 있으니 일체가 또한 부처이구나. 오직 내가 살아왔던 모든 생애가 바로 임종계가 아닌가. 할!”이라고 임종계를 남겼다. 임종계는 고승

80년대 10·27법란으로 물러났다 1994년 다시 취임 종단개혁 앞장 위안부 할머니 ‘나눔의 집’ 설립 퇴임 후에도 사회활동 적극 참여

이 죽음을 앞두고 삶과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글이나 말로 남긴 것을 뜻한다.

1935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스님은 1954년과 1956년 금오스님을 계사로 각각 사미계와 비구계를 받았다. 그는 1961년부터 10여 년간 금산사 주지를 맡아 불교 평화운동에 나섰다. 30대 때 조계종 개운사 주지, 총무원 교무·총무 부장, 중앙종회의장 등 종단의 주요 소

임을 맡아 활동했다.

고인은 신군부가 집권한 1980년 제17대 총무원장에 선출됐으나 ‘10·27 법란’ 때 강제 연행됐고, 이후 총무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1994년에 제28대 총무원장으로 다시 취임하면서 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공동대표겸 이사장, 실업극복국민공동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조계종 개혁회의에 참여하며 종단 개혁도 이끌었다. 이후 총무원장 선거에서 재선되면서 다방면에서 불교의 대사회 운동을 추진했고, 이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 집’도 설립했다.

스님은 총무원장 퇴임 후에도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2003년



국제개발협력 NGO인 지구촌공생회를 세워 이사장으로 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세계 각지에서 식수, 교육, 지역개발사업을 폈다. 고인의 장례는 5일간 금산사에서 조계종 종단장으로 치러진다. 영결식과 다비식은 26일로 예정돼 있다. 문선영 기자 moon@

잡스 첫 입사지원서 NFT경매에 나왔다

실물사본과 함께...가액비교 관심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처음 작성한 입사지원서(사진)가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한 토큰)로 발행돼 경매에 나왔다.



NFT 마켓 라리블(Rarible)은 21일(현지시간)부터 일주일간 스티브 잡스가 1973년 첫 직장을 구하기 위해 작성했던 입사지원서를 NFT로 발행해 사본과 동시에 경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입사 지원서는 윈소프 벤처스(Winthorpe Ventures)의 올리 조쉬(Olly Joshi)가 3월 22만 달러(약 2억5399만 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조쉬는 “잡스의 입사지원서의 물리적인 버전과 NFT를 동시에 경매에 부쳐 어느 버전이 더 많은 입찰자, 더 높은 입찰가, 그리고 어느 속도로 끌어들이지 테스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매는 수집가들이 물리적인 것과 디지털 가치 가운데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는지 비교해 볼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경매는 21일부터 7일간 진행되며, 이 기간 실물 버전은 스누파리는 경매 앱에서 실행되는 조시의 웹사이트를 통해 입찰할 수 있다. 김재영 기자 maccam@

서울관광재단 신입 대표이사에 길기연 前 코레일관광개발 대표

서울시는 서울관광재단 신입 대표이사에 길기연 전 코레일관광개발 대표, 신입 이사에 변보경 앰배서더 호텔그룹 부회장 등 신입 임원 6명을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임기는 26일부터 3년이다.

길기연 신입 대표는 경기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관광학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2년부터 1998년까지 하니문여행사를 경영했다. 이후 코레일관광개발대표,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지내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서울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박은평 기자 pepe@



인사

-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총괄과장 최성규 △“정책리더양성과정 마정경 △경남청사관리소장 최우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1과장 박문희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 파견 김우철
- ◆환경부 ◇과장급 전보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장 박소영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팀장 장성현 △4대강조사평가단 개방팀장 정의석 △“모니터링팀장 원지영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이지원
- ◆한국전력 ◇처장급 전보 △요금기획처장 신경효 △자재검사처장 이정렬
- ◆신용보증기금 <전보> ◇본부장 △경기영업본부 이대성 △대구경북영업본부 김성현 △부산경남영업본부 장왕순 △서

- 울동부영업본부 이성주 △인천영업본부 차재성 △자본시장영업본부 문영표 ◇부서장 △ICT전략부 김승관 △성과관리부 최중천 △신용보험부 이인수
- ◆Sh수협은행 ◇본부장 신규 선임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이태욱 ◇부장 승진 △자금부 김창용 △IT개발부 최창주 △압구정금융센터 조동호 △역삼동지점 윤두용 ◇부서장 전보 △인사총무부장 윤두용 △감사부장 박경민 △IT개발부장 김혜근 △강원지역금융본부장 위종환 △경남지역 금융본부장 김문수 △제주지역금융본부장 전용찬
- ◆해니금융투자 ◇임원 선임 [부사장] △김기석 WM그룹장 [상무] △박종무 경영리그룹장 △한상영 신탁사업본부장 △최영수 PE사업본부장 △신명철 인프라 금융본부장 △성평기 소비자보호총괄(CCO) 및 소비자리스크관리총괄(CCRO) △황승택 리서치센터장 ◇본부장 선임

- △법인영업본부장 정승문 △디지털사업본부장 엄준기 △BK추진본부장 최원영
- ◆세계일보 △논설위원 박병진 원재연
- 부음
- ▲윤국병(전 한국일보 사장) 씨 별세, 정충영 씨 남편상, 윤정원(개인사업)·해연(한국화이자제약 전무) 씨 부친상 = 22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4일 오전 8시30분, 02-2258-5953
- ▲신영철(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차장) 씨 별세, 백선경(주부) 씨 남편상 = 22일,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장례식장, 발인 24일, 02-431-4400
- ▲이병태(전 국방부장관) 씨 별세, 이재영·효정 씨 부친상, 이준용(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 씨 장인상 = 2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4일,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02-3010-2000

윤기영의 미래토크



한국의국어대 경영학부 미래학 겸임교수

농수산업, 건축, 제조부터 건물 구조, 도시 위치 및 일상생활까지 탈탄소 경제로 이행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소비량과 세계총생산은 매우 강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단기간 내에 에너지 문제를 기술로만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탄소 제로는 에너지 소비 감소를 의미하며, 에너지 소비 감소는 세계총생산의 동반 감소를 뜻한다.

유럽연합(EU)은 물론 미국까지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Adjustment Tax)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탄소국경조정세는 간단히 탄소국경세라고 한다. 탄소국경세는 탄소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다. 탄소세가 낮거나 느슨한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탄소국경세를 부과하여, 탄소세 회피를 막겠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글로벌 차원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내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가졌으므로, 탄소국경세는 상당한 힘을 받아 강행될 것이다.

탄소국경세의 부과는 중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 많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산화탄소 1톤당 30유로인 경우 2026년부터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탄소국경세가 1조원에 달한다.

2020년 여름 시베리아 일부 지역이 섭씨 30도를 넘었다. 2021년 캐나다 지역은 40도 후반에 달했다. '기후가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19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지역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예상보

다 빨랐다. 기후온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 식량 문제부터 인간의 거주지역 축소, 새로운 전염병 출현, 환경난민까지 그 영향은 막대하다. 그 결과 탄소세는 급등할 것이며, 석탄과 같은 더티 에너지(dirty energy)의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진행될 것이다. 이미 탄소세를 톤당 100달러로 올리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후 위기를 위기관리나 극단적 사건 관리의 측면에서 보아야 할 이유다.

많은 미래학자는 코로나19 이후에 더 큰 쓰나미인 기후위기가 몰려올 것으로 보았다. 2015년부터 신종 감염병을 경고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감염병보다 기후위기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말한다. 일부 기후연구자는 2050 탄소중립에 대해 한기한 소리라 질타했다.

농수산업, 건축, 제조부터 건물 구조, 도시 위치 및 일상생활까지 탈탄소 경제로 이행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소비량과 세계총생산(World Gross Product)은 매우 강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단기간 내에 에너지 문제를 기술로만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탄소 제로는

에너지 소비 감소를 의미하며, 에너지 소비 감소는 세계총생산의 동반 감소를 뜻한다. 세계총생산 감소 없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기술에 투자를 하고 이들 에너지 기술을 도입하려 하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기후온난화와 에너지기술 개발·적용 간의 속도 경쟁에 인류는 상당히 큰 패를 걸고 있는 셈이다. 궁극적으로 인류가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기는 하나, 그 이행기에는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기후온난화의 속도가 기술 개발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상당 기간 세계총생산이 정체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이에 대비한 산업체계, 경제체계, 생활방식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위험과 불확실성이 이윤의 원천'이다. 제철 기업은 역발상으로 에너지 절약 기술을 개발하고, 인근지역에 열 및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허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각 산업계는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강화하고, 전체 공정에서 에너지 절약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순환경제로 에너지를 절감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효율화는 새로운 사업이 될 것이

다. 정부는 신북방정책 강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꾀해야 한다. 북한과의 경제협력도 이와 연계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도시는 교통 등으로 에너지 비효율성이 있는데, 열돔 현상이 빈발하면 그 비효율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도시 분산과 원격 근무 등을 탄소 제로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개인의 일상생활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절제와 자제가 미덕이 되어야 한다. 자연 생태계와의 공존, 공동체 유지, 내적 성찰, 경제적 발전과 같은 기준 가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사타아 나텔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는 코로나19로 "2년이 걸릴 디지털 전환이 2개월 만에 이뤄졌다"고 했다. 2020년 4월 당시 교육부 학교혁신 지원실장이었던 김성근은 코로나19로 인해 "준비되지 않은 채 미래가 훌쩍 왔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의 속도로 보아 우리는 5년에서 10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말을 할 가능성이 크다.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머뭇거리며 몰려오는 것을 보며, '역사가 희극으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정대영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유례 없는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많은 이들의 근무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재택근무의 활성화이다. 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시작되었던 재택근무가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물리적으로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종도 있으나, 사무직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전면 또는 부분 재택근무로 전환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시장의 가장 큰 질문은 "재택근무가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상승시키는가"이다.

재택근무는 개인의 업무 효율과 집중도를 상당 부분 상승시킨다. 업무를 빠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나머지 시간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에게는 대면근무를 할 때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유인(in-

centive)이 있다. 또한 재택을 한다는 것 자체를 어느 정도의 보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업무를 더 열심히 하기도 한다.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효율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이다.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 또는 보상을 받으면 더 높은 생산성을 낸다는 이론에 따르면, 재택의 자유나 출퇴근이 없는 상황 자체를 보상으로 느끼고,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대면근무를 하는 경우 많은 노동자들이 출근을 하고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노동을 하는 것이고 자신의 의무를 어느 정도 다하는 것이라 인식하거나, 휴식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곤 한다. 이에 더해 물리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직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때문에 의도적으로 태업을 하고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대면근무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의사소통의 효율성이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목소리만 듣는 것보다 얼굴을 보고 바다 랭귀지까지 곁들여 대화를 하는 것이 의사소통에 있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때문에 한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는 것이 업무나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곤 한다. 또한 한곳에 모여 있으면 서로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협업의 관계에서는 서로에게 자극이 되어 주기도 하고, 관리자에게는 부하 직원들의 업무 태도를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IT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대면근무의 장점 역시 비대면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게 되었다. 화상 회의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상대방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화면 공유는 물론 화이트보드를 함께 사용하듯 서로의 손글씨를 쓰고 지우며 회의를 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에 가상현실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영화에나 나올 법한 '가상

대면회의'의 상용화도 조만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제나 감시의 기능도 소셜 미디어 기술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다. 협업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상용화되어 실시간으로 업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보고 받음으로써, 어느 정도의 통제와 감시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가상과 현실 사이의 장벽을 무너트리는 기술 발전 속에서, 재택근무에 대한 고민은 이제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의 범주를 넘어서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간 및 기자재 관련 비용뿐만 아니라 대면근무 관련 각종 수당(allowance) 지출 절감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근무환경에 매료되어 성과급 중심의 급여 체계로의 전환이 진행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갑자기 찾아온 재택근무의 유행이 팬데믹이 될지는 이러한 우리의 고민에 달려 있는지도 모른다.

재택근무를 대면한 노동시장의 고민

이투데이, 말투데이

☆ 울리시스 심슨 그랜트 명언 "전술은 간단하다. 적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고 가능한 한 신속히 그에게 다가가라. 최대한 그를 세게 치고 계속 나아가라."

미 남북전쟁 당시 북군 총사령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빈부격차와 인종 차별 등 극심한 사회문제에 시달렸다. 설상가상으로 정부 각료들과 그의 비서들이 뇌물을 주고받는 등 대규모 금융 스캔들이 일어나며 경제위기까지 발생했다. 그는 오늘날 사망했다. 1822-1885.

☆ 고사성어 / 불역불역(不逆不億) (상대방을)미리 짐작하지 않고, 역측하지 않는다는 뜻. 정성으로 상대를 대하고 해야한다는 의미이다. 공자(孔子)가 한 말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일까 먼저 의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믿지 않을 까 미리 역측하지 않으면서도 먼저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것이 현명한 것이다[不逆詐不億不信抑亦先覺者是賢乎]." 출전 논어(論語) 현문(憲問).

☆ 시사상식 / 빅스비(Bixby) 2017년에 공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8에 탑재된 인공지능(AI) 가상 비서를 말한다. 사용자의 명령을 문맥으로 파악해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앱을 구동할 수 있게 해준다.

☆ 신조어 / 현타 '현실 자각 타임'을 줄여 이르는 말.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뜻한다.

☆ 유머 / 부부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다 부부싸움 중 남편이 몹시 화가 나 "당장 나가 버려!"라고 소리쳤다. 아내도 화가 나서 "흥, 나가려면 못 나갈 줄 알아요!"라며 집을 나갔다가 이내 들어왔다. 남편은 "왜! 다시 들어오느냐?"고 하자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갔어요!"라고 했다. 남편이 그게 뭐냐고 묻자 아내가 한 말. "그건 바로 당신!"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지도자는 가볍게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노자(老子)는 '도덕경'에서 세상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덕목으로 '무거움'을 꼽으며 이런 말을 남겼다. 무거운 것이 가벼운 것의 근본이며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언행을 가볍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 말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위정자가 흘러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기도 하다.

노자의 말처럼 지도자에 도전하겠다는 사람이면 전보다 무거워질 필요가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좋은 예다. 대표가 되기 전만 해도 거친 발언으로 화제가 됐던 그는 최근 무거움을 겸비한 사람이 됐다. 대표 측근들은 평소보다 조심하기

기자수첩



박준상 정치경제부/joooon@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위해 노력한다고 얘기한다. 노력의 결과는 놀랍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적은 있어도 막말이나 거친 표현으로 논란이 되진 않았다.

지도자에 도전하겠다는 오호려 무거움을 잊은 사람이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시절만

해도 푹 부러지는 발언으로 인기를 끌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흔들어도 몸무게가 100kg이라 안 흔들린다" 등 무거운 발언으로 화제가 되곤 했다.

그랬던 그가 지난달 29일 정치 참여 선언 후 확 달라졌다. 100kg짜리 무거움은 사라지고 가벼운 모습만 보여줬다. '무도

한 행태', '이권 카르텔', '권력 사유화', '부패 완판' 등의 거친 단어를 사용하더니 20일 대구 방문에선 '철없는 미친 소리', '대구 아니면 민란'이라는 말로 논란이 됐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 치곤 너무나도 가벼운 언행이다.

노자는 지도자의 무거움을 강조하면서 "백성 위에 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말을 겸손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대표로 서고자 하는 윤 전 총장에게 필요한 건 '무거움'이다. 가벼우면 근본을 상실한다. 지지율은 떨어지고 경쟁자들은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 조급함이 생길 수는 있다. 그런 상황일수록 본인을 돌아보고 더 낮춰야 한다.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100kg짜리 무거움부터 되찾아야 한다.

Table with 4 columns: Department (발행·인쇄인, 편집인, 주필, 편집국장), Name (김상우, 김상철, 추창근, 김중훈), and Contact Info (주소, 대표전화, 광고문의, 구독·배달, 구독료). Includes a footer with publication details and a disclaimer.

이슈&인물

쌍용차 인수 추진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쌍용차 사라지면 車산업 위기, 회생 자신”

“쌍용자동차가 보석이라서 인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하려는 겁니다.”

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에디슨모터스 본사에서 만난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쌍용자동차 인수에 의향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질문에 “장난하면서 사업하는 거 아니다”라며 단호하게 답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줄곧 쌍용자동차 인수의사를 밝혀왔다. 수천억 원의 부채, 노조 문화 등 주변에서 쏟아내는 불편한 진실은 대수롭지 않은 듯 여겼다. 쌍용차 인수 의향서 제출 마감일은 이달 30일이다. 강 회장은 마감일 무렵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다. 다음은 강 회장과와의 일문일답.

1조~1.5조 1년 이내 모을 수 있어

-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한 이유는 “쌍용차가 이번엔 (바뀌게 되면) 7번째 주인이라고 한다. 건방진 표현일지 모르지만 쌍용차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곳이 에디슨모터스다. 우리가 인수하면 3~5년 내 흑자 회사로 만들 자신이 있다. 그런 분석 끝에 인수하려고 한다. 폭스바겐, BMW, GM 등 수많은 회사가 있다. 북경 자동차, 상하이자동차도 부상하고 있다. 세계적인 회사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어 내려고 한다.”

- 자금 마련은 어떻게

“에디슨모터스는 아직 비상장 회사다. 비상장 회사로서 자금을 모으려다 보니 한계가 있어 상장회사를 인수해서 자금을 모으라는 제안을 수용했다. 현재까지 2700억 원 정도 자금을 모았다. 그중에 400억~500억 원 자금을 부담했다. 회사에 관심이 있는 콘소, 기관 투자자, 국제적 투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모으면 1조~1조5000억 원 정도는 모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계획을 실행하는 것으로 여러 회사를 검토하다가 씨미시스코란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 유상증자 1차로 69억 원을 넣었다. 앞으로 5차례 총 348억 원을 넣으려고 한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제동이 걸린 부분이 있다. 법률 검토를 거쳐서 금융당국과 마찰이 없이 준비 중이다. 쌍용차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다. 2700억 원을 종잣돈으로 해서 기관 투자자 유치 등을 통해 1조~1조5000억 원을 모으면 그중에 상당 부분을 써서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려고 한다.”

- 계획했던 1조~1조5000억 원을 모으는 기간은

“1년 이내로 본다. 2700억 원은 이미 모았다. 추가 자금을 모으는 것은 6개월~1년 사이로 본다.”

사정해가며 인수할 생각은 없어

- 산업은행에서도 쌍용차 매각을 신중하게 접근할 텐데

“산업은행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우리에게 (쌍용차를)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된다. 사정해 가면서 인수할 생각은 전혀 없다. 쌍용차가 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중에서는 ‘새우가 고래를 삼키려고 한다’고 말한다. 고래를 삼켜서 탈이 안 나야 한다. 탈이 날 가능성이 있다면 삼키면 안 된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해 볼까 하는 것이다.”

- 쌍용차 인수자로 선정된다면 산은에 자금 요청 계획은

“어떻게서든 자금을 만들어서 인수할 능력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씨미시스코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쌍용차 인수의향서 제출 마감일인 이달 30일 무렵에 인수의향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번엔 바뀌면 일곱 번째 주인 우리가 악순환 고리 끊을 수 있어

3~5년 안에 흑자회사 만들 것

인위적 구조조정 할 생각 없어 쌍용차 내연기관 부문 경쟁력에 전동화기술 적용 시너지 낼 것

차 부품산업 생태계 갖추려면 年 생산규모 400만대 이상 돼야 국가경제 기여 사업가 되고 싶어

를 인수한 것이다. 씨미시스코를 인수한 것은 쌍용차 인수나 전기차 부품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자금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회사를 인수한 후 딱튀나 해서 돈을 빼먹으려는 게 아니다.”

- 매각 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이 낸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산 가치가 높게 나왔는데 인수 참여자로서 부담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쌍용차가 보석이 아니다. 쌍용차에는 공익채권도 7000억 원 수준이다. 인수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 쌍용차가 이대로 사라진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전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본다. 한 나라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이 자생적으로 돌아가려면 자동차 생산량이 연간 400만 대 이상은 돼야 한다. 그런데 생산량은 줄고 있다. 이상황이 계속된다면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 쌍용차는 반드시 회생시켜야 한다. 우리가 방점을 두는 것은 회사 가치는 실사와 협상을 통해서 정하면 된다.”

흑자 전까진 비용 줄이려 노력해야

- 쌍용차 자구안은 어떻게 생각은 “도움은 되겠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쌍용차가 흑자 나기 전에는 비용을 줄이려고 애를 써야 한다. 그러나 흑자가 난 후에는 사람을 더 쓰고, 공장도 더 지어야 한다. 그래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할 생각이 없다. 다만 일을 안 하고 노는 사람들, 능력의 50% 이하로 일하는 사람들은 동료, 회사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찾아내서 견여낼 것이다. 그러나 상식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잘라낼 생각 없다. 에디슨모터스를 지금까지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운영해왔다. 구조조정을 해서 사람 자른 적이 없다.”

- 고용 승계는 다 할 수 있겠나

“그게 두려워서 쌍용차를 인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인력

을 완전 가동해서 더 매출을 늘리고 지금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면서 전기차도 생산하겠다. 전기차를 해냈는데 주행거리도 짧고 전자제어 부분도 마힌드라에서 했는데 부족해서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가 참여하면 주행거리 300~350km를 400~450km, 500km로 만들 수 있다. 다만 차 가격은 고인할 부분이다.”

- 전용 전기차를 즉각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나

“당연하다. 우리는 ‘스마트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술을 갖고 있다. BMS는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해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전기차의 핵심 기술이다. LG화학에서 셀을 개발하던 연구원 3명이 4년 전 이직해 왔는데, 이들이 타사가 현재 사용하는 BMS를 개선해 ‘스마트 BMS’를 만들었다. 에디슨모터스 차량에서 화재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건 스마트 BMS가 갖춘 안전성 덕분이다.”

전용 플랫폼 전기차 준비 많이 돼있어

- 쌍용차가 개발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배터리만 얹은 형태다. 앞으로도 내연기관차 기반의 전기차가 승산이 있다고 보는가

“샤시 플랫폼을 새로 개발하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내연기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전용 플랫폼 전기차 개발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 전용 플랫폼에 맞도록 역설계해서 모터, 배터리, 전자제어 부품을 달면 6개월이면 개선할 수 있다. 현재 350km/h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도 최대 500km까지 늘릴 수 있다. 버스도 한 번 충전해 500km 넘게 가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승용차에 적용하는 건 더 쉽다. 문제는 가격 경쟁력이다. 주행거리를 150km 늘린다면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야 하고, 최소 500만 원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자동차 가격이 비싸지는 문제가 있다.”

- 앞으로의 각오는

“에디슨모터스는 전기차 부문에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 쌍용차는 내연기관차 부문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쌍용차를 인수한다면 축적된 생산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에디슨모터스가 가진 전동화 기술을 적용하면 테슬라, 폭스바겐, 도요타, GM에서 내는 차보다 더 멋진 차를 낼 자신이 있다. 우리나라 국가 경제 발전에 일조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사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치열한 사업가로 남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오지랖 넓은 결정을 한 것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유창욱 기자 woogi@

사설

국민 생명 위협 민노총 집회 용납 안된다

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842명 늘어 누적 18만4103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작년 1월 20일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지난 7일 이후 16일째 내 자릿수 증가세다.

지역발생이 1533명이고, 아덴만에 파병됐다가 집단감염으로 귀국한 청해부대 확진자 270명이 반영된 해외 유입이 309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987명(64.4%)을 차지했다. 비수도권 확진자 급증이 무엇보다 우려된다. 지역발생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이 18일(31.6%) 처음 30%대로 올라선 이후 계속 증가하면서 전국적인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음에도 아직 최악의 위기가 아니다. 2000명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도 코앞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아직 4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지금 신규 확진자는 6월 말~7월 초에 n차 전파가 이뤄진 환자로 향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 본다. 현재 방역조치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연장과, 비수도권 단계 상황이 불가피하다.

이런 와중에 민주노총이 21일 세종시에서 수백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정부의 거듭된 철회 요청도 무시했다.

이날까지 거리두기 1단계 지역이었던 세종시 집회에 500명 미만의 참가 인원을 신고한 만큼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민노총은 23일과 30일에도 강원도 원주에서 각각 1200명, 3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예고했다. 그러나 원주시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긴급히 격상하고, 집회는 4단계를 적용해 1인 시위만 가능토록 했다. 민노총 시위를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민노총이 국민 생명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대규모 집회를 밀어붙인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은 잇단 고강도 방역조치에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에서는 5명 이상 사적모임을 갖지 못하고, 저녁 6시 이후에는 그마저도 2명만 가능하다. 일상이 멈춰졌지만 참으면서 버티고 있다.

지난 3일에도 민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8000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집회 참가자들에서 확진자도 발생했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민노총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뒤늦게 민노총에 집회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고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제대로 먹이지 않는다. 정부가 저자세로 일관하니 민노총이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 말로만 엄포를 놓지 말고 분명한 책임 추궁과 불법행위의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영화로 보는 세상

인도는 왜 선진국이 아닌가? ‘화이트타이거’

오래전 인도영화제를 기획하기 위해 인도 뭍바이에 출장 간 적이 있다. 빈부 격차가 지구상에서 가장 크다는 도시다. 하필 가장 가난한 동네의 중심에 우뚝 솟아 있는 호텔에 머물렀다. 햇살이 쏟아지는 저녁 무렵 함께 간 선배와 거리 구경에 나섰다. 도로 곳곳에 아부데서나 자는 사람들과 굶주림에 지쳐 거리에 나뒹구는 피부병 걸린 개를 보면서 얼른 속소로 돌아가고만 싶었다. 가로등도 없어자칫하면 맨홀에 빠질 수 있어 극도의 긴장감을 갖고 걸어야 했던 아찔한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규모와 잠재력의 국가 경쟁력은 높지만 여전히 개인 소득은 하위를 달리고 있는 인도의 실상이 지금도 크게 변한 건 같지 않다.



이런 인도의 현실을 풍자와 유희를 넣고 페이스북으로 간을 맞춘 영화 ‘화이트타이거’는 여느 발리우드(인도에서 만들어지는 할리우드 스타일의 대중영화) 영화와는 결이 다르다. 성공한 실업가 발람(아르다시 구라브)이 등장하는 첫 장면 독백이 영화의 지향점을 말해준다. “인도는 두 나라로 구성된다. 빛의 인도와 어둠의 인도이다. 그리고 두 개의 계층이 존재한다. 배부른 인도와 배고파 죽어가는 인도다.”

영화는 맨부커상을 수상한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밑바닥 계층 흡수자 청년의 자수성가 이야기로 흥미롭

게 이야기를 쫓아갈 수 있다. 주인공은 한 세대에 단 한 번 정글에 나타난다는 가장 희귀한 짐승인 백호(white tiger, 여기서 화이트타이거는 엄청난 부자를 뜻한다)가 되고자 다짐하고 빈민촌을 떠나 델리로 상경, 어렵사리 부잣집 운전기사가 된다. 그러나 인도의 중첩된 여러 위선과 마주치며 좌절한다.

인도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 서러는 걸 영화는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법률적으로 계급은 없어졌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인도 사회를 지배한다. 발람은 인도에서 신분을 극복하는 방법은 범죄 아니면 정치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먼저 정치에 손을 내밀어본

다. 어린시절부터 ‘위대한 사회주의자’당을 지지해왔고 사회주의자당은 자신들과 같은 사람을 위해 싸워주리라 기대했지만, 그당의 지도자가 버젓이 돈가방을 뽐물로 받는 모습을 보고 깨닫는다. 역시 기밀 것은 돈밖에 없고 돈은 불법으로만 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인공 발람은 원하던 부자는 되지만 여전히 카스트 체제 내의 먹이사슬에서 한 발자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 여기에 약탈적 천민자본주의까지 가세하여 이중적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

Discover your world The all-new Sportage

궁금한 그곳으로, 나를



Movement that inspires

구입문의 1588-1100 | 고객센터 080-200-2000 | www.kia.com

기아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2WD 17인치 타이어 7단 DCT: 복합연비 12.5m/l (도심연비: 11.5km/l, 고속도로연비: 13.8km/l)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525kg | 복합CO2배출량 139g/km - 3등급 ▶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2WD 18인치 타이어 7단 DCT: 복합연비 12.3m/l (도심연비: 11.3km/l, 고속도로연비: 13.6km/l)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555kg | 복합CO2배출량 139g/km - 3등급 ▶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2WD 18인치 타이어 (일트인 쉐) 7단 DCT: 복합연비 12.1m/l (도심연비: 11.0km/l, 고속도로연비: 13.3km/l)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545kg | 복합CO2배출량 139g/km - 3등급 ▶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2WD 19인치 타이어 (일트인 쉐) 7단 DCT: 복합연비 11.8m/l (도심연비: 10.9km/l, 고속도로연비: 13.0km/l)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549kg | 복합CO2배출량 142g/km - 3등급 ▶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4WD 17인치 타이어 7단 DCT: 복합연비 11.6m/l (도심연비: 10.7km/l, 고속도로연비: 12.9km/l)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585kg | 복합CO2배출량 145g/km - 3등급 ▶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4WD 18인치 타이어 7단 DCT: 복합연비 11.3m/l (도심연비: 10.4km/l, 고속도로연비: 12.5km/l)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615kg | 복합CO2배출량 149g/km - 4등급 ▶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4WD 18인치 타이어 (일트인 쉐) 7단 DCT: 복합연비 11.1m/l (도심연비: 10.3km/l, 고속도로연비: 12.1km/l)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619kg | 복합CO2배출량 151g/km - 4등급 ▶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4WD 19인치 타이어 7단 DCT: 복합연비 11.1m/l (도심연비: 10.1km/l, 고속도로연비: 12.5km/l)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605kg | 복합CO2배출량 152g/km - 4등급 ▶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4WD 19인치 타이어 (일트인 쉐) 7단 DCT: 복합연비 10.8m/l (도심연비: 9.8km/l, 고속도로연비: 12.2km/l)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605kg | 복합CO2배출량 156g/km - 4등급 ▶ 스포티지 2.0 디젤 2WD 17인치 타이어 자동 8단: 복합연비 14.6m/l (도심연비: 13.4km/l, 고속도로연비: 16.2km/l) | 배기량 1998cc | 공차중량 1615kg | 복합CO2배출량 130g/km - 2등급 ▶ 스포티지 2.0 디젤 2WD 18인치 타이어 자동 8단: 복합연비 14.0m/l (도심연비: 12.5km/l, 고속도로연비: 16.2km/l) | 배기량 1998cc | 공차중량 1645kg | 복합CO2배출량 136g/km - 2등급 ▶ 스포티지 2.0 디젤 2WD 18인치 타이어 (일트인 쉐) 자동 8단: 복합연비 13.9m/l (도심연비: 12.5km/l, 고속도로연비: 16.0km/l) | 배기량 1998cc | 공차중량 1645kg | 복합CO2배출량 137g/km - 2등급 ▶ 스포티지 2.0 디젤 2WD 19인치 타이어 자동 8단: 복합연비 14.1m/l (도심연비: 12.7km/l, 고속도로연비: 16.2km/l) | 배기량 1998cc | 공차중량 1635kg | 복합CO2배출량 135g/km - 2등급 ▶ 스포티지 2.0 디젤 4WD 18인치 타이어 (일트인 쉐) 자동 8단: 복합연비 13.9m/l (도심연비: 12.5km/l, 고속도로연비: 15.9km/l) | 배기량 1998cc | 공차중량 1635kg | 복합CO2배출량 137g/km - 2등급 ▶ 스포티지 2.0 디젤 4WD 17인치 타이어 자동 8단: 복합연비 13.1m/l (도심연비: 11.9km/l, 고속도로연비: 14.7km/l) | 배기량 1998cc | 공차중량 1685kg | 복합CO2배출량 146g/km - 3등급 ▶ 스포티지 2.0 디젤 4WD 18인치 타이어 자동 8단: 복합연비 12.8m/l (도심연비: 11.7km/l, 고속도로연비: 14.3km/l) | 배기량 1998cc | 공차중량 1715kg | 복합CO2배출량 150g/km - 3등급 ▶ 스포티지 2.0 디젤 4WD 18인치 타이어 (일트인 쉐) 자동 8단: 복합연비 12.7m/l (도심연비: 11.6km/l, 고속도로연비: 14.2km/l) | 배기량 1998cc | 공차중량 1715kg | 복합CO2배출량 151g/km - 3등급 ▶ 스포티지 2.0 디젤 4WD 19인치 타이어 자동 8단: 복합연비 12.9m/l (도심연비: 11.9km/l, 고속도로연비: 14.3km/l) | 배기량 1998cc | 공차중량 1705kg | 복합CO2배출량 149g/km - 3등급 ▶ 스포티지 2.0 디젤 4WD 19인치 타이어 (일트인 쉐) 자동 8단: 복합연비 12.6m/l (도심연비: 11.5km/l, 고속도로연비: 14.1km/l) | 배기량 1998cc | 공차중량 1705kg | 복합CO2배출량 152g/km - 3등급 ▶ 스포티지 1.6 터보 하이브리드 2WD 17/18인치 타이어 자동 6단: 복합연비 16.7m/l (도심연비: 17.4km/l, 고속도로연비: 15.9km/l)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625kg | 복합CO2배출량 96g/km - 1등급 ▶ 스포티지 1.6 터보 하이브리드 2WD 17/18인치 타이어 (일트인 쉐) 자동 6단: 복합연비 16.3m/l (도심연비: 16.6km/l, 고속도로연비: 15.8km/l)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625kg | 복합CO2배출량 99g/km - 1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기온도에 따라 실 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사양구성은 트립, 엔진 및 섀시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